

지운 스님(동화사 율주)
慈悲手觀 수행은
생명 연결 신호 받는 것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2월 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37호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모자란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지혜로운 이는 가득 찬 연못과 같다.

문화재 도난범죄 공소시효 25년 되나

김광진 의원 관련法 시효 연장 개정안 발의

대부분 시효 지나 거래돼
처벌 無…개정 필요성 높아
조계종"도난 감소 기대"

도난문화재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월 9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재보호법에는 제92조 6항이 신설됐다. 이는 문화재 절취 또는 은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25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 제32조 2항은 도굴에 관한 법안으로 역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정했다. 문화재 절도 행위를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로 본 것으로 우리나라 형법상 최장의 공소시효 기간이다.

이 같은 강력한 법 개정이 이뤄지는 이유는 그동안 법망을 회피해 도난 문화재 거래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인사동의 한 옥션에서 회수한 도난 성보문화재의 경우 도난품을 경매에 출품한 사립박물관장 권모 씨는 처벌을 받았지만, 권 씨에게 이를 판매한 12명 중 10명이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받지 않았다.

김광진 의원은 "문화재 관련 범죄는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적발이 가능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적발 시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사를 밝히며 정부차원에서 도난 방지 차원의 대책도 함께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공소시효 폐지가 최선이지만 25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난 것은 환영한다"며 "시효가 늘어난 만큼 도난사건 감소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가 도난품으로 확인되면 매매를 무효로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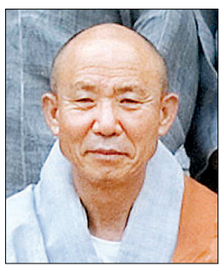


해인총림 해인사 9대 방장에 벽산당 원각 스님이 추대됐다. 스님은 3월 19일 주석처를 해인사 퇴설당으로 옮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장 스님 착좌석' 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화분으로 축하했다. 사진 제공=해인총림 해인사

해인총림 9대 방장 원각 스님 추대

조계종중앙종회 17일 만장일치로… 19일 퇴설당 입실

'방장 스님 착좌석'
박 대통령 화환 보내



해인총림 해인사 9대 방장에 벽산당 원각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3월 17일 열린 제201차 임시회에서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추대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법보, 장명 스님은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다수 의원 스님들은 인사심의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동의하며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동의했다.

이에 따라 법전 스님의 열반으로 공석이었던 해인총림 해인사 최고어른인 방장은 원각 스님이 맡게 됐다.

공식적인 추대를 받은 원각 스님은 3월 19일 주석처를 해인사 퇴설당으로 옮겼다. 스님은 오후 2시 그간 주석하던 원당암을 나와 해인사 대중 200여 명과 함께 해인사 선사 스님들의 부도탑과 진영각, 대적광전 등을 참배 후 퇴설당에 입실했다.

퇴설당 입실 직후 원각 스님은 대중들의 인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해인사 대중 스님들이 방장 선출 과정에서 대립을 했지만 산중총회를 통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대중들이 뜻을 서로 모으면 산중 화합을 이루고 종단과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으로 퇴설당에 입실한 원각 스님을 축하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방장 스님 착좌석' 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난(蘭) 화분을 보냈으며, 강창일 국회 정각회 회장 등 정계 인사들도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또한 18일부터 해외 출장 중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대신해 윤성혜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 국장과 하창환 합천군수가 예방하기도 했다.

한편, 해인총림 9대 방장 원각 스님은 1967년 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해인사, 극락암, 송광사, 상원사, 범어사, 불국사, 상무주암 등 전국 선원에서 정진을 해온 수행자이다. 고견사 주지와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해인사 유나 소임을 맡아 평생을 후학을 제접하며 수행에 전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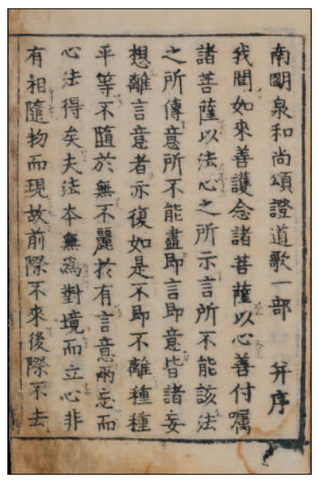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목판본 오인 증도가' 가 직지보다 138년 앞선다"

박상국 원장, 21일 보조사상 세미나서 주장

농박도 · 활자움직임 등
금속활자본 근거 제시

직지 고인쇄博 반박
"활자흠집 같지 않다"



공인박물관 소장 보물758-2호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박상국 원장은 〈직지〉보다 빠른 연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심체요절(1377년 간행)보다 138년 앞서는 금속활자본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최고(最古) 금속활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증도가자의 목판본이 금속활자본이라는 주장이다. **〈본지 2월 19일자 보도〉**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3월 21일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개최한 월례학술대회에서 "2012년 보물 758-2호(공인박물관 소장)로 지정된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이하 증도가)는 금속활자본"이며 "현존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보다 138년 앞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도가〉는 삼성출판박물관본, 공인박물관본이 보물로 지정(758-1호, 2호)돼있으며 대구의 한 개인이 소장한 본이 문화재 지정 추진 중에 있다. 박 원장은 공인박물관본과 삼성출판박물관본, 대구 개인소장본을 6개월 간 연구한 결과 공인박물관본에서 금속활자본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먼저 박 원장은 △면 테두리 인쇄가 깨끗한 점 △활자 높낮이가 달라 글자간 농담 차이가 심한 점 △활자가 움직여 인쇄가 밀린 흔적이 있는 점 △쇠똥자국이 뭉쳐진 점 △쇳조각이 붙은 철편 자국이 보이는 점 △농담 차이로 보사(새로 칠한 것)한 글자가 많은 점 △역시 같은 이유로 획에 가필한 흔적이 많은 점 등을 들었다.

박 원장은 "목판본은 평평해 먹이 골고루 찍히는 반면 활자가 밀리거나 철편 현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그동안 목판본임을 밝혀주는 중요한 근거였던 고종26년(1239년) 무신정권 수장최이(崔怡)의 증도가 발문에도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증도가는 '어시모공 중조주자본 이수기전언' (於是募工 重彫鑄字本 以壽其傳焉, 공인을 모집해 '주자본을 바탕으로 다시 판각해서' 길이 전하게 한다) 발문을 통해 번각본으로 여겨졌다.

박 원장은 "'주자(활자)본으로 다시 새겨 오래도록 전해지게 하고자 한다' 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지〉관련 기관인 청주고인쇄박물관 측은 이 같은 박 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황정하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공인박물관 소장본이 삼성출판박물관과 개인 소장 목판본보다 종이의 질과 인쇄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아서 나오는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실장은 △활자본의 특징인 글자 흠집이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는 점 △세 개의 소장본 테두리 흠집까지 모두 동일 한 점 △글자의 끊어짐과 간격 등이 세 개의 소장본이 동일한 점 △명시된 11명의 각수 이름이 역시 목판인 대장경 각수로도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황 연구실장은 "금속활자본이라면 활자의 흠집 또한 각 페이지에 같이 나타나야 함에도 동일한 것이 없다. 이는 목각임을 의미한다"며 "또 쇠똥자국 등도 목각본에서 인쇄상태가 고르지 않으면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발문 해석에 대해서도 황 학예연구실장은 "금속활자는 주조했다는 표현을 쓴다. '새겼다' 는 구문은 대상이 목판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 고

감사편지 공모

–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통의 감사편지는 자기 힐링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곧 불자다운 삶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과 함께 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부처님, 가족, 스승, 친지, 이웃에게 쓰는 '감사편지' 를 공모합니다. '감사의 합장' 을 생활화 하기 위한 이 행사에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공모 일시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A4 용지 2매 글자크기 10포인트)
접수·문의 우편(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메일(linus@hyunbul.com) 접수 전화 (02)2004-8200
수상 내역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 다수로 수상자에게는 주최 · 후원단체 대표자의 상패와 상금, 부상이 수여됩니다.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후원 | 불교여성개발원 · 동산반야회 · 공림공양회 · 여여원

1037호 INDEX

시방세계 5
세월호 1주기 추모
진관 스님 북콘서트



화엄만다라 16·17
임종 앞둔 환자 돌보는
환희 호스피스 봉사단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 도자기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 차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 낱개 5,000원 • 2개 SET 9,000원 • 3SET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총무원장 직선제 협의체 구성하자”

사부대중 연대회의, 16일 기자회견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가 3월 16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창립된 지 6개월 만이다.

연대회의 측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총무원 집행부에게는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개정안 제출을, 불교광장 측에는 직선제 실현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배현진 기자**

태고종 중앙종회 집행부 종회의원 제명

총무원장 퇴진을 둘러싸고 태고종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태고종 중앙종회가종회의원 8명을 제명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3월 18일 신촌 봉원사에서 제119회 임시종회를 열고 종법 개정과 함께 “종법에 따르지 않고 종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이유로 수석부의장 지홍 스님 등 8명을 제명했다. 8명의 종회의원 스님들은 3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종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17일 기각 결정이 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이날 상정된 중앙종회법 등 개정안은 의결정족수도 못 채웠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노덕현 기자**

쌍계사, 선운사 주지 효명 · 경우 스님 임명


효명 스님


경우 스님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8일 쌍계사 주지 효명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쌍계사 신임 주지 효명 스님은 혜원스님을 은사로 1988년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혜원정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는 계단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운사 신임 주지 경우 스님은 지성 스님을 은사로 1985년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만일사, 청연사, 장경사 주지와 총무원 사서실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제15,16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종헌 개헌·법인관리법 개정 ‘화두’ 던지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01차 임시회 이모저모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 제201차 임시회가 3월 19일로 회기를 단축하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는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추대를 비롯해 다양한 종단 현안에 대한 안건 24개가 상정돼 처리됐다.

종헌 개정… 원로회의 인준 관심

조계종 중앙종회 제201차 임시회에서는 종헌 개정안 두 건이 1안과 2안으로 올라왔다. 1안은 찬성 57표, 반대 4표로 의결정족수 54표를 넘겨 가결됐으나 2안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1안은 종정 자격 상향과 원로회의 명칭 변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로회의’는 ‘원로회’로 명칭이 개정되며, 원로회 의장의 임기를 단임으로 규정했다. 또한 원로의원 자격에 맞춰 종정 자격 조건을 연령 70세 이상으로 상향됐다.

초심호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하고 불신임할 수 있게 됐으며,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현재 상황을 고려해 삭제했다.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의 자격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안은 부결됐다. 의원 스님 중 일부는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법계 대덕·혜덕, 승납 20년 이상으로 상향하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2안이 부결됨에 따라 비구니 스님들의 법규위원 참여도 다시 좌절됐다.

종헌 개정안은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된다. 지난해에도 원로회의 인준 과정에서 부결돼 종헌이 개정되지 못했다.

망실위기 흥룡사를 구하라

이번 중앙종회 회기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망실 위기에 놓인 흥룡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종단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점이다.

흥룡사는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의 말사이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대웅전 등 법당이 4동에 이르고 여러 채의 요사채를 거느린 대규모 사찰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흥룡사는 토지불법임대, 2중임대, 토지불법처분과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 몸살을 앓아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지 스님들이 제적 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발의한 주경 스님은 “20만평에 달하는 흥룡사 사찰 토지 경매가 있다. 현재 주지가 찾아와서 종회의원들에게 어려움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현재 본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종단이 나서서 사찰 망실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중앙종회는 흥룡사 정상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흥룡사 정상화를 위한 위원회는 사찰 토지 망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 활동 인원은 9명으로 중앙종회의원 7인과 총무부장, 재무부장이 참여한다. 실무위원으로는 총무원 실무자와 중앙종회 사무처, 별도 전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흥룡사 사찰 토지 매각 관련 현황 조사를 비롯해 사찰 토지 경매 등 우려문제 해소, 사찰 토지 보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중앙종회는 3월 19일 속개한 201차 임시회에서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17일 제201차 임시회를 열고 해인총림 방장 추대와 종헌 · 종법 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단축해 19일 폐회했다.

원로회의 명칭 ‘원로회’로
종정 자격 70세로 상향
비구니 법규위 진출은 막혀

법인 분류 세밀화 ‘주문’
종헌 개헌 필요성 대두

종헌 개헌과 법인관리법 개정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요청한 미등록 법인의 재제 조치를 7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됐지만 숙제도 남겼다.

실제 의장 성문 스님은 법인관리법 개정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성문 스님은 “종헌 9조 3항은 1994년 개혁 당시 최고의 성과”라면서 “그간 종헌 9조 3항에 대한 적용은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 등에만 이뤄져 왔다. 장학재단, 복지법인, 학술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법인관리법 내 법인의 분류는 현재 사찰법인, 사찰보유법인, 사찰출연법인, 승려법인 등이다. 법인의 분류를 조금 더 세밀히 나눠서 사소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차기 종회에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헌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역시 성과이자 향후의 숙제이다. 종회의원 범해 스님은 “종단 운영의 골간을 이루는 종헌을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의장 성문 스님 역시 “정화불사 속에서 만들어진 종헌은 현재의 변화를 담아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종헌의 틀도 과감하게, 거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범종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종헌종법특위와 의장단이 충분히 상의해 차기 중앙종회에서 발전된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열린모임,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불신임’

3월 16일 법룡사서 결의대회
명성 스님 등 600여 명 동참
비구니회 “해종 행위” 반박도

비구니계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장 임기만료 7개월을 앞두고 열린비구니모임이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를 불신임했다.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해온 ‘열린비구니모임’(이하 열린모임)은 3월 16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 모여 전국비구니회 회장 불신임을 비롯한 집행부 불인정에 대한 안건을 결의했다.

이날 열린모임 소속 비구니 600여 명(경찰 추산 350명)은 전국비구니회가 법룡사 법당의 사용을 불허함에 따라 법룡사 앞마당에 모여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열린모임 측은 △전국비구니회 회장 불신임 △운영위원장 불인정 △운영위원회 불인정 △전국비구니회의 제16대 비구니 종회 의원 추천 불인정 △전국비구니회 회칙 개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결의했다. 회칙 개정의 건은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6장 운영위원회 제15조에 명시된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 관련 연령제한을 삭제하는 내용과 제16조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집행부 부실장, 각 지회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대회에는 600여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했다.

대회장 법륜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결책으로 총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이를 무시했다. 또 천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을 불법단체로 규명하고 비구니회관을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며 “전국비구니회가 누구를 위한 비구니회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로로서 결의대회에 참여한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실수는 병가상사라 역지사지로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승려의 수행”이라며 “다만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닌 우리들의 법당이며 전국 비구니들의 선불장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를 폐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모임은 결의 후 ‘전국비구니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비상대책위의 위원장에는 열린모임 공동대표인 임대 스님이 이름을 올렸으며 14개 지역 준비위원장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는 열린모임의 결의대회를 해종행위라고 규정하고 비판했다. 비구니회 집행부는 성명서를 통해 “열린비구니모임은 6개월여 남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행동은 궁극적으로 우리 종단에 대한 해종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중도적 입장서 민생 살펴달라”

자승 스님, 문재인 새정치 대표 예방서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문재인 새청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중도(中道)의 정치를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당 대표 선출되고 바로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찾아오지 못했다. 송구하다”고 인사하면서 “현재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빈자리를 종교가 나서서 채워주고 있고, 특히 불교의 조계종이 세월호 참사부터 화쟁위원회 활동까지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종단 어른들께서 가르침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정치의 근본은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정무방소 명대승심(政無方所 命大乘心)’이라는 경구를 소개했다.

스님은 “부처님 재세당시에나 지금이나 정치에는 정확한 주소는 없지만 대승적 마음으로 움직여하는 것은 맞다”면서 “대승에 이르는 것은 중도(中道)적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중도는 누구의 편이 아니라 너와 내가 모두 이로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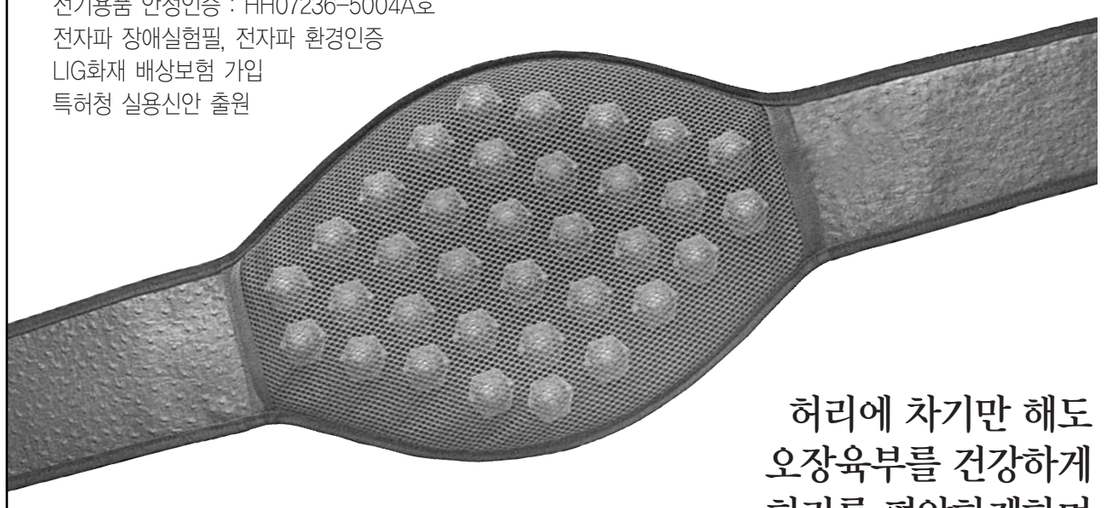
한편, 이날 자리에는 총무부장 지현 스님, 기획실장 일감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 등 불교 측 인사를 비롯해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정세균 국회의원, 임수경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48기 사미 · 사미니 수계교육 입재

조계종 10일 직지사서

조계종이 출가 수행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행자들을 위한 수계교육을 진행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3월 10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제48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의 입재를 알리는 고불식을 진행했다.

고불식에는 남행자 65명, 여행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간의 수계교육 일정에 들어갔으며, 이들 중에는 '청소년출가 ·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한 소년출가자 5명이 입교했다.

교육원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입재사를 통해 "지혜를 이루고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승가의 일원으로 성장해달라"고 입교행자들에게 당부했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수행의 길은 짧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먼 여행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수계교육을 계기로 수행자의 각오를 다시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수계교육 유나인 덕문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모든 중생들을 선지식으로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용맹정진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교육원이 주관하는 수계교육은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열리며, 행자들의 교육과 습의를 위해 교수사, 갈마사, 습의사 스님 30여명이 상주하며, 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총림 지정' 위해 열린 법주사 산중총회 무산

구성원 274명 중 49명 참석

총림 지정을 위해 대중공의를 묻고자 했던 법주사 산중총회가 무산됐다.

3월 19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법주사 산중총회(의장 현조)는 구성원 274명 가운데 49명이 참석해 성원미달로 유회됐다. 성원을 채우지 못한 산중총회는 간담회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3월 13일 법주사 운영위원회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총림 지정 협조 요청을 했었다. 조실 월서 스님, 회주 월탄 스님, 운영위원장 설조 스님, 주지 현조 스님, 前 주지 도공 스님, 중앙종회의원 원경 · 정덕 스님 등이 총무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종법에 명시된대로 산중총회에서 결의한 뒤 총림 지정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이제 '1:1 코칭 포교' 필요"

김응철 교수, 불교평론 '포교' 주제 열린논단서 주장

무신론자, 비신론자 등 비종교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의 포교 방법과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사진〉는 '한국불교 포교, 잘하고 있는가' 를 주제로 3월 19일 열린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 한국불교 포교 방법론의 변화를 역설했다.

김 교수는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의 종교의식 변화를 분석하고 "현재 한국사회의 종교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불교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교수는 한국불교 포교활동은 이제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고 포교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종단, 교구, 단위사찰, 승가, 단체 등 포교 주체의 역량에 대해서는 '불안정하다' 고 주장했다. 승가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종단은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종단에 불과하고 포교 능력을 갖춘 사찰 역시 종단협의회에 등록된 소수 사찰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한 사찰의 사유화로 공찰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는 것도 문제라도 지적했다.

포교 대상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 교수는 "현재 30대 이하 젊은 층들의 종교성 약화가 두드러진다"면서 "하지만 불교계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사회 비종교인 증가추세

소수 대면 포교로 변화 필요

포교 참여할 재가자 양성해야

수행력 갖춘 수행자 배출 및

불교 본연 역할에도 충실해야

효과적인 포교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통적 포교 방법인 대중적 법회의 참여자 감소하고 설법의 감화력이 감소하는 현 시점에서 대상에 따른 포교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종교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 추세를 감안해서 멘토-멘티 시스템을 활용한 소수 대면 교육이 포교 방법으로 개발돼야 하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비종교인이 급증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팀교육, 멘토-멘티 관계를 이용한 1:1 교육, 그리고 코칭 활동을 통한 지도력 향상 교육 등 직접 찾아가는 소수 대면 교육이 효과적"이라며 "소규모 팀 교육이 이뤄진 후에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묶어 조직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수행력을 갖춘 스님 배출 △불교 본연의 목적에 충실 △핵심 불자 교육과 체계화 필요 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종교 조직의 성패는 성직자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사회적 평판에 달려 있다"면서 "소수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행자가 출현해야 포교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교의 목적인 '취착없는 열반의 체득' 은 개인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사회적인 회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 전법교화의 체계적 실천이 필요하며 그 역할은 '중생구제와 불국토 건설' 이라는 불교의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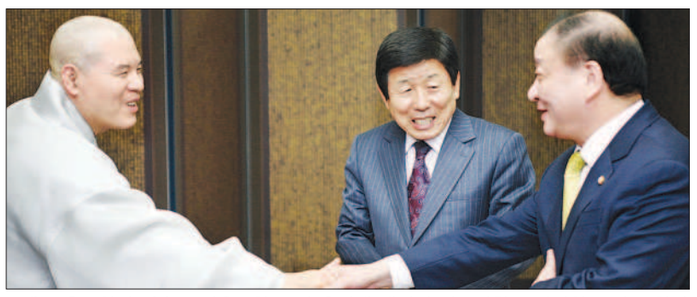
조계종, 사형제 폐지 힘보탠다

사형제 폐지 특별법 발의 유인태 의원 등 요청에 자승 스님 친서 전달 약속

조계종이 사형제 폐지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8일 유인태 · 강창일 · 임수경 국회의원이 예방한 자리에서 사형제 폐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자리에서 유인태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참을 목표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며 "지난 국회에서 175명의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에 동의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사형제는 존속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주저하는 의원들이 늘었다.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강창일 의원은 "생명존중, 불살생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현될 수 있도록 먼저 정각회 불자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승 스님이 친서를 발송하는 등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8일 유인태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 등이 요청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 에 뜻을 같이 할 것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친서 발송을 약속하며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지도자들이 사형제 폐지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사형제 폐지 촉구 성명과 사형수 수계법회를 열어주었다. 서한 발송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발표한 2013년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사형을 완전 폐지한 나라는 98개국,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35개국 등 140여개 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에 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1997년 이후 17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 으로 분류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승가교육 개혁불사 5년 역사 '한눈에'

조계종 교육원 6대 집행부 사업백서 발간

승가교육 흐름 · 전망 정리

주요 연표 · 언론 기사 망라



조계종 교육원이 2009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진행했던 승가교육 개혁불사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지난 제6대 교육원 집행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함께 한 제6대 교육원 사업백서〉(이하 백서 · 사진)를 발간했다.

〈백서〉는 △진단과 제언 △제6대 집행부 사업 분야별 내용 △제6대 교육원의 평가와 나아갈 방향 △부록 등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진단과 제언에는 6대 집행부 구성 초기에 종단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승가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종정 스님의 교시와 승가교육진흥위원장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담화문, 승가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장에는 집행부 사업 분양별로 추진한 업무성과를 정리하고 사업별 과제를 진단해 향후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장에는 6대 교육원의 전반적인 평가와 과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부록편에는 주요 연표와 언론 주요기사를 통해 그간의 과정을 생동감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6대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과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의 방명도 게재했다.

이번 〈백서〉 발간에 대해 교육원은 "초기에 각종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승가교육의 개혁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모두 수록해 승가교육 개혁의 공공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면서 "사업별로 취지와 목적 및 내용과 경과를 정리하고 성과와 과제를 제시해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6대 교육원의 전반적인 평가와 과제를 통해 7대 교육원의 사업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자 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서〉는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의 '승가교육'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이사장직 놓고 법적 공방

일면 · 영담 스님, 쌍방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학교 교직원들 중립 선언

중앙종회 정상화 결의문도

동국대 분규사태가 법적 공방 속에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사장 일면 스님과 이사장 집무대행 영담 스님, 양측의 가처분 신청 속에 교무위원들은 중립을 선언했다.

동국대 前이사장 정련 스님과 정련 스님으로부터 직무대행을 지명 받은 영담 스님은 3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면 스님을 상대로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일면 스님도 영담 스님에 대해 3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사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은 소유권자가 점유권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이다. 정련 · 영담 스님이 제기한 가처분은 4월 1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적 공방 속에 동국대에서는 이사장 직무집행을 두고 신경전이 전개됐다. 3월 12일 일면 스님의 이사장실 출근에 영담 스님은 이날 저녁 이사장실을 폐쇄했다.

이후 일면 스님은 본관 5층 교무위원회 회의실, 영담 스님은 본관 4층 법인사무처 회의실을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양측의 법적 공방 속에 교무위원들은 중립을 표명했다. 정창근 동국대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교무위원들은 12일 "법인 이사장 자리를 두고 법률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어느 편의 지시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 교육과 행정은 제289회 법인이사회 결의에서 소임을 맡은 총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201차 임시회에서 '동국대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 을 채택하고 학교 정상화를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보련 기획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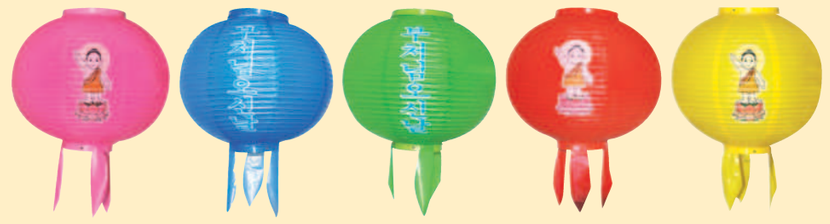




|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BORYEON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도원 스님, 원주불교聯 회장 취임



천태종 원주 성문사 주지 도원 스님〈사진〉이 신임 원주불교사암연합회장에 취임했다. 원주불교사암연합회는 3월 15일 성문사 대법당서 '제15대(적천) · 16대(도원) 회장 이 · 취임식' 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교무부장 경혜 스님을 비롯해 원창묵 원주시장, 이상현 원주시의회의장, 이강후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원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원주는 영서지방의 중요한 포교 거점이며, 원주 불교는 모두가 원주의 문화 · 전통 속에서 함께 공존한다"며 "원주불교사암연합회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가르침을 받들어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책방 '비움과 소통' 개원



김성우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대표는 3월 19일 서울 구로동에 책방 '비움과소통' 문을 열었다. 책방 '비움과소통' 은 불교서적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한다. 새 책 뿐만 아니라 중고책, 절판(품절)책 등을 구하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새 책은 10%, 중고책은 20~70%까지 할인 구매 가능하다. (02)2632-8739 **노덕현 기자**

석산 스님 3월 19일 영결식 엄수



만일염불회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어산장 지봉당 석산 스님 영결식이 3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정법사 극락전에서 대한불교(재)선학원 재단장으로 엄수됐다.

1919년 기미년에 출생한 석산 스님은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37년 건봉사에서 사미계를, 1965년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은사인 보광 스님은 만일염불회의 법통을 계승한 대련 스님의 제자였고, 이런 스승의 영향으로 염불을 체계적으로 배웠다. 또한 교학은 만해 스님에게서 수학해 선교와 염불을 통섭하기에 이르렀다.

석산 스님은 6.25전쟁이 끝나고 1954년부터 7년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시봉했다. 석산 스님은 1960년 삼각산 복천암이라는 암자가 있던 도량에 지금의 정법사를 세우고 평생의 주석처(住錫處)로 삼았다. 스님은 세납 90이 넘어도 매일같이 염불정근, 포행, 축원, 사경 등을 거르는 일이 없었다. 스스로 주석처인 정법사를 무문관으로 삼아 사시사철 밤낮으로 365일 안거였다. 스님은 정진 끝에 3월 15일 임종게를 남기고 원적에 들었다. **신성민 기자**

"불교 내부 양심 목소리 내겠다"

재가연대 신임 상임대표 허태곤 씨



회원이탈 · 재정난 등 재가운동 위기
정체성 재정립하고 회원배가운동
개혁 성격의 불교단체와 연대 계획

"불교 내부 양심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목소리 역시 지나치게 작습니다. 스님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재가자라도 그 일을 해야죠. 불교 내부에 산적한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정체성 역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14일 참여불교재가연대 7기 상임대표에 선출된 허태곤 씨(우리는선우 감사, 두보식품 대표)가 재가연대 정체성을 재정립함으로써 침체돼 있는 단체 활동을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참여불교재가연대 미래특별위원회원으로 활동해오면서 단체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사실 미래특위가 꾸려진 것도 재가연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나날이 줄어드는 회원 수도 문제였지만 건물 매입시 은행에 졌던 빚 문제가 더 급했다. 지금은 건물 일부를 매각해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상태. 허 대표는 이대로 재가연대가 힘을 잃으면 재가운동 동력역시 상실, 좌초돼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표직을 수락하게 된 데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허 대표 스스로 느꼈던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

사실 최근 들어 재가연대는 불교계에서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동국대 총장 선거가 파행됐을 때도, 해인사 방장 선출에 잡음이 있을 때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송담 스님이 조계종 탈종을 선언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임 공동대표간 사안에 대한 입장차도 있었고 회원 역시 이탈하면서 체력이 방전됐던 것이다.

허 대표는 "재가자들이 스님들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스님들이 알아야 한다"며 그동안 재가연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을 안타까워했다.

허 대표가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선출된 공동대표들이 활동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규 교단자정센터 원장, 우희종 서울대 교수, 김형남 교단자정센터 대표, 김윤이 불교아카데미 이사 등 줄곧 불교 내 개혁을 주장하던 이들이 공동대표를 맡은 것이다.

조직이 재정비된 만큼 허 대표는 이들과 함께 재가연대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사업계획도 다시 꾸릴 생각이다. 조만간 현재 재가연대 역량에 맞춰 목표를 세우고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아직은 미래 비전에 대한 초안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과 협력해 역량을 끌어올릴 준비도 하고 있다. 참여불교 정신에 기초한 불자들의 연대체로서 역할을 공고히 다져나갈 생각이다.

허 대표는 2백여명에 지나지 않는 회원들도 배가운동을 실시해 차츰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해 초창기 회원들과 불교아카데미 리더스클럽, 개척자 학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재가연대 홍보에 나서, 올해 말까지 회원수 5백명 확보를 위해 진력할 생각이다. 현재 진 5억원 가량의 빚은 회원이 늘면서 자연스레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지난 2013년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으며, 현재 우리는 선우 감사, 성균민주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다. **배현진 기자**

법정 스님 5주기 추모 법회 열려

3월 16일 길상사 설법전서… 7백여명 참석



법정 스님의 5주기 추모 법회가 3월 16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송광사 동당 법흥 스님 · 주지 무상 스님, 법정 스님의 속가 조카 현장 스님, 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 독일 불이선원장 현각 스님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했다.

길상사 주지 덕운 스님(맑고 향기롭게 이사장)은 "은사 스님 입적이 어느덧 5주기를 맞았다. 은사스님의 죽비 같은 말씀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절"이라며 법정 스님의 영상법문(2009년 4월 19일 봄 정기법문)을 소개했다.

이어 법정 스님과 반세기를 같이 지낸 송광사 동당 법흥 스님의 추모법문과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문도 대표 덕조 스님은 "스님은 꽃피는 3월을 좋아하셨고 가실 때는 봄에 떠날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3월에 떠나셨다"며 "스님은 가셨지만 스님의 덕은 그대로 살아있다. 스님 뜻을 기려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가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제 20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선정

남지심 · 시인 전기철 씨 등… 4월 25일 시상식



남지심 전기철 이지엽 이경철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현대불교문학상 제20회 수상자가 선정됐다.

수상부문 및 수상자는 △시 부문에 전기철, '구름의 가장자리' 〈현대문학〉 2014년 9월 외 4편 △시조 부문에 이지엽 '세상의 모든 어미' 〈문학사상〉 2014년 1월 외 4편 △소설부문에 남지심 〈우담바라〉(고려원 1987, 푸른숲 2001) △평론 부문에 이경철 '21세기 시조 창작과 비평의 현장' (고요아침 2014) 등이다.

심사는 이승훈 시인(전 한양대교수), 문태준 시인, 유자효 시인, 홍성란 시조시인, 이경자 소설가, 장영우 평론가(동국대 교수), 오세영 시인(전 서울대교수), 최동호 시인(평론가, 전 고려대교수) 등이 맡았다.

시상식은 4월 2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상패 각 1000만원이 수여된다. **정혜숙 기자**

세계불교법왕청 지도자협회 개최



(사)세계불교법왕청(대승정 목탁)은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공동주최로 3월 18일 AW컨센션센터 대연회장에서 '한국불교 380여 종단 지도자 하례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진위원장 목탁 스님, 정갑윤 국회부의장, 정암, 각성, 불원, 현담, 혜정, 법혜, 성각, 청운, 진성 스님 등 스님들과 국제불교봉사회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대한불교108종정연합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협의회, 한국불교고승장로단 등 8개 단체는 한국불교가 하나됨을 목표로 초발심으로 거듭나자고 다짐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불교 스스로가 하나의 목소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며 불원대종사를 비롯한 20여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02)733-5665 **노덕현 기자**

응공조계종 자비의 쌀 전달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 총본산 동명사)은 3월 13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 사무소(면장 박용문)에 쌀 20kg 30포를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지역 불우이웃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원로회의 의장 동암 스님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석사 관음보살상 봉안 서명운동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위원장 주경)는 3월 13~15일 청년모임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와 함께 인사동 붓광장과 조계사 일대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부석사불상봉안위는 1월 7일 서산시청에서 발대식 후 서산시청, 부석사와 수덕사, 충남도청, 대전시내에 이어 서울시내에서 거리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부석사불상봉안위는 20일까지 받은 서명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하고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부석사에서 '관세음보살좌상 친견법회' 을 열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8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로즈 박씨가 진행자로, 도창회 수필가(前 동국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진관 스님의 시집 〈바지선 기러기〉를 논평하는 시간도 있었다.



비보이 댄서 김종완씨외 3명이 출연해 난타와 어우러진 비보이 춤을 선보였다.



사진=노덕현 기자

한지조형 설치작가이자 시인인 로즈 박씨가 지상 생명을 상징하는 불씨를 되살려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눈앞 어른거리는 아이들"… 희생자 추모하고 반성을

진관 스님, 시집 출간 기념 및 세월호 1주기 추모 콘서트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간이 모여 어느새 일 년이 지난 것이다. 불교계는 참사 직후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4월 17일 세월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봉사단을 파견해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활동을 펼쳐왔다.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도 지난 해 부처님 오신 날부터 수차례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낮에는 진도 팽목항에서 봉사를 같이 했고 다섯 차례 바지선에 올라 희생자 시신 수습현장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당시 진관 스님은 현장에서 느꼈던 고통과 참담함을 시 108편에 고스란히 담아 시집 〈바지선 기러기〉(한강 刊)을 최근 펴냈다. 그리고 24번째 시집 출간을 기념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3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었다.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진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 '바지선 기러기 북콘서트 토크쇼' 에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 유승무 중앙 승가대 교수, 김정훈 · 이인제 국회의원 등 내외빈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네 가지 테마로 나뉘어 구성됐다. 1부 행사는 '바지선 기러기 다시 불꽃이 되어' 로 스토리가 있는 무대공연이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전수자인 박수빈씨외 2명이 신나는 난타공연으로 객석의 분위기를 신명나게 했다. 이후 비보이 댄서 김종완씨외 3명이 등장해 난타와 어우러진 비보이 춤을 추며 분위기를 한껏 돋우어,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학생들의 들뜬 모습을 연출했다.

이윽고 구슬픈 멜로디의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즐거운 여행길에 나선 아이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조난 당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에도 아이들은 생명을 잃고 세상은 슬픔에 잠긴다. 곧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은 지상의 수호하는 정령이 되고, 비보이 댄서들은 이 과정들을 온 몸으로 표현했다. 잠시 후, 한지조형 설치작가이자 시인인 로즈 박씨가 대자연의 어머니를 연상케 하는 흰 빛깔의 옷을 입고 나타나 고통에 잠긴 영혼을 달래듯 비보이 댄서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진다. 그리고 나서 PVC 비닐로 만든 대형 풍선 안으로 들어가 지상 생명을 상징하는 불씨를 되살려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2 · 3부에서는 또한 소프라노 최승은 명지대 교수의 공연과 법산 · 원명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진관 스님 24번째 시집 〈바지선 기러기〉
팽목항서 봉사하며 느낀 점 담아내
희생자 추모하는 퍼포먼스 마련
"이 같은 아픔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이번 행사 '바지선 기러기 북콘서트 토크쇼' 에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 유승무 중앙 승가대 교수, 김정훈 · 이인제 국회의원 등 내외빈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은 진관 스님의 시 '6월의 비' 를 낭송했다.

인사말에서 원명 스님은 "진관 스님은 이 세상에 고통 받는 뭇생명들에 관심이 많다. 스님은 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시며 많은 노력을 한다"며 "진관 스님의 이번 시집은 세월호 참사 후유증으로 아파하는 중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법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세월호 사건은 인류에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슬픔을 잘 담아내서 시집으로 펴낸 진관 스님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3부 오픈 토크쇼는 로즈 박이 진행자로, 도창회 수필가(전 동국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진관 스님의 시집 〈바지선 기러기〉를 논평하는 시간도 있었다.

진관 스님은 시집 제목을 〈바지선 기러기〉로 정하게 된 연유에 대해 "기러기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동지를 생각한다. 함께 하늘을 날고 있을 때 대원들 가운데 병든 기러기가 있거나 인간들이 쏜 총에 맞아 떨어지는 경우 기러기들은 죽거나 다친 기러기와 함께 하강해 그 기러기의 병을 치유하고 죽으면 무덤을 만들어 주고 다시 날아간다"며 "우리도 기러기의 협동심을 배워야 한다. 〈바지선 기러기〉는 협동심이 부족한 인간들을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진관 스님은 아파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깊은 공감을 갖고 있다. 스님은 도움이 필요한 역사적 현장에 항상 계셨고, 인권 · 통일과 관련한 활동을 하며 종교적으로 치유하는 역할을 많이 하셨다. 이번 시집도 그 흐름 속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며 "108편의 시에는 세월호 사건이 결국 탐욕과 이기심에 의해 생긴 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스님은 이런 사건을 기러기라는 동지와 함께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 · 자본가 뿐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평했다.

도창회 교수는 "진관 스님은 바지선에 직접 올라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물과 슬픔으로 시를 썼다. 스님의 이번 작품은 참여시라고 구분짓기 보다는 직접 사건을 목도(目睹)하고 썼기에 관조(觀照)의 서정시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그리움과 아픔과 눈물을 고스란히 시로 표현한 스님의 작품은 읽을 때 가히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감명 받았다"고 말했다.

마지막 4부 시낭송에서는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이 진관 스님의 시 '6월의 비' 를 낭송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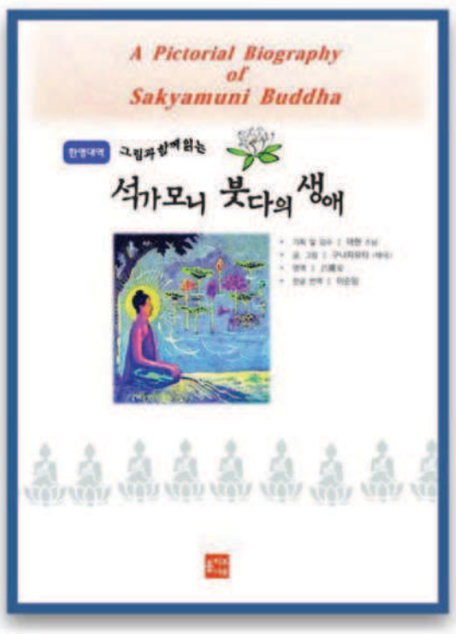
팽목항에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면 농민들은 춤추는데/ 세월호가 누워 있는 진도 앞바다는 눈물로 내리는 6월 비/ 지금 당장에 멈추어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 어딘가에서 하소연하는 바다가 되었나/ …(중략)…/ 비야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내릴 것이냐/ 내 눈앞에 어른 거리는 귀여운 아이들을/ 금시라도 문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날/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겠다 말해도/ 내 안에 없으니 슬픔만 남았구나

이날 추모 콘서트를 관람한 참가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고통을 통감하는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현 씨(45 · 여)는 "신나는 난타와 비보이 댄서들의 현란한 동작이 갑자기 슬픈 곡조의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비극적인 분위기로 전환될 때는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며 "다시는 이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협동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관 스님은 이날 행사를 마무리 하며 "오늘 1주년을 맞이한 한 달간 추모기간동안에 세월호가 침몰했던 지역을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이런 계기가 돼서 다시는 그 아픔이 일어나는 일을 막자"고 사부대중에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A Pictorial Biography of Sakyamuni Buddha

가장 행복한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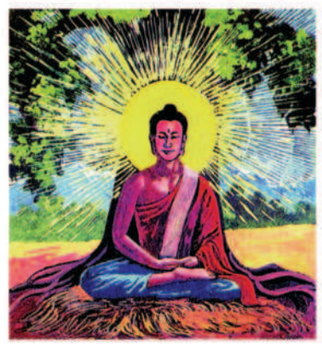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기신
물음표와 느낌표!
218컷의 그림과 함께 음미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한영대역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119 고요한 삼매 속에서, 싯다르타는 자신의 삶의 근원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마음을 살피고 주시했다.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전생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심오한 통찰을 통하여, 그는 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존재들의 미래 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하여 그는, 삶과 죽음의 끝없는 윤회가 카르마*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윤회란 한 사람의 생각과 행위의 현현(顯現)임을 깨달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현재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현재 겪는 고통보다 더 심한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In the tranquillity of samādhi, Siddhārtha searched and observed mentally, trying to find the Source of his own life. Thus he acquired the power of being aware of all his previous lives (Pūrvenivāsānusmṛti). Through further insight, he also acquired the divine vision (Divyacakṣus), the power to see all things and to know the future rebirths of all beings. He thus came to realize that the unceasing cycle of death and rebirth ef all beings is solely a manifestation of one's karma; that is, one's thoughts and deeds. Some people could be born to a better life than they presently enjoyed, encountering all sorts of happiness, because they had done good deeds. Some, on the other hand, could be born to a condition worse than their present ones and suffer very much because they had done bad deeds.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글, 그림 ‖ 구나파유타 (태국)
* 영역 ‖ 呂繩安 (Z. A. Lu)
* 한글 번역 ‖ 이순임

몇 년 전, 중국어와 영어로 된 이 책자를 보고는, 우리나라의 불자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찰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붓다의 일대기를 꼭 읽히고 싶다는 바람을 품게 되었습니다. —大玄 합장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청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55) 972-1109
010-9772-4588

올리브나무 전화 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

신행 · 포교 소식

지역포교 · 포교사단 어떻게 할 것인가

포교원, 4월 1일 국제회의장서 제61회 포교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4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역포교와 포교사단의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제61회 포교종책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포교사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방향에 대한 열린 논의를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찬회는 윤영희 포교원 차장이 '지역포교와 포교사단의 역할' 을, 전호균 서울지역단 교육위원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교구와 사찰의 역할' 을,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포교사단의 미래상과 나아갈 방향' 을 주제로 발표한다.

포교원은 "이번 연찬회는 지역포교의 중요성을 제고하며 지역포교에서 포교사단의 역할, 포교사단과 지역 교구 및 사찰 간 관계를 정립하는 자리가 될 것" 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02)2011-1911

이나은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교육원 인증 연수교육

4월 17~18일 국제선센터서 '가슴경청과 수용' 주제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4월 17~18일 국제선센터에서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 '너와 나, 관계를 소통시키는 지혜명상-가슴경청과 수용' 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불교의 '연기법' 과 심리학의 '정신분석' 을 접목한 이론과 실습 교육 △고통의 원인과 해법의 제시 △임상경험 공유 등으로 구성된다.

최훈동 정신과전문의가 강사로 나서며 불교지도자로서 스님과 일반인들이 불교와 명상에 기반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도록 돕는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불교계 최초 사찰 국악합주단 오디션

3월 18일 봉은사서…8:1의 높은 경쟁률



봉은사 국악합주단 단원 선발 오디션에 참가한 지원자가 해금을 연주하고 있다.

불교계 최초로 사찰 소속 악단인 봉은사 국악합주단 단원 선발을 위한 오디션이 봉은사 경내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진행됐다.

불교계 최초라는 관심 속에 가야금, 거문고, 대금 등 1개 파트별 각 1명씩 총 10명을 채용하는 이번 오디션에는 총 77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오디션은 박범훈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봉은사 포교국장 혜찬 스님과 국악 등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심사했다.

봉은사는 "그동안 피아노가 중심이 되어 연주되었던 찬불가를 국악기로 연주함으로서 불교음악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파라미타 활동으로 지덕체 · 내신 'UP'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학기 초 맞아 신입회원 모집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파라미타를 대표하는 활동이다. 파라미타 학생들이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재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파라미타 제공)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가 학기 초를 맞아 신입 회원을 모집한다.

파라미타는 "전국 초 · 중 · 고 및 사찰 등 500여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라미타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고 말했다.

1996년에 출범한 파라미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보이 · 걸스카우트와 같은 불교계 대표적인 청소년 단체다.

전통사상과 문화를 계승해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지향하는 파라미타는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 △청소년 자기개발 활동 △청소년 심신성장 활동 △청소년 국제교류협력활동 △연수 및 연구활동 등 5가지 중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서 5만 명의 학생들이 파라미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업들 가운데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파라미타를 대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과 협약해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파라미타는 전국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보고대회, 문화재 모니터활동, 문화재 답사활동 및 지도교사 양성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국청소년문화재지킴이 활동수기 공모' 'UCC 공모' 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대표 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또한 파라미타는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 · 신장할 수 있는 전국창작등 공모전, 백일장 대회, 사생대회, 만화공모전, 전국 청소년 합창제, 전국청소년음악놀이 축제, 청소년 문화한마당 등을 개최해 청소년들의 자기계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불교계 대표적 청소년 단체
전국 초중고 500여 곳 활동
문화재지킴이 · 국제교류 등 활발
생활기록부 등재 단체…입시 유리

불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 단체인 만큼 파라미타는 학생들의 심신성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주말 및 방학을 활용해 진행하는 전국연합캠프, 리더쉽캠프, 스키캠프, 자연생태문화기행, 전통사찰템플스테이, 식생활개선사업, 각종 연합 수련회 등이 그 예다. 특히 파라미타 회장 정여 스님이 직접 개발한 '명상 선기공' 을 학생들에게 보급해 학습능력 향상 및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있다.

파라미타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10여 년째 진행 중인 청소년 국제교류협력 활동이다. 파라미타는 일본 및 중국과 협약으로 홈스테이, 문화교류, 문화유적탐방 등 상호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스리랑카 등에 자비를 실천하는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파라미타 측은 "한 · 일 교류협력활동은 파라미타 활동에 큰 성과다. 일본의 청소년 가운데는 내국에서 한국관광을 안내하는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스님으로 출가하는 등 참가 청소년들은 한 · 일 불교와 문화를 알리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밖에 파라미타는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거리를 연구 및 개발하는 청소년 문화연구소를 운영해 지도교사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수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파라미타 활동은 최근 파라미타가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청소년 단체로 선정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유익한 청소년 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기 파라미타 활동기획주임은 "파라미타를 비롯해 기독교청소년협회(CYA),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 한국YMCA전국연맹 등 21개 단체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단체로 선정됐다" 며 "아무래도 내신과 학교활동이 반영되는 입시전형에서 파라미타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반영된다면 동점대의 다른 학생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파라미타는 매년 2회 학기초 신입회원을 접수하고 있다. 파라미타가 있는 해당 학교 및 사찰에 다니는 초 · 중 · 고등학생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활동 청소년 회원에게는 행사별로 우수회원 모범상, 자원봉사증, 체험활동증 등이 발급된다.

파라미타는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로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 파라미타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일맥상통하다" 며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상도선원, 제15기 마음수행학교 개설

4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 8주 과정…중도 · 연기 삶에서 실천



서울 상도선원(선원장 미산 · 사진)은 '제15기 마음수행학교' 를 4월 2일 개강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되는 마음수행학교는 8주 과정으로 구성돼 불교의 핵심사상인 연기 · 중도를 삶 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음수행학교는 초기경전을 근거로 연기와 중도에 대해 핵심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일상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앙승가대 교수인 미산 스님이 정리한 마음수행의 핵심원리를 일상에서 실천해 연기적 삶을 깨달아 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음수행학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강의는 연기 · 중도 수행과 불교수행의 핵심원리, 연기법과 연기맵, 일체법,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부처님의 생애, 사마타 · 위빠사나 수행, 자애미소명상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1일 명상캠프를 통해 배움을 심화시킬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비는 20만원이며, 부부 또는 대학생이 참여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도선원은 "마음수행학교는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불교수행 기본교육과정" 이라며 "연기와 중도의 삶, 그리고 마음수행의 원리를 알아 실천하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02)815-3391

이나은 기자

"도심 속 전법 교육도량 만들 것"

대구 불광사, 명산 스님 주지 부임



불광사는 3월 12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회주 묘허 스님과 청도 정광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산식을 거행했다.

1996년에 창건된 대구시 남구 대명동 불광사 새 주지로 명산 스님이 부임했다.

불광사는 3월 12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회주 묘허 스님과 청도 정광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산식을 거행했다.

명산 스님은 "불광사가 도심 속 기도하는 전법 교육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자들이 열심히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명산 스님은 대구시 황금동에서 10여년 동안 반야선원 선원장을 지내며, 관음입시기도와 지장기도 등 신도들의 수행정진을 이끈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47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5년 4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3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3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3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조계종복지재단, 최대 법인으로 성장중

세종시 종합복지지원센터 등 올 초만 6개 수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올해 벌써 6개 산하시설을 새로 수탁하며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이중에는 사업비 387억이 투입돼 올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세종시 종합복지지원센터도 포함돼 있다.

먼저 4월 1일 개관 예정인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 어린이집 지원과 보육교사 교육을 전담하게 되는 곳. 학부모들을 위한 전문 육아상담과 정보 제공 외에도 영유아 놀이 체험시설 및 장난감 · 도서도 대여한다. 한마디로 지역 내 영유아 보육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라 보면 된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76개가 운영중이지만 재단이 위탁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24교구본사 선운사가 운영지원 사찰로 나서며 일부에서는 선운사가 인근에 건립 추진 중인 불교종합타운과 함께 포교사업의 거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재단은 3월 19일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도 참여했다. 복지관 운영권이 기존 기독교계 재단에서 조계종으로 넘어오면서 재단은 인천지역 불교 복지의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지역에서는 목5동 어린이집 외에도 금천구 사랑채노인요양원, 마천복지관 등을 새로 운영할 예정이거나 운영중이다. 이중 목5동 어린이집은 서울 양천구에 들어설 목5동통합청사가 보금자리가 될 계획이다. 청사는 어린이집과 도서관, 주민센터 등 문화복지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재단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레 확대된 셈이다.

대외적 평가는?

현재 175개 산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은 올해 예정된 재위탁 심사를 통과하고 추진중인 신규 위탁건도 원활히 진행된다면 산하시설 개수가 2백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일법인으로는 전국 최대 개수라는 게 재단 측 설명.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0년 사회복지법인 현황에 따르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최대 법인으로 올라와있으며 삼동회, 한기장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국장로교복지재단,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등이 뒤를 잇고 있다. 2015년 현재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삼동회가 97개 산하시설을 두고 있고 한기장복지재단은 120여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175개 시설 보유…전국 최대
복지 노하우 인력풀 갖춰가
관리 감독 어려움은 상존

이처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전국 최대 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그간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대상별 다양한 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경쟁력이 주효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세종시 종합복지지원센터를 수탁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복지센터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관, 재활치료실, 점자도서관, 아동 상담센터, 영유아플라자, 여성취업상담센터 등을 총망라해 들어서게 되는 곳이다. 그만큼 관련시설 운영 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운영계획, 시설별 예산서, 센터 발전방안 등을 열흘 안에 준비하려면 탄탄한 데이터 기반도 구축해놓아야 한다. 때문에 이번 위탁운영 공고에 지원했던 곳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비롯, 단 2곳 뿐이었다.

세종시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센터장 내정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종합복지지원센터 수탁자 모집 신청자격에 적합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재단의 공신력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복지사업을 통한 불교계의 사회참여 역시 활발해진다는 뜻. 불교계가 전방위적으로 시설 확장에 뛰어들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역시 돈독해지는 효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시설장을 맡을 가능성도 커지면서 불교사회복지인력 확충의 견인차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4월 개관 예정인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운사가 운영지원 사찰로 나설 예정이며 인근에 건립 추진 중인 불교종합타운과 함께 포교사업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다만 관리해야할 시설이 늘어나면서 지도점검의 어려움은 늘 상존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산하 시설 한 곳에서 발생한 문제가 재단 전체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하시설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효력을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수탁시에도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금 부당수령 논란에 휩싸인 전력을 일부 언론에서 문제삼아 세종시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관련 사건은 강릉시가 복지관 수탁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부당수령 등이 있다고 판단해 재단측에 주의, 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한 사건으로 이후 검찰은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내린 후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배현진 기자

미얀마 더포아 정혜 학교 준공

정혜사–지구촌공생회 협력… 50개 교육 시설 중 최대 규모

전주 정혜사 비구니 스님들의 염원을 담은 더포아 정혜학교 준공식이 3월 9일 미얀마 양곤 외곽 셰인떼지아웃마을에서 진행됐다. 학교는 지난해 8월 기공식 후 7개월만에 완공됐다.

사원내부에 있던 학교는 사원 인근으로 이전돼 교실 12칸, 화장실 8칸 및 급수시설을 갖춘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졌다. 유치원, 초중등 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200여명의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예정이다.

준공 전 더포아사원학교 학생들은 대나무 기둥에 야자수 잎으로 이루어진 간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 왔다. 열악한 시설 탓에 비바람이 부는 날이면 수업을 할 수가 없었으며, 그나마도 사원 내부에 위치해 있어 잦은 행사나 의식으로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더포아사원학교는 미얀마로 성지순례를 갔던 정혜사 주지 지섭 스님을 비롯한 비구니 스님들이 지난해 4월 지구촌공생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1억 5천만원을 후원해 지어졌다.

더포아 정혜학교는 지구촌공생회가 8개 국가에 지원한 50개 교육시설 중 최대 규모. 정혜사 사부대중의 후원에 이어 사원 인근 3,500여평의 학교부지와 전기 공사 비용 일체를 부담한 미얀마인 더 포아 씨, 학교 진입로 건립에 적극 나선 마을 주민들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월주 스님은 준공식 기념사를 통해 "더포아 정혜학교의 준공은 수많은 후원자들과 활동가, 지역 주민들의 자비공덕이 함께 빚어낸 부처님의 가피"라며 학교건립에 함께해 준 모든 이들의 노고에 감사했다.

이어 정혜사 주지 지섭 스님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꿈을 펼쳐 지구촌의 훌륭한 리더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이루는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이백순 미얀마 한국대사를 비롯해 지역 관계자 등 약 5백여명이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염원으로 이루어진 미얀마 더포아 정혜학교가 3월 9일 준공식을 가졌다.

댄서 꿈꾸는 저소득 청소년 지원

청솔복지관–댄스학원과 협약 체결… 무료 댄스 교습

청솔종사회복지관(관장 월도)이 3월 10일 분당 무브댄스학원과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한 무료 댄스교습 프로그램 '댄싱SIX' 협약을 맺었다.

분당 무브댄스학원은 방송댄스, 몸치탈출, 다이어트댄스 등 다양한 댄스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학원.

무브댄스학원 정은주 원장은 "평소 춤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진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꿈을 접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복지관 측에 무료 댄스교습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학원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가르쳐 아이들 꿈을 지켜주겠다"고 덧붙였다.

'청솔주민문화쉼터 댄싱SIX' 는 2015년 4월부터 둘째, 넷째 주 목요일 16시부터 17시까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청솔종사회복지관이 3월 10일 분당 무브댄스학원과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한 무료 댄스교습 프로그램 협약을 맺었다.

배현진 기자

동화나라옹달샘, 은평구 사업 지원 받아

신사종합복지관 소속 어르신 동화구연 단체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완) 어르신 동화구연 봉사단체 '동화나라옹달샘' 이 서울 은평구 마을사업 지원을 받게 됐다.

복지관은 동화나라옹달샘의 '우리 마을에 꿈을 주는 행복발전소' 가 은평구 마을사업에 선정돼 3백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3월 18일 밝혔다.

동화나라옹달샘은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이루어진 자원봉사단체로 6년 동안 지역 아동들을 위해 동화구연을 해왔다. 어르신들 모두 동화구연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빅북(큰 동화책)을 만들어 어린이집 아동들이 책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번해는 창작 그림자극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빅북을 이용, 놀이터에서 동화구연을 진행함으로써 책 읽는 문화를 마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기도 하다.

앞으로 봉사단은 동화구연에만 머물지 않고 아동극, 그림자극 등 활동분야를 넓힐 생각이다.


동화나라옹달샘 소속 어르신들이 동화구연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

배현진 기자

대학생–어르신, 정 나누며 '돈독'

옥수복지관, 가정방문 '愛너지 가득한 집' 진행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센터장 상덕)는 3월 7일 대학생연합봉사동아리 코코볼(cocovol) 봉사단과 함께 어르신 가정방문 활동 '愛너지 가득한 집' 을 진행했다.

'愛너지 가득한 집' 은 지난 2010년부터 진행돼 온 1 · 3세대 방문 매칭 프로그램. 대학생 봉사단이 조를 이루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 말벗서비스 등을 통해 정서지원에 나선다.

올해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신규 봉사자와 기존 봉사자 40여명이 등록했다. 이날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받은 봉사단원들은 향후 1년간 활동에 대해 논의하며 봉사활동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서도 공유했다.

이어 봉사자들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어르신 가정에 부럼을 나누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보냈다.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장 상덕 스님은 "3년 이상 만나면서 어르신들과 봉사단원이 어느새 손자 손녀처럼 각별한 사이가 됐다"며 "이를 통해 어르신 고독사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는 3월 7일 대학생들과 함께 어르신 가정방문 활동을 진행했다.

배현진 기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附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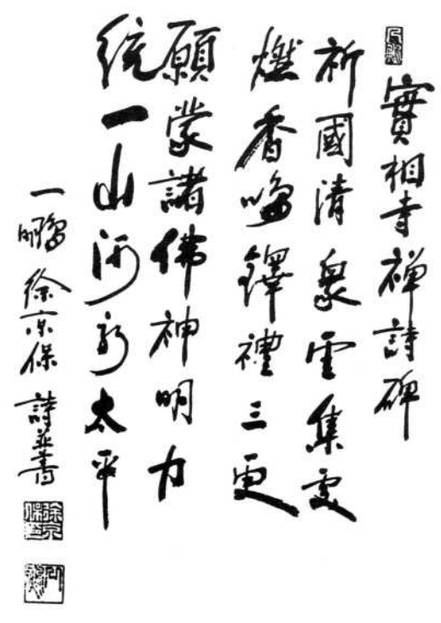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1기 범음 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고 이타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外 기타의식)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북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 2년 졸업)
- 개 강 : 2015년 양력 3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붕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제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3매
- 접수기간 : 2015년 3월 24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
※ 특 혜 : 1기생 교육비 무료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9038-0908 학과장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신영동 93-1) 일붕선원 교무처

慈悲手觀 수행은 생명 연결 신호 받는 것

〈자비수관〉

울산 정토사 불교대 입학식 법문

지운 스님(동화사 율주)

불교는 사랑을 초월한 자비의 실천을 강조한다. 자비는 연민을 내포한다. 연민은 상대에 대한 소유의 집착을 버리고,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다. 지운 스님은 3월 14일 울산 정토사 법문을 통해 자비심(慈悲心) 함양을 위한 자비수관 수행법에 대해 설했다. 자비수관은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손으로 나를 보듬고 자신의 업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법이다. 지운 스님은 이 과정을 통해 삼법인을 체득하고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리=박아름 수습기자**

자비수관의 대상은 사람이다

오늘 주제는 '몸과 마음을 깨우는 여행' 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우는 방법에는 '자비수관' (慈悲手觀)이 있습니다. 자비수관은 명상법의 하나로 일전에 제가 〈자비수관과 뇌 과학〉이라는 책을 쓴 적도 있습니다. 제가 자비수관의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유는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체득할 수 있을까하는 고심한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수행을 어렵게 느끼는 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비수관이라는 것이 네 글자 안에 그 뜻을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앞에 자비(慈悲)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재밌습니다. 불교의 수행법에 있어서 간화선의 대상은 화두입니다. 그리고 위빠사나는 신수심법이라고 해서 몸 · 감각 · 의식 · 의식현상을 관찰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자비수관은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고 자비심을 키우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몸을 대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비' 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전 세계 어느 종교든 '사랑' 을 얘기합니다. 인류가 '사랑' 을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세계 평화가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종교끼리도, 심지어 같은 종교 안의 종파끼리도 왜 총을 겨누고 싸울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창조주를 매개로 하는 종교를 보면 '사랑' 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반대로 불교에서는 왜 그런 일이 없을까요?

불교는 2천 년이 넘는 동안 전쟁을 하거나 사람을 죽인 역사가 없습니다. 그곳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종교는 많아도 연민(憐憫)을 얘기하는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비(慈悲)의 비(悲)가 바로 연민입니다. 사랑과 연민의 차이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사랑은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 즉 기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도 연민은 책임까지 따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연민을 수행의 핵심으로 삼는 것은 불교뿐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은 사랑이 아닌 연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민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지고 지구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민을 내포한 자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한한 자비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 우주가 꽉 차게 자비를 일으킬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는 것에 많은 의문을 품지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화가 나면 어떠십니까? 화가 잔뜩 날 때는 내 세상에 온통 화가 가득 차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비도 그렇게 꽉 찰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자비심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 자신의 우주를 채웠다면 그 다음 자비를 바탕으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보리심은 일체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 밖으로는 중생을 구제하고 안으로는 지혜를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자비심이라는 것은 참 무한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하지 못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비심은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愛)를 자(慈)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슬픔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애(哀, 슬프다)와 비(悲, 슬프다)가 있습니다. 애는 소유할 수 없을 때 오는 슬픔이며, 비는 상대의 고통을 보며 같이 아파하며 느끼는 슬픔입니다. 내가 고통을 치유해줄 능력이 없다면 함께 기도 해주고, 능력이 닿는다면 직접 그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내는 것이 연민입니다. 그 마음을 합치면 자비가 됩니다.

자비의 손으로 몸과 마음 치유

요즘은 자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비심을 갖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더러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분노 조절을 못해 폐망한 사람들의 소식을 간혹 접할 수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자동차로 사람을 받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울산 계모 사건처럼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요즘 TV를 보니 다중인격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도 이런 사회상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비와 관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자비의 마음을 가르치는 방법이 자비수관입니다. 자비수관에서 '수(手)' 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상상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수천안관자재보살의 손입니다. 그 상상의 손이 내 몸과 감각기관을 일깨웁니다. 상상의 손이 내 몸에 접촉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있던 잠재의식과 업(業)의 종자들이 형상으로 피어납니다.

한 보살님은 자비수관을 하는데 손가락 사이로 수많은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보살님이 남편에게 추어탕을 해주었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자신이 지은 행위가 마음에 저장되어 있다가 자비수관을 통해 나타나는 거에요. 간혹 자비수관 중에 자신도 몰랐던 트라우마가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수관 중에 업(業)이나 트라우마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형상화되어 떠오르면 그것을 환영이라 생각하지 말고 실체가 없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 과학에 따르면 인체의 모든 부위에 연결되는 신경세포가 머리에 있는데 그것이 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은 그만큼 뇌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손을 가장 많이 쓰기도 하지요. 병원에서도 뇌를 다친 후 신경세포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손 훈련입니다. 물건을 손으로 자꾸 움직이게 하는 등 손 동작을 계속 시켜서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흔히 뇌세포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뇌세포는 한 인간이 죽을 때까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비손(慈悲手)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운 스님은 … 송광사 · 동화사 강주,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기본선원 교선사(敎禪師)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단일계단 위원 및 교수사자비선 명상센터(자비수관, 자비차선, 자비경선) 수행지도 법사,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승만경연구회 자문위원, (사)한국차(茶)명상협회 이사장, 팔공총림 동화사 율주를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찻잔 속에 달이 뜨네〉 〈차(茶) 수행법〉 〈몸과 마음이 사라져가는 여행〉 〈깨달음으로 가는 길〉 등이 있다.

대승불교의 핵심… 연민의 마음 일깨운다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
자비손으로 쓰다듬으면 심신의 통증 완화
마음을 자비로 가득 채우면 보리심 증득

자비수관을 행하는 과정은 생명이 연결되는 신호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쓰다듬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한다, 고맙다' 하면서 쓰다듬어야 몸과 마음의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몸이 회복됩니다. 자비손으로 몸을 쓰다듬어 주면 그 순간 몸의 기혈이 열리고 몸 상태가 좋아질 것 입니다. 자비손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편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림자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몸에 맺힌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수관입니다.

명상으로 탐욕 줄이고 무상고무아 통찰

마지막으로 관(觀, 보다)은 객관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화가 날 때 본인이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자신이 화를 내고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곁에 두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충동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觀)은 거리를 두고 대상을 본다는 것인데, 이를 행하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번째는 나와 대상을 동일시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나와 대상을 동일시하는 현상은 일종의 정신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좋고 상대가 나쁘면 나도 나쁘다는 생각은 매우 안 좋습니다. 대상에 따라 자신의 기분이 좌우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두번째는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머릿속에서 자동화시키는 것 또한 안 좋습니다. 관(觀)의 또 다른 의미에는 '발견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진리의 발견, 즉 마음과 몸이 변하는 과정을 발견하는 것을 무상관찰이라 합니다. 이 관(觀)을 하게 되면 모든 대상은 변하며, 소유한 대상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성숙을 이루게 되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비수관 명상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를 쭉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에 힘을 완전히 빼도록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가슴에 하얀 연꽃봉오리가 올라오는 상상을 합니다. 이윽고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연꽃 속에 흰 옷을 입은 관자재보살이 들어와 앉습니다.

관자재보살은 지혜와 자비를 갖춘 보살인데, 그 보살의 모습이 나의 현재 마음을 형상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 쪽 손에는 감로수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감로수를 머리에 붓습니다. 온 몸이 흠뻑 젖도록 붓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내 온 몸을 타고 내려가며 몸속에 그대로 흡수되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투명하고 맑은 물 색깔이 변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그 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내 몸을 봅니다. 물을 부어주며 몸을 내 아이라 생각하고 어머니가 아이를 어르듯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를 속으로 되 내이며 쓰다듬습니다. 마침내 손가락과 발가락 끝으로 물이 쭉 빠져나가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뜹니다.

물은 정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로수를 붓는 의미는 우리가 쌓아온 업의 장애를 소멸하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지요. 이렇게 매일 5분만 수행해도 효과가 나타나며 수행시간을 늘인만큼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나을 것이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극복할 것이고, 더 나아가 탐욕과 성냄이 줄어들고 무상 · 고 · 무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더러는 상상으로 하는데 뇌 과학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연구학자들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구팀을 두 편으로 나누고 일주일동안 한 팀은 열심히 골을 넣는 연습을 시키고, 또 다른 팀은 앉아서 상상으로만 골을 넣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시합 결과는 상상으로만 골을 넣은 팀이 이겼습니다. 이미지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꿈과 현실은 같다고 말합니다. 대상의 인식과 인식의 결과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상상은 집중명상의 일환이니, 의심의 여지없이 수행에 몰두하면 분명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혜심 진각국사 탄신 제837주년 기념
제2회 학술대회 및 탄신 다례제

귀의 삼보하옵시고,

본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는 불향(佛鄕)인 우리 고향 화순(和順)을 세계적으로 빛내신 '선문명송' 의 저자인 혜심 진각국사님의 탄신 제837주년을 맞이하여, **제2회 학술대회 및 제 9회 다례제**를 봉행합니다.

큰스님의 고귀한 정신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간에 함께하시어 좋은 인연공덕 지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풍요로운 문화 명품 화순의 무궁한 번영과 화합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 일 시 : 2015년 4월 11일(토) 오전 10시
◆ 장 소 : 남산 화순군민회관
◆ 주 최 : (사)진각국사 선양회
◆ 후 원 : 화순군, 화순군의회, 혜원정사 납골 추모원

승려 분한신고 실시공고

한국불교미륵종 승려 분한신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본 종단 소속 전 종도스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내

㉮ 신고기간 : **2015년 3월 2일 ~ 4월 10일까지**
㉯ 신고대상 : 본 종단 소속 전 종도스님
(유발, 재가승 포함)
㉰ 신고장소 : 본 종단 총무원
우)621-020 경남 김해시 가야로 405번안길14-9(구룡사)
☎ 055)338-3678 / 팩스 055)338-3677

※ 신고 시 사찰분담금 및 승려의무금 미납자는 필히 납부 바랍니다.

2015년 3월 일

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권한대행 **묘각**

입 종 안 내

한국불교 미륵종에서
본 종단의 발전과
종지 · 종풍 선양에 함께 하실 승려와
사찰을 모시고자 합니다.

안 내

○ 입종대상 : 본 종단의 발전과 종지 · 종풍 선양에 함께 하실 승려 및 사찰 (유발, 재가승 포함)

○ 문 의 : 본 종단 총무원
우)621-020
경남 김해시 가야로405번안길 14-9(구룡사)

☎ 055)338-3678 / 팩스 055)338-3677
010-4940-8979(총무원 휴대폰)

2015년 3월 일

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권한대행 **묘각**

"불교 안에 기업 경영의 묘(妙)가 숨쉰다"

3월 14일 불교인적자원관리 연구 학술세미나 '눈길'

박경준 "노동자는 평등한 존재"
김승용 "연기적 사고, 이직 막는다"
이동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도움"
조기룡 "노사갈등시 화쟁 사상 적용"


박경준


김승용


조기룡

2600년 전 인도에서 이자수입을 유일하게 인정한 불교는 사회경제사상의 측면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불교의 모습에서 오늘날 기업경영의 모델을 찾기 위한 학문의 장이 열렸다.

동국대 '인적자원관리의 불교적 리모델링' 연구 팀은 3월 14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불교를 통한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인간 본성의 윤리적 자각 일깨워야

박경준 동국대 교수(연구팀 책임연구원)는 기조발제에서 "인간은 인적자원관리의 대상이면서 본성을 지닌 주체"라며 "부처님은 인간을 육신과 정신이 결합된 인식론적 구조인 오온으로 논의하고 이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의 행위가 인생과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출발점으로 이어진다. 즉 개인과 사회의 구성에서 평등론의 인간관이 나오게 된다"고 정의했다.

박 교수는 부처님 시대 사회적 구호사업과 경제활동을 장자계층의 예를 들었다. 박 교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을 강조한 업보사상과 보시를 강조한 복전사상을 표방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장자들의 경제활동에 높은 윤리적 자각을 일깨웠다"며 "이들은 공공의 복지 증진을 통해 부와 사회적 지위를 보다 높였다. 자신의 이익추구에 공익과 노동인권을 무시하고, 심지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자본가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먼저 인간본성에 대한 시각검토를 통해 기업형성의 철학 방향에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다"며 "평등한 인간관 하에 사회적 실천을 바탕으로한 조화와 공존의 기업윤리가 새로 자리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기적 사고가 직무만족 이끌어 내

먼저 김승용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교적 세계관의 사회과학적 적용' 에서 개개인의 연기적 성향이 조직적응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의 설문은 5개월 간 기업체와 학교, 교육시설 등에서 총 68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 교수는 "개인의 연기적 성향이 인적자원관리의 주요변인들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비연기적 성향은 부정적 상관관계를 지님을 볼 수 있었다"며 "특히 비연기적 성향은 직무만족과는 부의관계(반대)를, 이직의도와는 정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조직몰입과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제반현상을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록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이직의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연기적 관계인식과 커뮤니케이션, 연기적 행동이 직무만족을 이끌어 냄을 알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연기적 성향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기업경영에 있어 인적자원을 관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를 개발해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불교 내 공동체 정신, 기업운영에 도움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는 기업의 노사갈등에서 화쟁사상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조 교수는 "기업 등 조직구성원 모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부분적 타당성을 수용해야 하며, 이는 구성원 모두가 평등무차별인 공동체라는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동체 인식이 형성되지 못하고 갈등이 이어질 때 중도적 중재자가 양극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중재자는 쟁론 쌍방을 모두 이해해 양자들의 화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진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대우교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 인식과 태도에 대한 불교의 사회 윤리적 해석' 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대한 불교적 공동체주의 기업관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제발달 속에 고용 유연성이 강조돼 비정규직 수가 증가하고 잇으며 이로인해 집단소속감과 주체적 인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직 내의 차별없는 투자가 인간소외 문제 해소 등에 도움을 주며 이는 근로자들의 직무몰입으로 이어진다. 즉 그동안 경제적 분석에 치중해 온 인적자원관리에서 평등과 공동체주의의 인사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혜문 스님, 문화재 환수 국제 청원 추진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사진〉은 3월 5일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 중인 조선왕실 유물과 경주 금관총 유물 등의 환수를 위해 프랑스 국제박물관협의회(ICOOM)에 국제청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유물은 오구러 컬렉션으로 2월 도쿄박물관을 상대로 도쿄지법에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혜문 스님은 "도굴품이란 것이 입증된 만큼 협의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광복절 전 한국에서 유물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고려대장경 '제종교장' 학술보고회


천태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조사 모습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이지범)는 4월 4일 오후 1시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고려 '제종교장 조사 학술보고회' 를 개최한다.

'고려 대각국사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과 법화 천태 장소' 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보고회에서는 △남권희 경북대 교수의 '법화 · 천태 장소(章疏) 간행과 유통' △김성수 청주대 교수의 '〈신편제종교장총록〉의 천태법화 장소 및 의천의 시대정신에 대한 연구' △박용진 박사의 '고려시대 천태종 소의장소와 〈신편제종교장총록〉'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의 '대각국사 의천과 유식 장소에 관한 일고' △서대원 충북대 교수의 '삼체는 이체와 상위하는가?'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02)926-8144

노덕현 기자

화엄사상과 현대불교예술의 만남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조수동 · 이진오)는 3월 28일 부산대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화쟁사상과 불교예술의 만남' 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진오 부산대 교수의 '연기의 상상력과 관계미학' △김현희 부산대 교수의 '현대예술과 무애의 아름다움' △도업 스님의 '화엄경〈여래출현품〉에 담긴 수사법과 현대문학성' △윤소희 부산대 교수의 '화엄자모와 21세기 불교음악' △이찬훈 인제대 교수의 '불교예술에서 〈화엄경〉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등이 발표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불교 중에서도 화엄사상이 현대 예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담론의 향연을 열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음식 수행식 근본 되찾아야"

3월 14일 한국사찰음식 방향 제시 학술포럼 열려



불교사찰음식의 방향을 정립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동국대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소장 정승석)는 3월 14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불교 음식학 정립을 위한 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는 '미식(美食)은 왜 제한해야 하는가' 주제발표에서 "부처님 당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수행의 일환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이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미식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최근 사찰음식이 화려함에 치우쳐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사찰 음식 발전을 위해서는 값비싼 맛난 음식을 정교하게 조리해 일반인의 미각을 사로잡는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재료이지만 그 속의 특성을 살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석 동국대 교수(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장)는 "요익중생의 식생활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불교의 식문화는 절제로써 자연과 중생의 공존 및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지구상에는 아직도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올바른 식문화를 통한 남는 자원을 이들을 돕는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서열화 오해 샀던 국보 '지정 번호제' 손본다

문화재청 3월 10일,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

국보 1호는 '숭례문' , 보물 1호는 '흥인지문' 이지만 이 문화재가 다른 문화재보다 가치 등에서 월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관리번호' 이지만 지정번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자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번호 개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보 1, 2, 3호가 1, 2, 3등으로 잘못 인식되는 현상을 해결하고, 종종 터져나오는 '국보 1호 교체' 와 같은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문화재청은 3월 10일 '국가문화재 관리 체계 재조정을 위한 기본 연구' 용역사업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과 계약했다. 연구원은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까지 문화재 지정번호 전반의 체계를 살펴보고 국민 설문조사 및 해외문화재 관리운영 제도를 점검한 보고서를 11월 경 펴낼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문화재 재정번호가 생겨난 일제시대 연원과 이후 전개 과정, 국민인식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현재 문화재 지정번호를 운영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중국은 '진귀문물' '일반문물' 로만 분류하며 일본은 지정번호를 운영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관리에만 사용한다.

문화재 지정번호 논란은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 혜문 스님 등의 활동에서 드러난다. 혜문 스님은 "일제 잔재로 1934년 조선총독부가 숭례문을 보물 1호로 지정했고, 해방 후 이를 이어받아 국보가 됐기 때문에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개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인도철학회, '인도철학의 명상심리' 학술대회

인도철학회(회장 정승석)는 4월 3일 오전 10시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소장 안성두)와 공동으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40회 인도철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도철학의 명상심리' 를 주제로 열리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문진건 동국대 박사의 '트리구나(Triguna)설의 심리학적 적용문제') △박기열 동국대 박사의 '낙(樂) 따위의 심리현상에 대한 불교인식론의 논증' △김재권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유식학적 기반으로 본 명상심리 고찰'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불교대치명상의 심리치료에 대한 고찰' △이필원 동국대 연구교수의 '간화선과 심리치료' 등이 발표된다. (02)2260-3133

노덕현 기자

한국정토학회 〈정토학연구〉 투고논문 모집

한국정토학회(학회장 신규탁)는 4월 30일 까지 〈정토학연구〉 23집에 실릴 기고 논문을 모집한다. 원고분량은 A4용지 15~18매로 한글2002이상으로 작성해야 한다. 영문초록과 국문초록, 국문주제거 10개와 영문키워드 10개, 참고문헌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 분량 및 투고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토학회(www.jungtohak.or.kr) 논문투고규정을 참고하면 된다. (02)581-3137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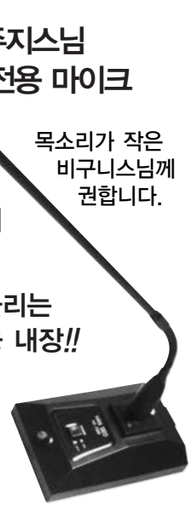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대도로 두뇌와 마음을 열어 우주만법을 담아 견성도통 천지공사로 귀신잡는 마장 살생 명부를 천부에 올려 견성도통 령과 혼 영육으로 도인되는 을미년 유불선도통 천안통 입문 대법회


心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대도는 진법과 스승없이는 세울 수 없는 하늘땅 사람에게 감춰진 천부경, 지부경, 인부경, 예단경, 금강진법사구계인 수,육,보,영,진종도, 민족업, 봉천명, 비법은 말과 글, 문자와 참선수행자 종교를 초월 역대선지식님들도 풀지 못 한 진법인 도, 고, 마성인 귀신 장난에 수행자나 스님 및 도인들도 철퇴맞아 병에걸려 수행자의 문전만 남기고 갈길을 가지 못하는 귀신장난인 령과 혼 그리고 령육이 하나로 되는 경신일 자오시에 빛으로 자신을 구하고 병겁을 넘어 비구, 비구니, 보살들도 종교를 초월하여 도통하는 정법안장 마음에 문을 여는 유불선 자오시에 천지개벽은 밖에서 오는것이 아니고 내안에 삼신과 오장육부의 대지진으로 자신을 이겨야 자성의 빛을 보는 천지인신 개벽으로 도인, 신선, 선녀가 되는 의통 능력의 초 신통력을 얻는 천하제일의 도법인 불생불멸하는 무량광자로 일류스승 되소서...?
신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원방각 해인도법의 잣대로 만유를 제도하고 마음의 두뇌를 지배하는 법으로 지구촌 가장 빠른 수행자, 스님, 성직자, 도인들의 성불 도통하는 법은 하늘, 땅, 사람, 자연, 귀신, 바다와 자연이 하나로 되는 날이 육십갑자인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입문하여 도통하는 것이다.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입 제 일 :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저녁 9시 (필기도구 준비)
■ 해 제 일 : 2015년 4월 14일 화요일 저녁 9시 무박 2일
■ 동 참 비 : 기도 및 교재비 10만원,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곽한영
■ 상담전화 : 032)502-6625 / 010-9292-3110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의 3층 용천사 (부평재래시장입구)

유불선 천지공사 불선도 십경신 도통회 총본산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종정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평화의 향기를 세상에’, 어울림마당 펼친다

전북불교계, 3월 13일 불기 2559년 봉축일정 확정



지난 2014년 열린 전북불교 봉축행사 모습. 수륙재 형식으로 마련돼 높은 호응을 받았다.

전북불교계의 부처님오신날 봉축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전북불교계는 3월 13일 전북불교회관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보문종, 용화종 등 각 종단 대표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각급신행단체 대표들은 전북불교계는 봉축위원회를 구성하고 봉축위원장에 김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선출했다.

봉축위원회 상임고문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수석부위원장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집행위원에는 금산사 총무국장 원혜 스님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이 위촉됐다. 이와 함께 세부 행사계획안에 따라 총 1억 2천만원의 예산안이 의결됐다.

행사계획안에 따르면 불기2559년 봉축 주제는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으로 4월 25일~5월 25일까지 전라북도 내 각 지역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먼저 4월 25일 전주 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녕, 전북불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봉축 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2일 전북어린이 큰 잔치, 35사단 연등제, 임실 6탄약창 연등제, 전북불교합창제, 청소년모악축제 등이 각 지역에서 열린다. 5월 23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전라북도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연등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전북봉축위원회는 전북지역의 각 도시 주요도로에 봉축 가로연등을 설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형 선전탑을 세울 계획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전 도민이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축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불교문화행사로는 전북불교회관에서 연등만들기 대회와 부처님오신 날 봉축 교리경시대회가 개최된다. 이밖에 전북 주요 도시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크고 작은 연등축제가 진행된다. 또한 각 군부대 장병들을 위한 위문법회와 교도소 방문 등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전북 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며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며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을 되새기는 경건하고 여법한 봉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의쌀 나누기 호남지역 ‘활발’

광주불교환경연대, 18일 1800kg 전달

지역사회단체활동가를 위한 자비의 쌀 나누기가 화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3월 18일 ‘8회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자비의쌀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광주지역 여성단체, 환경단체, 청소년단체, 교육단체, 인권과 복지단체, 통일단체 등의 38개 단체 40명의 활동가에게 1600kg,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당한 전통합진보당 활동가 5명에 200kg의 쌀 등 총 1800kg을 쌀을 전달했다.

지원식에는 공동대표 행법 스님, 무등스님, 나무숲대표 지장 스님을 비롯해 지원대상 단체 실무자 30여명이 참여했다. 자비의 쌀은 지원식 후 각 단체 실무자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광주 금선사, 비전사, 동원사, 세심정사, 연화사, 천룡사 등 광주전남지역 14개 사찰에서 후원한 쌀로, 각 사찰의 정월기도에 신도들이 시주한 쌀이다.



전달식에서 무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절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눔”이라며 “나눔은 지역과 사회, 그리고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므로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자비의 쌀 나누기를 진행해 8년간 총 11,800kg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

이해모 운영위원장은 “물질 위주의 이기적인 세태 속에서도 묵묵히 사람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 애쓰는 활동가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붓다로 살자’ 실천 도량 선포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사진 왼쪽)이 결사본부 총괄부장 가섭 스님과 함께 교구본사 최초로 ‘붓다로 살자’ 도량을 선포하는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가 교구본사 최초로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을 선포했다. 금산사는 3월 14일 대적광전에서 성우 스님,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본부 총괄부장 가섭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이상봉 사무국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포식을 봉행했다.

이날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포식에 동참한 대중들은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부처님 생각과 행동대로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가섭 스님은 종정 진제 스님 친필 휘호 ‘붓다로 살자’를 전달하고 금산사 사부대중이 큰 원력으로 붓다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성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붓다로 살아가려면 모든 공덕을 성취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행동을 해야한다”며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는 그 사회가 불국토고 극락세계이니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고 이 순간부터 부처로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김백호 신도회장이 낭독한 붓다로 살자 발원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붓다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온 세상이 생명평화공동체가 되는 그날까지 붓다로 살기 위해 쉼 없이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이어 △삼귀의와 오계를 생활화합시다. △일체중생을 공경합시다. △사홍서원을 실천합시다 는 3대 실천 강령을 제정하고 일상속에서 정진해 갈 것을 다짐했다.

금산사는 붓다로살자 실천도량으로써 지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지역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을 계획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심 속 수행문화 체험공간 마련돼

광주에 불교 힐링공간인 ‘MOST 행복센터’가 문을 열었다. 광주 광덕사(주지 효진)는 3월 19일 설법전에서 ‘MOST 행복센터’ 개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관법회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법일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했다.

개관식에서 광덕사 주지 효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MOST 행복센터는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삶의 본질적인 것에 의문을 갖는다”라며 “도심에서 수행을 통해 성인의 가르침에 의지하면 일상의 많은 고민들이 쉽게 풀릴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MOST 행복센터’는 자연생활건강연구원, 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 언론기관 ‘행복공감’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스트레스시대 마음건강회복’ 프로그램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 자연건강 음식문화 선도 캠페인, 불교의 새로운 사회소통 모델 연구 등이 진행된다.

효진 스님은 “3월 26일 첫 개강을 하는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은 마인드케어클래스 일반과정과 전문가과정 등이 운영된다. 또한 녹색식물을 활용한 그린인테리어, 연 · 두부 · 콩나물 · 인도커리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자연건강음식교실, 템플스테이 · 숲치유센터 등을 진행할 자연건강지도사 과정도 개설된다”라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지역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갑룡장학회’ 통해 20년간 지원, 3월 17일 29명 학생 도와

150년 전 신비의 돌탑을 자랑하는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가 지역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3월 17일 진안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진안여중 전선영 학생 등 29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탑사는 1994년 갑룡장학회를 창립해 지역청소년들에게 총 2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진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추천 받은 학생들로 학업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평소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탑사 회주 혜명 스님, 진성 스님, 진송 스님, 정혜 스님 등 탑사 대중스님들과 이항로 진안군수, 김훈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과 나누우리 봉사단 등 2백여명이 동참했다.

탑사 회주 혜명 스님은 “적은 액수지만 20년간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며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사회의 기둥으로 성장해서 기부문화, 배품 문화, 보시문화의 정착을 위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성 스님은 “앞으로 년 2회 지급하던 장학금을 내년부터는 년 1회로 축소하는 대신 장학금액을 대폭 확대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전북35향토사단 수계법회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전북 향토방위를 책임지는 35사단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3월 15일 35사단 호국 충경사 법당에서 열린 이번 수계법회에는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이 법사로 나서 3백여 장병에게 계를 전했다.

수계법사로 등단한 도영 스님은 ‘존해파평’(尊海波平)을 주제로 “바다도 존중하면 물결도 잔잔해진다”며 “2년 남짓한 군 생활동안 동료들을 서로 존중하며 군복무에 임한다면 건강하고 보람된 군 생활이 될 것”이라고 설했다.

스님은 이어 “최근 군부대의 잦은 사고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며 “수계장병들은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성실하고 건강하게 군복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회 후 전북사대 부고 댄스동아리 ‘네이팜 그레이스 예술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고, 전북대박물관과 인재양성 MOU

전라북도의 유일한 불교 종립학교인 동국대 사범대학부속 금산고(교장 조영석)가 전북대 박물관과 인문학 기반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월 12일 금산고등학교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에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학습자 양성을 위한 기회제공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금산고와 전북대 박물관은 다양한 인문강좌를 개설한다. 전북대 인문과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30시간가량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문학 프로그램에서는 학생 희망을 반영한 소논문 제작 활동도 진행된다.

협약식에는 금산고 조영석 교장, 고동호 전북대 박물관장(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을 비롯해 15명의 금산고 학생들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青雲天氣轉換秘法(청운천기전환비법)

한국풍수지리사상 처음으로 조상 묘(墓)의 수맥파를
이장(移葬)없이 생기(生氣)의 명당(明堂)으로 전환시키는
청운천기전환비법(靑雲天氣轉換秘法) 탄생(誕生)!

조상의 묘(墓)로부터 음기(陰氣)의 수맥파가 자손의 혈맥(血脈)으로 흘러 냉기(冷氣,저체온)를 유발시켜 각종 암, 우울증, 정신분열, 빙의, 성인병등 난치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현대의학에서는 가족력이나 유전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집안에도 음기(陰氣)인 유해파를 생기(生氣)로 완전히 전환(轉換)키켜야 보다 빠른 치유와 사업성취가 가능(可能)하다는 것이 소승(小僧)의 오랜 시험(試驗)으로 입증(立證)되고 있습니다.

선친이나 자매, 형제 중에서 같은 암(癌)이나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거나 사업부진, 가정불화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필히 조상의 묘(墓)나 본인이 직접 수맥파 검사를 받으셔서 (현장 방문없이 전화상담으로도 확인가능) 조상묘(7대까지)의 백골(白骨)에서 자손의 혈맥(血脈)으로 흐르는 수맥파를 직접 확인하여 유해파로 인한 음기(陰氣)의 조상의 묘(墓)를 이장(移葬)없이 현장에서 즉시 생기(生氣)의 명당(明堂)으로 모시고, 가족건강과 가정평화를 이루시고 조상(祖上)께 효도(孝道) 하십시오!

건물, 가정의 수맥파도 현장에서 100% 차단!
만약 당신이 수맥파 위에서 잠을 잔다면
당신은 이미 병(病)들었거나 병들 위험이 매우 큽니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번지 / 전화 031-595-8767
善財寺 靑雲 합장

‘약속의 탑’ 발원 지키며 나누는 삶 실천

부산 원광사 장학재단 설립

이웃을 위한 회향을 다짐하며 약속의 탑을 세운 부산 원광사(주지 지광)가 장학재단 설립을 앞두고 제 1회 전달식을 개최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해온 원광사는 재단법인 ‘원광장학회(가칭)’ 설립을 위해 기금 3억원과 가용자금 2000만원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3월 8일 ‘제1회 재단법인 원광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학생 4명에게 각 200만원, 중고등학생 12명에게는 각 50만원을 지급 총 14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지광 스님은 “2008년부터 계속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재단법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장학금 전달을 한 건 처음이다. 이 모두가 신도들과 함께 나눔의 원력을 세운 덕분이다. 현재 우리 사찰 신도들은 봉축 연등, 기도비, 천도재 등을 통해 장학회 설립을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고 있다. 재단법인은 3월 중으로 허가가 날 예정인데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한다.

원광사는 인재불사와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을 약속하며 지난해 11월 ‘혜명자비약속탑’을 제막해 주목받았다. 지광 스님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해 부처님의 혜명을 전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전해 자비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원광사 신도들의 발원으로 세워진 탑”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은 이런 원력이 바탕이 되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한다. 장학재단은 2017년 발족을 계획했으나 이보다 2년 앞당겨 2015년 설립이 이루어진게 된 것. 원광사 부신도회장 윤화자(63) 씨는 “매사에 철저히 절약하는 삶을 실천하며 나눔을 행하는 스님을 보며 존경심과 환희심이 일어난다. 스님과 함께 실천 수행을 하게 되어 행복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광 스님은 14년간 쌀나눔도 이어오고 있다. 백중기도 후 쌀과 동참금 전액을 모아 불우이웃을 위한 쌀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10kg 100포를 금정구청에 전달했지만 점점 그 양을 늘려 작년에는 10kg 2200포를 동래구 금정구 중구 영도구 등 부산 각 구청과 장애인협회, 복지기관 등에 전달했다.

박용하 원광사 신도회장은 “아무리 어려워도 장학금 지급, 쌀 전달 등은 그 양이 줄어드는 법이 없었다. 이 모두가 자비나눔을 위한 스님의 원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신도들도 그 뜻을 함께 이어가고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나누는 삶의 보람을 이야기했다.

앞으로 원광사는 장학금지원과 쌀나눔 외에도 군포교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포교를 위해 방콕, 방글라데시 등 난민국가를 위한 ‘우물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총 1억여원 인재불사
3월 8일 ‘제1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약속탑 제막하며 나눔의지 다져
15년간 불우이웃 위한 쌀 보시도


이웃을 위한 회향을 다짐하며 ‘혜명자비약속탑’을 세운 부산 원광사(주지 지광)가 장학재단 설립을 기념하며 3월 8일 제 1회 전달식을 가졌다.

하성미 기자

일념장학회, 경주 동국대에 장학금 전달

일념장학회(이사장 이영채)는 3월 13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 3층 회의실에서 2015학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10명의 학생에게 각 100만원씩 총 1천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일념장학회 이영채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장학생들은 학업에 더욱 매진하고 사회와 불교를 위해 부단히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일념장학회 장학금의 깊은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겨 부처님의 뜻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인재가 되어 달라”고 전했다.

1995년 설립된 일념장학회 장학재단은 승가대학 및 종립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지난 2009년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내에도 일념장학회를 설립하고 2010년부터 총 77명의 학생에게 총 7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일념장학회가 3월 13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2015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범어사, 제14교구신도회 창립 법회 개최

3월 19일 범어사서… 사부대중 200여 명 참석

금정총림 범어사의 본 · 말사 전체 신도를 대표하는 대의 기구 ‘제14교구 신도회’가 창립됐다.

범어사(주지 수불)는 3월 19일 ‘제14교구 신도회’ 창립법회를 범어사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한 각 수말사 주지 스님 및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경과보고, 14교구신도회 이윤희 회장(태금정 · 수한기업 대표) 임명장 수여, 포교원장 지원 스님 치사,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창립법회를 시작으로 ‘제14교구 신도회’는 본사와 말사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창립은 200회 중앙종회에서 개정한 사찰 신도회와 교구신도회를 기초로 한 신도법에 발맞춘 것이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200여개의 말사 신도회로 구성된 14교구신도회가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신도회 창립으로 사찰 신도회 교류와 조직정비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불교중흥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14교구신도회가 금정 총림 본 · 말사 운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은 물론 신심 깊은 불자들의 구심점이 되어 자랑스러운 부산의 불교문화를 국내외로 널리 홍포 해줄 것을 믿는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범어사는 3월 19일 ‘제14교구 신도회’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윤희 회장 임명장 수여 장면.

“통도사 학춤 명맥 이어 가겠습니다”

백성 스님 3월 13일 학춤 전승 강의 열어

통도사 평생교육원이 3월 13일 통도사 서운암에서 ‘백성 스님의 학춤 강의’를 마련했다.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이번 강의에서 백성 스님은 무용과 작법, 통도사 학춤의 역사, 사찰 학춤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학은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물이다. 아미타경에 따르면 반야용선(般若龍船)처럼 망자들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동물이며 부처님의 화현이다. 하지만 일제시대 불교문화 말살정책으로 학춤이 위기를 맞았고 80여년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박미나(49)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에 참석했는데 듣고 나니 학춤에 대한 견해가 완전히 달라졌다. 앞으로 학춤이 많이 알려져 소중한 불교문화이 보존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통도사 학춤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오후 2시 30분에는 스님들을 위한 강의도 마련된다.

백성 스님은 월하 스님을 은사로 1981년 출가해 통도사 학춤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속가의 증조부와 조부, 아버지 4대에 걸쳐 춤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아버지인 김덕명(90)씨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 ‘한량무’ 보유자이며 ‘양산학춤’ 기능보유자다. 4대를 이어 활동을 하고 있는 백성 스님은 통도사 사찰 학춤의 유일한 전승자다.

하성미 기자


학춤의 전승자 백성 스님이 3월 13일 불자들에게 학춤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 석불사, 대원본존전 준공법회

대한불교 원효종 경주 석불사(주지 인각)가 3월 14일 대원본존전 준공 법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율학연구원장 철우 스님, 이동호 경상북도의원, 김병도 경주시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인각 스님은 “ 대원본존전 본당을 창립하게 되어 기쁘다. 불자들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곳이 좋은 인연을 맺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053)634-8803

손문철 대구지사장


석불사 대원본존 준공 법회

4월 25일 제13회 서운암 들꽃 축제 열어

통도사 서운암(주지 동진)에 피어난 들꽃들이 대중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통도사 서운암은 4월 25일 ‘제13회 서운암 들꽃 축제’를 마련한다.

이날 서운암 일대 20만㎡는 금낭화 할미꽃 초롱꽃 등 야생 들꽃 등 100여종의 들꽃들이 만개, 절정에 이를 예정이다.

서운암 들꽃 축제는 2000년 4월 ‘서운암 들꽃회’가 생기고 야생화 1만 그루를 심은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2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축제를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운암 무위선원에서는 전국문학인꽃축제운영위원회(위원장 정영자)가 주최하는 ‘제5회 전국문학인꽃축제’도 함께 연다.

전국의 문인 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문학인 꽃축제에는 문학 강연 및 시낭송, 깃발시화전, 시화집 발간 등이 마련된다. (055)382-7094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 CEO 컨퍼런스 개강법회

한국불교의 발전 방안과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2기 부산 불교 CEO 컨퍼런스’가 개강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의 주최로 3월 19일 부산 코모도 호텔 희락정에서 개최된 이번 개강 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 및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 CEO 컨퍼런스는 3월 말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4월 9일부터 1년간 매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저녁 6시30분에 진행된다. 첫 강의는 부산 양정 불교회관에서 열린다.

하성미 기자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DIY형 모듈 온수난방 시스템 www.jjunheating.co.kr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1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2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3
D.I.Y 시공 가능 04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강남 : 010-5097-8291 울산 : 010-4597-5577 평창 : 010-6433-8612 제주도 : 010-3000-1945
익산 : 010-6610-2337 양산 : 010-6294-6126 수원 : 010-5211-7260
광주 : 010-6890-0365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제주 도랑엔 봄이 만개… 유채꽃 상춘객 유혹

봄꽃이 아름다운 사찰

① 제주 보문사

"봄 봄 봄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 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 보네요…("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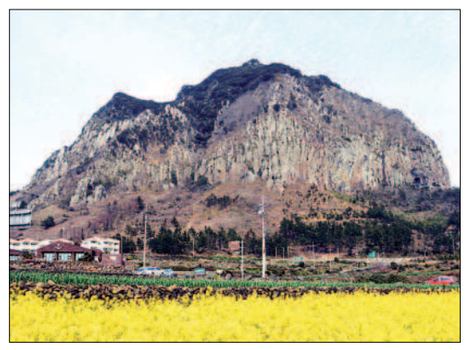
요즈음 한창 라디오에서 제일 많이 흘러 나오는 노래중 하나다. 봄이기 때문이다. 어느 유명 시인은 "봄은 봄이라고 부르는 가장 나지막한 음성으로부터 온다"고도 했다. 하지만 봄은 꽃, 그중에서 제주의 유채꽃으로부터 남쪽서 먼저 시작되는 것 같다.

제주중 샛 노란 유채꽃을 가장 먼저 그리고 즐감하며 상춘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산방산이다. 이 곳은 제주공항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면 당도할 수 있다. 멀리 우뚝솟은 산방이 보이면 답답했던 마음은 금세 사라진다. 또한 주변에 들어서면 유채꽃 향기가 살랑되는 봄바람을 타고 코끝을 간지럽힌다.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파종한 노란 유채꽃이 봄의 꽃샘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매력을 맘껏 발산한다. 벌과 나비들이 몰려들 듯 관광객들이 유채꽃밭에서 산방산을 배경으로 똑같은 사진 찍으며 아웅다웅 거리는 모습에도 입가엔 미소가 지어진다. 지자체에서 도로변에 뿌려 놓은 유채꽃이 3월 말서 4월 초에 만개할 무렵, 산방산 주변은 온통 이 아름다운 자태를 앵글에 담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룬다.

유채꽃의 향기를 따라가면 산방산이 품은 보문사가 보인다. 이 사찰은 고려시대 혜일 스님의 수행처로 유명한 산방산 중턱의 산방굴사 입구에 자리해 있다. 입구부터 속세의 찌든 때를 청정히 하라는 뜻일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며 팔정도와 육바라밀을 새긴 법륜이 반긴다. 경내에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부처님의 주옥같은 말씀들로 가득하다. 대웅전으로 향하는 계단 옆으로는 지난 2010년 입적한 前 주지 강설 스님이 1986년 태국 왕립사원 국제선불교센터서 남방불교를 2년 동안 수학하고 귀국하면서 받은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사리 33과를 봉안한 5층 금강사리대탑이 우뚝 서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가 평화로운 불국정토가 되길 발원하는 의미에서 조성한 18척 높이의 용두관음보살상도 저멀리 태평양을 바라보며 만 중생을 굽어본다. 정 5칸 출입문 꽃살무늬 창 밑으로는 〈부모은중경〉의 내용이 불화로도 그려져 있다. 이는 강설 스님이 생전에 생활불교를 제창하며 그 밑거름으로 보문사를 효행근본도량으로 내세웠던 증거다. 스님은 교도소 교화위원, 경찰서 경승 등을 역임하면서 500회 이상 불교의 효도사상에 대해 강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산방산을 찾는 관광객과 제주도민들에게 우리말로 풀이된 부모은중경 책과 그림을 나눠주며 효를 실천하도록 포교했다. 이에 지난 2007년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서귀포시가 주최한 어버이날 행사에서 '경로효친 기관으로 도지사 표창' 을 받기도 했다. 지금도 보문사는 이 가르침을 면면히 지키고 있다.



해마다 3월이면 보문사 앞에 유채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봄의 전령사가 된다. 노란 유채꽃밭은 언제봐도 즐겁다.



우뚝 솟은 산방산이 신비롭게 느껴진다.



보문사의 대웅보전 모습

前 주지 강설 스님이 효 근본도량으로 일궈
5층 금강사리탑, 부처님 진신사리 33과 봉안
15m 황금 약사여래불… 2004년 점안의식

법당에 들어서서 오체투지로 불보살님께 귀의하니 석가모니불과 좌우협시보살인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지그시 미소 짓는다. 그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부처님 얼굴을 감싸고 있지 않는가. 빛의 각도에 따라 부처님의 얼굴이 수천가지라. 내 마음을 닮은 듯하다.

대웅전 밖으로 나와 툇마루에 앉으면 풍광이 장관이다. 그 앞으로 내려다보이는 용머리해안을 따라 형제섬, 가파도, 마라도가 가로 지으며 태평양을 내달리는 듯 하다. 잠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눈의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미를 찾아본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내 눈의 즐거움도 내 마음을 웃게 만드니 이곳이 곧 극락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솟구친다.

종각을 지나 황금옷을 입은 약사여래불로 향한다. 보문사는 현재 오백나한 조성불사가 한창이다. 한라산은 예로부터 나한산이라 불렀다. 영실의 기암괴석을 오백장군이라 하지만 불자들은 오백나한이라 믿었다. 그 영험함이 산방산의 맥을 타고 이곳에 기운을 내뿜은 기세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라산 백록담의 넓이와 산방산의 넓이와 일치하는 것도 우연치고는 예사롭지 않다.

발걸음을 옮겨, 높이 15m의 장엄한 약사여래불이 중생을 맞는다. 보문사는 지난 1999년 새천년을 앞둬 약사여래기도를 봉행하며 약사여래대불 봉안 원력을 세웠는데 지난 2004년 점안의식을 봉행했다. 내부에는 1000개의 복장 원불과 양측에는 마니차가 조성돼 있다.

약사여래부처님의 발원은 불효의 허물을 마음깊이 느끼면서 효행근본 도량을 일구고 이제 중생의 심신에 얽혀있는 질병의 고통으로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강설 스님의 원력이 깃들어 있다. 불행히도 강설스님은 열반에 들고, 현재 스님의 포교 원력은 신도들이 잇고 있다.

몇 개월 전부터 보문사에는 특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다. 강설 스님과 인연이 있던 태국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고 한다. 우연히 보문사서 목격한 태국 관광객들은 불자의 나라답게 자신의 소원을 쓰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는 정성껏 절을 하고 태국어로 경전을 읊었다. 관광지로 받아들이는 일반 한국인 관광객과는 달리 경내를 조용하게 참배하고 스님에게 깍듯이 예를 갖추는 모습들은 한국불자들도 발심의 기회를 열어준다.

현재 보문사는 포교의 원력을 세웠던 강설 스님의 향훈을 이어 가고자 다시금 기도도량으로 변신중이다. 산방산의 영험한 기운 아래 팔공산 갓바위처럼 중생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약사여래의 향기를 시방세계에 흩뿌리고자 말이다.

서귀포 보문사=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

주변 가볼만한 곳



침식의 절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용머리 해안.

▲용머리해안

산방산과 바다, 침식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용머리 해안은 약 80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파도에 의해 침식된 절벽이다. 용이 머리를 들고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용머리 해안' 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바다와 높은 절벽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바닷가 옆으로는 길이나 있어 절벽과 바다 사이에서 산책을 할 수 있다. 용머리 해안을 관광하는데는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 중간중간에 직접 잡아온 해산물을 파는 해녀들을 볼 수도 있고 낚시하는 사람도 구경할 수 있다.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산방산을 볼 수 있다. 산방산이 보이는 지점에서 사진을 찍으면 멋진 포토포인트가 될 수 있다. 주소를 치고 간다면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218-10번지다. 입장료도 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입장이 제한되니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산방굴사

산방산 보문사로 향하는 계단을 따라 오르다보면 해발 150m 지경에 자연동굴 입구를 만난다. 여기가 산방굴사다. 길이 10m, 너비와 높이가 약 5m에 달하는 해식동굴이다. 바로 이 자연석굴에 산방굴사를 창건한 것이 고려시대 시승(詩僧) 혜일스님에 의한 것이라고 구전되고 있다. 혜일 스님은 제주도 전역을 두루 다니며 수행을 하였는데, 유독 산방법사로 불릴 만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산방산 산방굴사와 인연이 깊어 보인다.

산방굴사에는 많은 불자들이 찾아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며 저마다의 소망을 축원한다. 지금도 굴 천정에서 산방덕이의 눈물이 쉼 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부터 이 물을 마시면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산방굴사를 찾은 관광객들은 가족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며 이 물을 찾고 있다. 또한 산방굴사 입구와 굴사에 이르기 전 계단 옆에는 산방덕이가 세상에 나타난 이야기 및 산방덕이와 고승의 사랑이야기를 바탕으로 '사랑기원의 장소' 와 '생명기원의 장소' 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탄산온천욕 '산방산온천'

국내서도 드문 탄산온천이다. 600m 지하서 뽑아 올린다. 천연기념물인 산방산 코앞에 자리잡았다. 2005년 문을 연 제주도에 하나뿐인 온천이다. 피부미용 · 혈압조절 등에 좋다는 유리탄산 중탄산이온 나트륨천으로, 용출온도는 섭씨 28~29도라고 한다. 이곳 온천수는 옛날부터 '구명수' 란 이름으로 불려왔다. 이 물을 마시고 병을 고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과 물이 솟을 때 비둘기 울음소리가 났기 때문이라는 설이 전해온다. 이 온천의 실내외 시설은 웬만한 유명 온천휴양지에 뒤지지 않는다. 대형 실내 탄산온천탕은 천장과 벽이 유리로 돼 있어 밝고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삼국통일 정신 서려있는 삼층탑

탑의 진화

㉜ 삼층석탑

사찰이나 절터에서 불탑을 마주할 때, 서로 다른 곳에서 본 탑이라 할지라도 친근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유사한 양식의 불탑을 여러 곳에서 자주 봤다는 뜻일 텐데, 그 비밀은 바로 탑의 층수에 있다. 우리나라 불탑은 3층 석탑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3층 석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7세기 후반부터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오늘날까지 그 유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

황룡사9층탑의 경우에는 탑을 9층으로 조성한 연유가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3층탑의 경우 오늘날 학계에서도 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불탑이 3층으로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3이라는 법수(法數)에 초점을 맞추어, 불교교리적인 관련성과 국가의 시대적인 상황 등을 결합해 여러 가지 추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3이라는 수가 갖는 불교적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불교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나타내는 용어로, 욕계(欲界) · 색계(色界) · 무색계(無色界)를 통칭하는 낱말인 3계(三界)가 있다. 또한 불교의 3가지 요소를 불 · 법 · 승 3보(三寶)라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교 신자는 3귀의, 즉 3보에 귀의하는데 이로부터 불자로서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에서 일체의 법문(法門)은 모두 계학(戒學) · 정학(定學) · 혜학(慧學)의 3학(三學)으로 귀결된다. 그런가 하면 56억 7천만 년 후에 용화수 아래서 성불하는 미륵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는 3번의 법회를 열어 경을 설하는데 이를 용화3회(龍華三會)라 한다. 이러한 미륵신앙은 7세기 초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했다.

이처럼 석탑이 3층으로 조성된 데에는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불교의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주장과 더불어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삼귀의를 다짐하는 형상으로서 3층 석탑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다. 3학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물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며 미륵보살의 용화3회 설법을 의미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3이라는 숫자는 교리적인 의미와 더불어,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신라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해 특별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원효 스님의 불교적 삶을 조명했을 때 숫자3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3층 석탑의 조성과 연관되기도 한다. 원효 스님은 아미타신앙과 정토사상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원융무애의 화엄사상을 통해 통일국가의 이념을 세우고자 했다. 이처럼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신라인들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했던 원효 스님의 회삼귀일(會三歸一) 사상은, 신라 전체의 불교문화에도 분명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원효 스님이 말년에 수행하던 곳으로 잘 알려진 고선사는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창건됐다. 이러한 고선사에 3층탑이 조성된 뒤 불자들이 귀의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1977년 경주시의 덕동댐 건설 도중 고선사지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하자〈사진1〉 3층 석탑은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져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았다.

1962년 국보 제38호로 지정된 탑이 물에 잠기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이지만, 옛터와 함께 탑이 자아내던 고즈넉한 분위기는 함께 가져올 수 없었던 모양이다. 때문에 고선사지가 아닌 박물관에서 마주하는 탑〈사진2〉의 모습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 탑은 원효스님의 입적 연도를 고려했을 때 7세기 후반에 세워졌을 거라 추정된다. 총 높이는 10.2m이고 이중기단과 3층의 탑신부로 이루어졌다. 옥개석과 옥신석은 감은사지석탑과 마찬가지로 탑의 부분을 여러 개의 석재로 짜 맞추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3층의 탑신만은 하나의 부재를 사용했다. 이는 몸돌에 사리장치를 넣어 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석탑의 해체 및 복원 과정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다. 또 감은사지석탑의 초층 탑신 각 면에는 아무런 조각이 없는 반면, 고선사지석탑 탑신의 각 면에는 문비(門扉)〈사진3〉모양이 새겨져 있다. 이러

3층석탑, 국내에서 가장 많이 조성
삼계 · 삼보 · 삼귀의 · 삼학 · 용화삼회 등
3층석탑 의미 놓고 의견 '분분'
통일신라 이후 전국 확산 고려하면
삼국통일 사상 근거 회삼귀일 영향일 수도

감은사지석탑에서 완성된 3층탑 양식
불국사 석가탑에서 절정 맞이해

한 차이점을 제외하고, 이 탑은 감은사지석탑의 전형적 양식을 그대로 본받아 통일 초기의 신라 석탑을 대표하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에 위치한 감은사는 황룡사, 사천왕사와 함께 신라의 대표적인 호국사찰로 잘 알려져 있다. 경주시내에서 문무왕릉을 향해 가다 보면, 그 길목에 반드시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변보다 높은 절터 위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웅장하게 서 있는 두 기의 3층 석탑이다. 높이 13.4m의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이것은 바로 신라 제31대 왕, 신문왕이 686년에 조성한 감은사지의 쌍탑이다.

감은사(感恩寺)는 명칭 그대로, 신문왕이 자신의 아버지 문무왕께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지어졌다. 실제 감은사지는 대왕암이라 불리는 문무왕릉에서 약 1km정도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 이처럼 가까운 거리만큼이나 감은사는 문무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이었다. 비록 지금은 그 터와, 오랜 시간 동안 제 자리를 지켜 온 쌍탑만이 남았지만 건립 당시 이곳에 뿌리 내렸던 문무왕의 호국정신은 아직 그대로인 듯하다.


국보 제38호 고선사 3층석탑. 현재는 경주박물관에 자리하고 있다. 이중기단과 3층의 탑신부는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총 높이는 10.2m다.

〈사진1〉

원효 스님의 수행처였던 고선사는 1977년 경주시 덕동댐 건설로 인해 그 터가 수몰됐다.

〈사진3〉

고선사지3층석탑 탑신에 있는 문비.

〈사진5〉

1996년 감은사지 동탑 해체 수리시 출토된 사리기(舍利器).

〈사진4〉

국보 제112호 감은사지3층석탑. 총 높이 13.4m로 장중하고 기백이 넘친다. 본래 탑에서 볼 수 있는 상륜부를 과감히 변형해 5m에 이르는 찰주를 하늘 높이 세웠다.

삼국통일이라는 신라의 대업을 완성했던 문무왕은 죽어서도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생전에 문무왕은 부처님의 힘으로 왜구의 침략을 막고자 진국사(鎭國寺)라는 호국사찰을 지으려 했지만, 절의 완공을 미처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에 그의 아들 신문왕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받아 문무왕릉 가까이 감은사를 지었다. 〈삼국유사〉 권2 기이2 만파식적(萬波息笛)조의 사중기(寺中記)에서 감은사의 창건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문무왕께서 왜병을 진압하고자 이 절을 짓기 시작했으나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 아드님이신 신문왕께서 즉위하시고 개요 2년에 마치셨다."

이처럼 감은사는 부처님의 힘을 통해 왜병을 격퇴하고자 했던 문무왕의 애국심으로부터 지어졌다. 신문왕은 그 마음을 이어 받아 절을 완성하였는데, 특히 감은사지 내에 세워진 두 기의 3층 석탑〈사진4〉은 그 굳은 결의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한편 통일 이전까지 신라인들이 세운 탑은 화려함과 유려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새로운 국가를 세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다움보단 힘찬 건국이념을 담을 수 있는 웅장한 탑이었다. 이를 위해 신라인들은 기존의 석탑과는 다른 방식으로 탑을 조성하였는데, 그 중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단에서 찾을 수 있다.

금당 앞 동쪽과 서쪽에 각각 1기씩 세워진 감은사지 쌍 탑은, 기존의 석탑과는 다르게 기단이 2층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이중기단은 이 탑이 목탑의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단을 2층으로 세움으로써 탑은 보다 높은 상승감과 안정감을 얻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본래 탑에서 볼 수 있는 상륜부를 과감히 변형해, 전체 높이가 5m에 이르는 찰주를 하늘 높이 세웠다. 또 찰주를 중심축으로 하여 보륜과 앙화 등을 석조로 조성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는 동서 양탑 모두 찰주만이 남아있다. 또한 감은사지석탑은 하나의 석재를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돌을 짜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돌과 돌 사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쇠로 만든 나비장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두 기의 탑은 전체적인 모습과 결구 방식, 석재의 수 등이 모두 같지만 크기에 있어 조금 다른 점을 보인다. 서탑에 비하여 동탑에 사용된 부재가 조금씩 크기 때문에 동탑이 훨씬 더 웅장하고 엄숙한 느낌을 준다.

1959년 서쪽 탑 해체 수리 시엔 3층 탑신에서 사리공이 발견되었는데, 금동사리각외함과 그 안에 있던 사리기(舍利器), 사리병(舍利甁) 등이 출토되었다. 1996년 동탑 해체 수리 시에도 이와 비슷한 사리장치〈사진5〉가 발견되었다. 탑에서 출토된 다양한 공예품들은, 당시 감은사지3층석탑이 신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서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을 증명해준다. 이렇게 감은사지석탑을 통해 완성된 신라의 3층 석탑 양식은 이후 경주 불국사 3층석탑에서 그 절정을 맞이한다. 또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세워지는 모든 3층 석탑의 모체가 되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 본 고선사지3층석탑과 감은사지3층석탑에는 모두 통일국가에 대한 염원과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하는 호국 정신 등 부처님과 호국에 대한 신라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신라시대 초기에 시작된 3층 석탑의 조성은 신라인들의 삼국통일을 의미하는 회삼귀일의 사상과 연관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밝혀본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眼耳鼻舌身意 공함 속에 깨달음의 길이…

〈안이비설신의〉

원통문에 든 25성자 '수능엄경'에서 만나다

〈2〉 육근원통(六根圓通)

두 번째 시간은 육근원통에 관한 내용이다. 불교에서는 흔히 원통법문이라 칭하는데 이는 육근을 관찰해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말한다. 안(눈), 이(귀), 비(코), 설(혀), 신(몸), 의(의)의 육근의 경계를 살피고 색성향미촉법과의 작용에서 무상과 무아를 체득해 집착을 여의는 것이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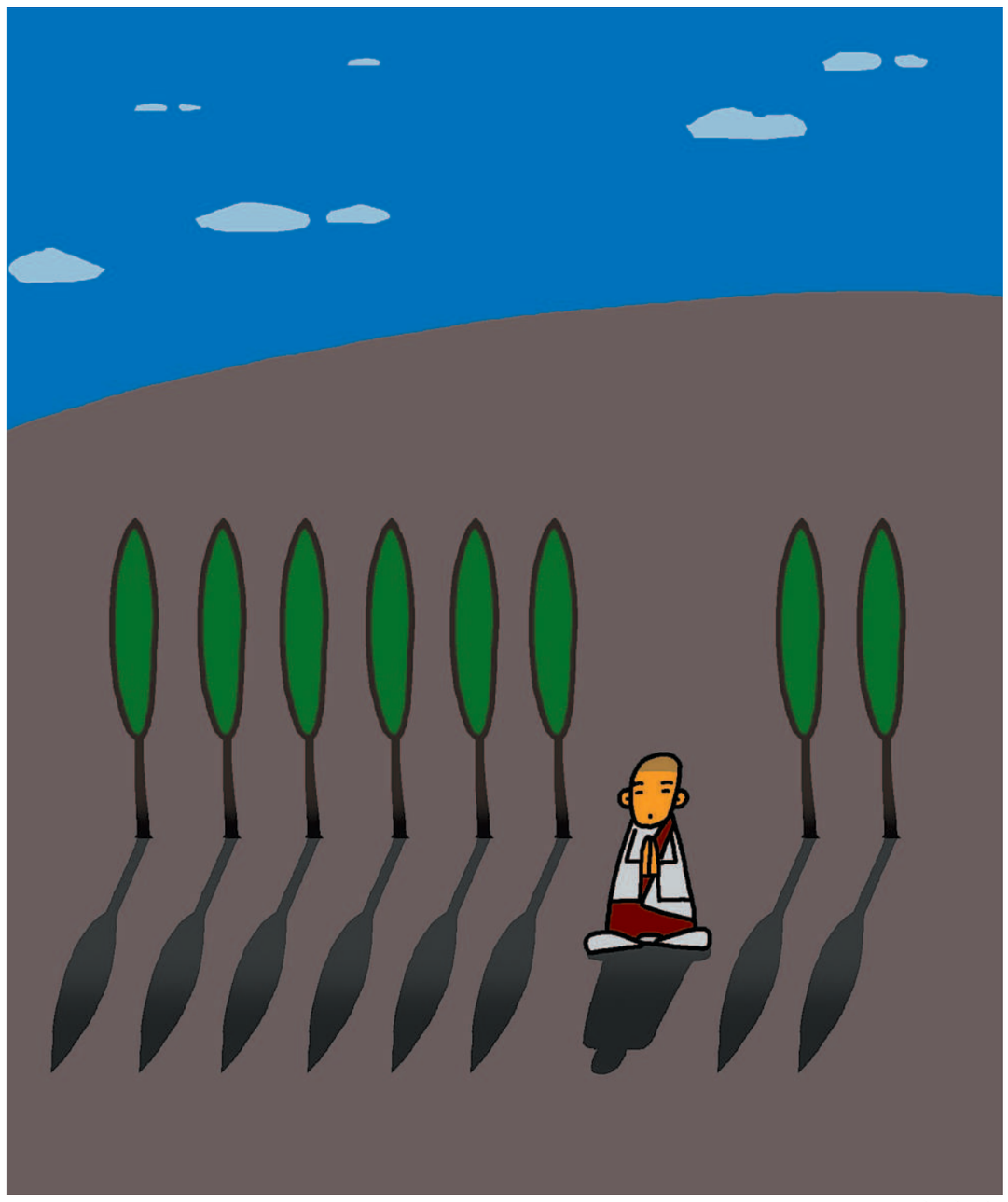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나율타 '눈을 쓰지 않고 근원 보는 법'
주리반특가 '호흡 관찰 공 이치 증득'
교범발제 '맛보는 작용 지견으로 돌려'
필릉가바차 '아는 작용에 청정함 더해'
수보리 '온갖 모양 無로 돌아가는 법'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은 따로이 전해

아나율타:

아나율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阿那律陀 ǽ 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제가 처음 출가하여 언제나 수면을 즐기니, 여래께서 저에게 '축생의 종류가 되리라' 고 꾸짖었사옵니다. 저는 부처님의 나무람을 듣고 자책하여 슬피 울면서 칠일 동안 잠자리에 들지 아니하다가 두 눈의 기능을 잃었사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저에게 금강삼매를 즐겁게 비춰 보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며, 저는 이 삼매로 눈을 쓰지 않고도 시방을 보기를 마치 손바닥의 열매를 보듯이 정교한 실물이 환해지니, 여래께서는 저에게 아라한을 성취했다고 인가하셨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보는 작용을 돌이켜 근원을 따르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初出家 常樂睡眠 如來訶我 爲畜生類 我聞佛訶 啼泣自責

七日不眠 失其雙目 世尊示我 樂見照明 金剛三昧 我不因眼

觀見十方 精ßk洞然 如觀掌果 如來印我 成阿羅漢 佛問圓通

如我所證 旋見循元 斯爲第一

주리반특가:

주리반특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周利槃特迦 ǽ 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외우는 재주도 없고 많이 듣고 아는 능력도 없었사옵니다. 최초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하여 여래의 한 귀절의 가타를 기억하려 하였사오나, 백일이 다 되어도 앞을 알면 뒤를 잊고 뒤를 알면 앞을 잊었사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저의 어리석음을 딱하게 여기셔서, 저에게 '편안히 머물러서 들숨 날숨을 고르게 다스려라' 고 가르쳐주셨사옵니다. 저는 그때 호흡을 관찰하여 생기고 머물고 달라지고 사라지는 온갖 움직임의 찰나를 세밀하게 궁구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서 크게 걸림이 없어졌사옵니다.

마침내 번뇌를 다하여 아라한을 이루어 부처님의 좌석 아래에 머무니, 부처님께서는 무학도를 성취했다고 인가하였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숨을 돌이켜 공의 도리를 따르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闕誦持 無多聞性 最初ßd佛 聞法出家 憶持如來(一句)伽陀

於一百日 得前遺[失]後 得後遺[失]前 佛愍我愚 敎我安居

調出入息 我時觀息 微細窮盡 生住異滅 諸行刹那 其心豁然

得大無礙 乃至漏盡 成阿羅漢 住佛座下 印成無學 佛問圓通

如我所證 返[反]息循空 斯爲第一

교범발제(敎梵鉢提):

교범발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驕梵鉢提 ǽ 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말버릇이 나빠서 지난 겁에 사문들을 가볍게 여겨 조롱하다가,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소의 되새김질병에 걸렸는데, 여래께서 저에게 일미청정심지법문(一味淸淨心地法門)을 가르쳐주시니, 저는 잡념을 없애고 삼마지에 들어가서 맛을 아는 작용은 몸도 아니고 물체도 아님을 관찰하여, 생각을 잘 관찰하여 세간의 온갖 번뇌를 뛰어넘었사옵니다.

따라서 안으로 몸과 마음을 해탈하고 밖으로 세계를 놓아버려서, 새가 새장을 나오듯 멀리 삼계를 벗어나, 견혹(見惑)을 여의고 사혹(思惑)을 소멸하여 법안이 청정하여 아라한을 성취하니, 여래께서는 친히 무학도에 올랐다고 인가하셨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맛보는 작용을 돌이켜 바른 지견으로 돌리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有口業 於過去劫 輕弄沙門 世世生生 有牛齝病 如來示我

一味淸淨 心地法門 我得滅心 入三摩地 觀味之知 非體非物

應念得超 世間諸漏 內脫身心 外遺世界 遠離三有 如鳥出籠

離垢銷塵 法眼淸淨 成阿羅漢 如來親印 登無學道 佛問圓通

如我所證 還味旋知 斯爲第一

필릉가바차:

필릉가바차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畢陵伽婆蹉 ǽ 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제가 처음 발심하여 부처님을 따라 도에 들어갔을 때 여래로부터 '세상에는 즐거운 일들이 없다' 는 말씀을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성안에 들어가 걸식하면서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길에서 독가시에 찔려 발을 다치니 온몸이 몹시 아팠사옵니다. 저는 '아는 작용(知)이 있어서 이 심한 아픔을 지각(知)하는 것이다. 비록 허망한 앎이 아픔을 지각할지라도, 본각의 청정한 마음에는 아픔 자체도 아픔을 지각하는 작용도 없으리라' 고 생각하였사오며, 또 '이 한 몸에 어찌 두 깨달음이 있겠는가?' 라고 사유하였사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거두어 다스린 지 오래지 않아 몸과 마음이 홀연히 공하여 삼칠일만에 온갖 번뇌를 다 비우고 아라한을 성취하자, 여래께서 친히 인가를 내리셔서 무학의 지위를 주셨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순수한 깨달음으로 몸을 잊어버리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初發心 從佛入道 數聞如來 說諸世間 不可樂事 乞食城中

心思法門 不覺路中 毒刺傷足 擧身疼痛 我念有知 知此深痛

雖覺覺痛 覺淸淨心 無痛痛覺 我又思惟 如是一身 寧有覺覺

攝念未久 身心忽空 三七日中 諸漏虛盡 成阿羅漢 得親印記

發明無學 佛問圓通 如我所證 純覺遺身 斯爲第一

수보리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須菩提 ǽ 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오랜 옛 겁부터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를 얻고, 몸을 받아 태어난 생이 갠지스 강의 모래처럼 많아도 스스로 모두 기억하옵니다. 처음 모태에 있을 때부터 곧바로 공적한 경계를 알았고, 이와 같이 시방세계까지도 공하여, 중생들에게 공한 성품을 증득하게 하였사옵니다. 그러다가 여래께서 밝히신 앎의 성품이 본래 진실한 공임을 듣고, 공한 성품을 원만하게 밝혀서 아라한을 성취하고, 단번에 여래의 보배로운 밝은 공(空)의 바다에 들어가 부처님의 지견과 같게 되었사옵니다. 그러자 여래께서는 무학을 성취하였다고 인가하시면서, 해탈의 성품이 공함은 제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셨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온갖 모양이 빈 자리[非]에 들어가서 다하지 않은 것이 없는, 법을 돌이켜 무(無)로 돌아가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曠劫來 心得無礙 自憶受生 如恒河沙 初在母胎 ǽ 知空寂

如是乃至 十方成空 亦令衆生 證得空性 蒙如來發[蒙佛發明]

性覺ßk空 空性圓明 得阿羅漢 頓入如來 寶明空海 同佛知見

印成無學 解脫性空 我爲無上 佛問圓通 如我所證 諸相入非

非所非盡 旋法歸無 斯爲第一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 글은 최근 이수덕 박사가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하다〉로 편역한 '수능엄경' 에서 발췌했다.



붓다가 보여준 경지 "갈애를 떠나라"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1. 인간의 이상적상태 ㊦

평정(平靜)하며 자유로운 사람

잘 검토(檢討)해 보면 열반과 같은 이상적 상태를 애써 구하는 것은 다만 불교인만은 아닐 것이다.

만일 이 소망이 불교인만의 것이라면, 우리들은 오히려 의심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소망을 음미(吟味)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소망은 결코 불교인만의 소망은 아니며, 넓게 인류의 소망임을 알 수 있다. 언어 표현으로 보아서 가장 비슷한 것은 스토아의 철인(哲人)들이 구극(究極)의 이상으로 생각한 아파테이아(apatheia)의 경지(境地)이다. 그들도 또한 인간의 불행은 격정(激情, 파토스 pathos)에 의해서 이성(理性)이 어지러워지며, 영혼이 구속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격정을 떠나서 자유스러운 심경(心境)에 있으면서 선(善)하며 행복한 경지(境地)를 생각하는 경지를 아파테이아(격정에서 자유로운 상태)라고 불렀다.

회랍 사람들이 아타락시아(ataraxia)라고 부른 이상의 상태도 이것에 가깝다. 아타락시아라는 것은 이미 흔들어도 어지럽힐 것이 없는 내적평정(內的平靜)을 뜻하는 것이며, 열반의 이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중국의 옛 시인은 '무사(無事), 일월(日月)은 길도다, 불기(不羈) 천지(天地)는 넓도다' 라고 노래하였다.

이것이 지적하는 바도 또한 불교인이 생각하는 이상의 상태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근세(近世)에 있어서도 칸트(Kant)가 자유를 설명하면서, 실천이성(實踐理性)(의지)이 자기의 법칙에 따름으로써 '자율(自律)의 자유' 가 있으며, 자연적인 욕망에 움직여짐으로써 '기수(氣隨)의 타율(他律)' 이 있다고 말한 것에도 그 사고방식의 바탕에는 역시 같은 뜻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붓다가 이와 같은 비유와 표현으로써 이 이상의 경지를 그려냈을 때 그는 결코 '회신멸지(灰身滅智)' 의 상태를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 '불이 꺼지듯이' 멸(滅)하는 것은 갈애(渴愛)이며 탐욕(貪慾)이며, 번뇌이다. 인간 그 자체는 여기에서 '멸하며 떠나서' 어느 곳에 '가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여기 지상(地上)에 있다. 그러나 그는 원래 그대로의 그가 아니다. 전에 불안하며 괴로운 인생을 등에 걸머지며 살고 있었던 그는 이제는 갈애 번뇌가 멸함으로써 평안하며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갈애의 한 법(法), 모든 것을 예속(隷屬)하게 한다."

"갈애를 떠나서 모든 속박(束縛)을 끊는다."

"사문(沙門)은 욕망을 변지하며 언제나 자유인이다."

이러한 옛 경전의 말씀들은 명쾌 솔직하게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번쇄소극(煩?消極)적 후세(後世)의 열반론(涅槃論)을 버리고 붓다가 그려서 보여준 이 이상적인 상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自由)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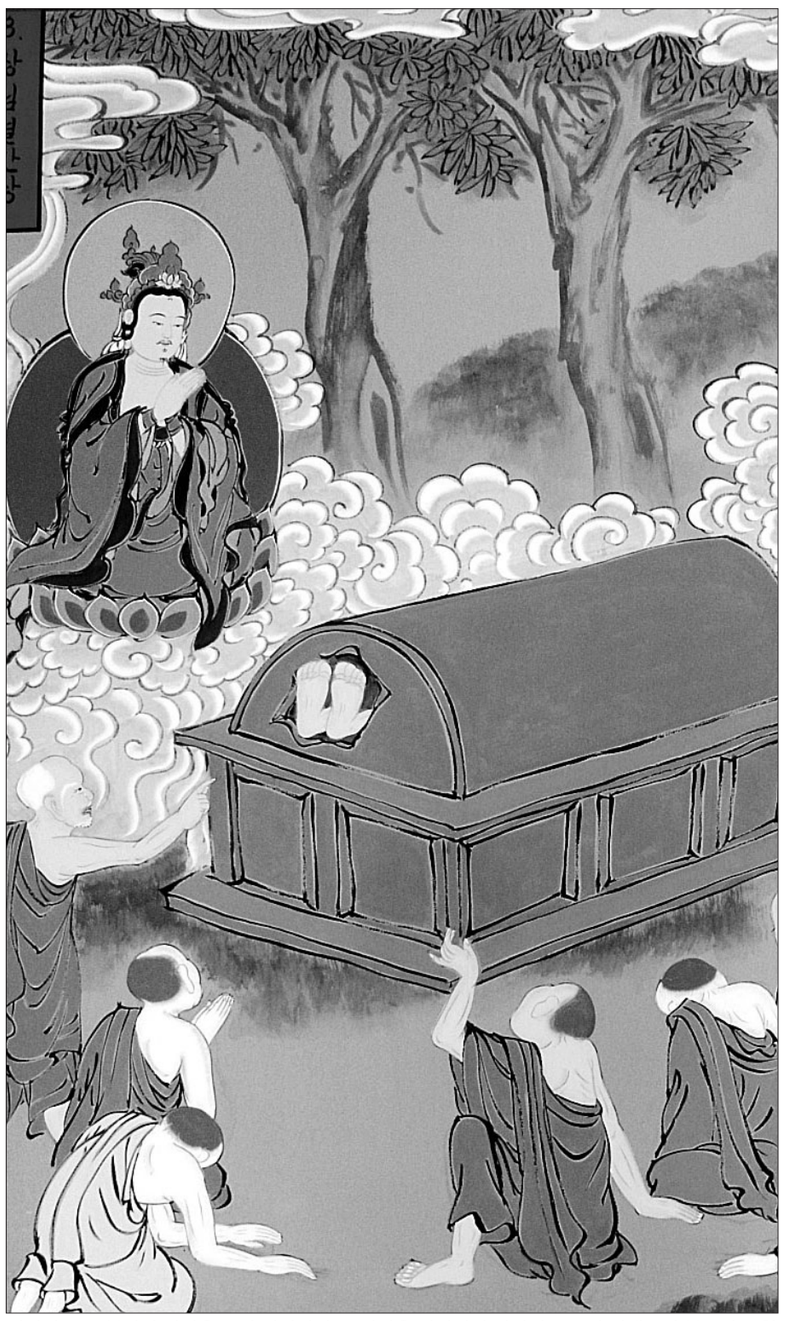
여기에서 우리들은 '열반' 이라는 표현과 비유로써 지적된 불교인의 궁극 이상의 경지가 바로 자유 그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원하며 구하고 있는 것도 또한 자유라는 말로써 표현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자유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것도 또한 명백히 해두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을 명백히 하지 않는다면 불교를 오늘날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떤 옛 경전의 하나는 부처님이 "무엇이건 다른 것에 예속(隷屬)하고 있는 것은 모두 고(苦)이다. 모든 주권(主權)은 락(樂)이다" 라고 설명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것이 설명하는 바는 틀림없이 오늘날의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에 통하는 것이 있다. 모든 자유를 향한 희구(希求)는 불안을 고(苦)로 하며, 속박(束縛)을 고로 하며, 예속(隷屬)을 고로 하는 인간의 본성(本性)에서 생겨난다.

사람은 모두 이러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이 되어 자주(自主), 자유(自由), 자재(自在)하기를 원한다.

붓다도 또한 이러한 소망을 이난 최고의 소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다. 생사(生死)의 불안 속에 있는 것에서부터 해탈하려고 생각하였다. 애증(愛憎)의 속박 속에 있는 것도 번뇌에 예속되어 있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거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품는 자유의 소원도 같은 요소를 안고 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공포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소원한다. 또 빈곤과 악법(惡法)이 우리들을 속박하고 있음을 싫어한다. 악한 권력이나 정치가 우리들을 예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개한다. 그리고 그 속박과 예속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불안, 속박, 예속에서 자유롭게 되려는 소원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다.



팔상성도 중 부처님 열반을 그린 쌍림열반도. 열반은 탐진치가 괴멸된 궁극의 상태로서 불교의 종착역 이다.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을 불안이라고 하며 무엇을 속박이라고 하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이며 어디를 향해서 자유를 구하는가 하는 목적 설정에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불교적 자유의 소원은 내 마음 속에 방해자(妨害者)를 인정하며 이것을 이겨냄으로써 내 속에 있어서 자유를 확립(確立)하려고 한다. 오늘날의 소원은 나의 바깥에 악한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데 있다. 전자(前者)의 소원을 소극적이라고 하며 후자(後者)를 적극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와는 반대로 후자를 소극적이라고 하며 전자를 더 적극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시인(是認)하며 어떤 것을 부인(否認)하건 그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교적 자유의 소원이 우리들의 내부를 향해서 기울어지게 된 것은 그 후에 보살사상(菩薩思想)에 의해서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될 여지(餘地)를 남기고 있다.

그와 동시에 오늘날 자유의 소원이 오직 외부(外部)로만 향해 있는 것은 역시 얼마 후에는 안에 있는 자유의 소원 그 내면적인 양심에 의해서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 바로 여기에 현대를 향한 불교의 발언권(發言權)의 초점이 있는 것이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불교의 세계관에 대하여

문 그대가 오행생성의 수가 이십사기(二十四氣)의 착종(錯綜)에 근원함을 분석함이 이미 저와 같이 정미로워 내가 아직 듣지 못함을 들었으니 '가르침' 에 도움이 있다 말할 만하다. 불씨(佛氏)가 말한 일월운행(日月運行)의 영허(盈虛)와 한서(寒暑)의 설(設)이 역상(歷象)과 같지 않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답 부처님이 가르침을 드리우심이 자기를 밝히는 것을 귀하게 여겼으니, 자기라는 것은 이치이다. 자기의 건곤조화가 외부의 건곤조화로 더불어 둘도 없고 다름도 없어 현상적인 일이나 본체적인 이치가 모두 실제로 돌아감을 밝히는 이것이 묘지(妙旨)이다.

이러기 때문에 숙세(宿世)의 영골(靈骨)이 있는 자는 한번 듣고 천 가지를 깨달아 의심과 걸림을 홀연히 잊어버리고, 중하(中下)의 근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집착하여 보시(布施)와 공덕(功德)으로 시비(是非)가 봉기(蜂起)한다.

부처님이 이미 세계로써 신기(身器)에 비교하였으니, 무릇 건립한 것이 서로 같지 않음이 없다. 경(經)에 말씀하기를 수미산(須彌山)이 솟아난 땅 · 들어간 땅의 그 양이 고르게 팔만 사천 유순(八萬四千由旬)이 되는데 분리하여 천지가 되었다 한 것은 사람의 허리 위와 허리 아래와 같으니, 그 형세를 평등히 나누어 위는 양이 되고 아래는 음이 된다.

"수미산 정상은 도리천(?利天)이 되는데, 제석(帝釋)이 그 중앙을 주재하고, 일월성신(日月星辰)이 차례로 그 아래 거한다" 고 하는 것은 사람의 두개골이 형질(形質)의 머리가 되어 총명(聰明)한 제근(諸根)이 얼굴 부위에 모여서 위치함과 같다.

해와 달은 안목(眼目)을 말함이고, 사주(四洲)는 사방세계(四方世界)이다. 무릇 사람의 보는 것이 남쪽은 완전하게 보고 북쪽은 빠져서 보지 못하며, 동쪽 · 서쪽은 그 반으로 나뉘었다.

그러므로 해와 달이 동주(東洲)에 운행하여 비추는 것은 아침으로부터 정오(正午)에 그치고, 서주(西洲)에 비추는 것은 정오로부터 저녁에 그친다. 그리고 남주(南洲)에 비추는 것은 완전하지만 그 북주(北洲)의 경우는 광명이 미치지 못한다.

동쪽은 해가 솟아오름으로써 아침을 삼고 일중(日中)으로써 저녁을 삼음으로 후일(後日)의 분(分)이 비고, 서쪽은 일종으로써 아침을 삼고 해가 지는 것으로써 저녁을 삼으므로 초일(初日)의 분(分)이 부족하다. 방향이 치우치고 땅이 궁벽하여 광명의 비춤이 완전하지 못하니, 이것이 부처님이 여기에서 세상에 응하지 않으신 까닭이다.

세상 사람들이 또 '수미산을 고리처럼 돈다' 는 말이 정상적으로 보는 일월의 출몰(出沒)로 더불어 같지 않음을 의심하는데, 이도 또한 그것이 그러한 까닭을 알지 못함이다.

무릇 이른바 '안으로는 안목이고 밖으로는 일월이다' 고 한 것은 다 기(氣)일 뿐이니, 앞에 말한 '운동하여 쉬지 않는다' 고 한 것이 이것이다. 하늘에 있어서는 일월이 되어 세계를 고리처럼 돌아가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목이 되어 또한 고리처럼 돌아가며 쉬지 않는다.

또한 고양이의 눈 속에 안정(眼精)이 시간을 따라 회전하여 잠시도 휴식하지 않음과 같으니, 고시(古詩)에 말한 '고양이 눈 속에 주천(周天)을 정할 것이니, 자오(子午)가 바늘을 드리우면 묘유(卯酉)가 둥글다. 진술축미(辰戌丑未)는 달걀과 같고, 인신사해(寅申巳亥)는 감씨와 같다' 고 하였으니, 대체로 증거할 만한 것이다. 또한 경에 말한 '수미산' 이라는 것은 세계를 포괄하여 말한 것이다. 남섬(南贍)은 배가 되고, 동쪽 · 서쪽은 옆구리가 된다. 그렇다면 횡론(橫論) · 수론(竪論)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한갓 그 수적(竪的)인 것만 집착하고 그 횡적(橫的)인 것을 매혹(昧惑)하여 '고리처럼 돌아간다' 고 함으로써 허탈함으로 여기는 자는 잘못이 아니겠는가.

자신 · 외부의 건곤조화는 다름이 없어
본체적 이치가 실제로 돌아감이 '妙旨'

세상에서 덕의(德義)를 헤아리지 않고 외람되고 사나워 부끄러움이 없는 자를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 이라 말함과 같으니, 그 추하지 않다 하겠는가.

또한 일식 · 월식이 있음은 임금의 권력은 약하고 신하의 세력은 강대한 소치로 그러함이니, 그것은 수라가 제석(帝釋)으로 더불어 권력을 다툼과 닮지 않았다 하겠는가. 부처님이 보이신 그 뜻이 은미하니, 이것은 이른바 "저기서는 그 자취를 전공하나 이곳에서는 그 본성을 밝힌 것이다" 라고 하지 않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도무지 잠이 안와 !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 뭇자지 못해 !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생사경계서 불법 전하는 것,

임종앞둔 환자들 돌보는 환희호스피스봉사단



환희호스피스봉사단은 …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으로 국민보건복지 향상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9년 7월 불교보건복지대학봉사단으로 창단됐다. 임종을 앞둔 환우의 신체적 ·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1년 불심봉사단으로 개명했다가 2004년 환희호스피스봉사단으로 안착했다. 부산에 있는 유수 병원들과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으며 현재 2009년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에 부산환희지부로 정식 등록했다. 환희불교복지대학에서 3개월간의 이론교육, 6개월간의 실습봉사를 거친후 입단할 수 있으며 현재 4백여명의 회원들이 활동중이다.

죽음 앞둔 이들에게 의지처 되자

환희봉사단 설립… 1999년 당시 3명

9개월 전문교육… 호스피스, 염불봉사 등

현재 4백여 명 활동, 그동안 1,460명 거쳐가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

외로움 · 원망 속에서 삶 마무리 않도록

환자 배려 최우선… 생명 존귀함 일깨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느 누구도 같지 않다. 다음 생을 준비하며 편안하게 숨을 거두는 사람부터 남겨진 가족들 걱정에 눈을 감지 못하는 이, 죽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에 미련을 갖는 이,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떠올리며 분노에 울부짖는 이들까지 모두가 제각각이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낯설며 어려운 일일 터. 이는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죽음을 앞에두고 누구보다 의지처가 필요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환희호스피스봉사단(단장 신미라)이다.

환희봉사단은 부산 관음사(주지 지현) 환희불교복지대학을 졸업한 봉사자들로 이루어졌다. 1999년 불교보건복지대학봉사단으로 창단했을 당시만 해도 3명의 호스피스 봉사자가 다였지만 현재 부산 시내 각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는 4백여명에 달한다. 그동안 거쳐간 사람만도 1460명. 이들은 동아대 병원, 부산대 병원, 보훈병원, 부산의료원, 환희요양원 등 각지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펼치고 있다.

3월 13일 환희봉사단을 만나기 위해 관음사 내에 위치한 환희요양원을 찾았다.

“아유 할머니. 왜 눈만 꼭 감고 밥을 안 먹는다 하실까. 우리 할머니 어디 편찮으셔?”

치매로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식사를 도와주는 봉사자에게 짜증을 부리고 있었다. 얼굴에 묻은 음식물을 닦아주며 할머니를 다독이길 수차례. 웃으며 할머니를 어루만지는 봉사자 손길에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결국 할머니도 마주 미소를 지으며 수저를 집어 들었다.

55명 어르신들의 식사가 끝나자 봉사단원들은 어르신들과 함께 흥겹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 했다. 귀에 익숙한 트로트 가락이 흐르자 어깨춤을 들썩이는 어르신들 얼굴위로 웃음이 가득했다. 그 순간만큼은 행복이 어디 따로 있을까 싶었다.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많이 느끼겠다싶은데 봉사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분들이니 어르신들께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것이다.

뿌리깊은 거부감… 문전박대는 예삿일

사실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병실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무래도 호스피스 성격상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환자들과 가족들은 봉사단이 다가오면 어서 죽으라는 말이냐면서 적의를 표하고 꺼려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는 없는 일. 마지막 길을 편안히 가도록 도와준다는 데 호스피스 의미가 있기에 닫혀버린 환자와 가족의 마음 문을 먼저 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해가 되죠. 죽는 걸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자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인생을 지혜롭게 정리해야 한다는 둥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겠어요? 짜증나고 화가 나겠죠. 저 같아도 그분들처럼 반응했을 거에요. 그래도 말이죠. 조금씩 다가가서 그분들이 원망과 좌절 속에 삶을 맺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안아주고 등을 쓸어주고 발도 만져주면서 혼자라는 느낌이 없도록, 홀로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다독거려줘야 해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김혜숙 봉사자((64 · 환희봉사단 15기)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호스피스 봉사가 시작된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들의 역할은 사람들의 마무리를 돕는 것”이라며 “생로병사의 과정 중에 죽음은 다음 생과 연결되어 있기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 모른다”고도 덧붙였다.

환희봉사단은 요양원에서 매일같이 볼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팀별로 봉사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것. 규율을 정해놓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누군가는 요양원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단원들은 봉사에 대한 열의가 남다르다.

봉사단은 호스피스 활동 뿐 아니라 환자들의 식사를 돕기도 하고 말벗이 되는가 하면 설거지, 목욕봉사까지 척척 해낸다. 체력적으로 힘들어 봉사자 모집이 어렵다는 목욕 봉사를 10년 간 해온 팀도 있을 정도다. 이외에도 병원안내와 물품 정리, 약재실 봉사까지 도맡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생일을 맞은 환우에게는 축하잔치를 열어 환자들을 기쁘게 해주기도 하고 지역 복지관에서는 저소득층 지역민들에게 나눠줄 반찬도 만든다. 환희봉사단 13기는 현재 부산 용두산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병원 일을 덜어주기도 하지만 무겁고 처지기 쉬운 병원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때문에 병원 직원들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환영받기 마련.

이혜미 환희노인요양원 복지국장은 “봉사자들 덕분에 어르신들이 지내기 더욱 좋은 곳이 됐다”고 말했다. 생신축하잔치를 할때면 봉사단은 한복을 입고 고전무용을 추며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선보인다. 100세를 넘긴 할머니도 그때는 흥에 겨워 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춤을 춘다.

“따뜻하게 환자들을 안아주는 봉사단원들의 얼굴은 환희 그 자체죠. 특히 봉사단이 어르신들을 위해 염불을 해줄 때는 어르신들이 아주 고마워합니다. 평소 외시던 다라니경을 따라하며 편안히 저녁잠에 드는 할머니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죠.”

이혜미 국장은 환희봉사단이 환자들을 돌보는 전문적인 모습에 감탄하게 되는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했다.

그도 그럴것이 환희봉사단은 환희불교복지대학재학시에 간호학과 교수들과 물리치료사, 복지센터 장들에게 임종간호, 경락이론 및 실습, 심신이완요법,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노인 복지 등 전문화된 교육을 3개월 간 받는다. 이어 졸업 후에는 6개월 동안 목욕봉사 실습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봉사단 자격이 주어진다. 아무래도 일반인들로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들과 만나는 일이 드문 탓에 목욕봉사를 통해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환자들의 몸 상태에 대해 면밀히 알아야 그들을 조심스레 배려할 수 있는 습관이 배기 때문이다.

언제나 환자 편에서 지혜로운 마무리 도와

죽음을 맞는 환자들에게는 제각각 사연이 있기 마련. 봉사자들은 병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돕는다.

환희봉사단 오문옥(60 · 환희봉사단 14기)씨는 부산의료원에서 말기 암환자들을 위해 11년간 호스피스 봉사를 하며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을 앓고 있는 중년 여성을 만났다. 그녀에게는 대학생, 고등학생의 두 자녀가 있었다. 가정을 돌보지 않던 남편 때문에 별거를 선택하고 굳건히 살아왔건만 내장까지 암이 전이돼 버렸다. 그녀는 병마에 대한 고통 보다 남겨질 아이들이 더 걱정이었다. 오문옥 씨는 그녀에게 “아이들은 다 컸다.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남겨질 아이들에게는 저마다 자기 삶의 몫이 남겨져 있으니 너무 걱정마라” 며 등을 쓰다듬었다.

“애들 이모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마세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만 남기고 암으로 떠난 엄마도 있어요. 그에 비하면 대학생 자녀는 다 큰거죠.”

오 씨는 그녀를 이렇게 다독거렸다. 재산이 남편에게 돌아갈까 걱정하던 그녀를 위해 오 씨는 직접 환자를 데리고 동사무소에 가 재산을 아이들 이모 앞으로 변경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오 씨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며 편안히 눈을 감았다. 슬픔도 잠시. 오 씨는 그녀가 통도사에서 49재를 부탁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본인 사재를 털면서까지 그녀와 한 마지막 약속을 지켰다. 환자의 언니와는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있다. 아이들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남겨진 아이들도 간간히 들여다보면서 말이다.

이처럼 호스피스 활동은 단순히 환자를 정서적으로 위로하는데서만 그치지 않는다. 봉사자들은 환자가 차분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가족들에게 조심스레 조언하기도 한다.

봉사 경험이 쌓이다 보면 환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환자 성향만 봐도 알 수 있다. 평소 차분하고



그것이 바로 환희의 삶”



환희봉사단은 간호학과 교수들과 물리치료사들에게 임종간호, 경락이론 및 실습, 심신이완요법 등 전문화된 교육을 받는다.



생일을 맞은 환우에게는 축하잔치를 열어 그들을 기쁘게 해준다.



2013년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창립 4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봉사자들이 관련 경험담을 토대로 직접 극본을 쓰고 드라마를 선보였다.



따뜻하게 환자들을 안아주는 봉사단원들의 얼굴이 환희 그 자체다.

깔끔한 성격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환자의 가족에게는 임종때만이라도 1인실로 옮길 것을 권유한다. 시끄러운 6인실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리라는 판단에서다. 환자 성향을 고려하지 못해 불편하게 삶을 마감하는 이들을 수차례 보아온 탓이다.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 사실 임종 준비에 익숙한 이가 어디많겠는가. 환자들도 어떻게 죽음을 맞아야 할지 모르지만 남은 가족들도 대부분 준비가 안 돼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누군가를 떠나보낼 가족들에게 봉사단원들의 지혜로운 조언은 큰 힘이 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 내 삶 돌아보게 돼

죽음을 매일 앞에 두고 있자면 삶에 대해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 환희봉사단원들 역시 죽음이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되새기므로 삶을 알차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보훈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명숙(55 · 환희봉사단 15기) 씨는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인생에서 무엇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병원에서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그들의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돈이 많았던 남편은 무슨 일을 해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들었어요. 교육관 차이로 많이 다퉜다더군요. 그런데 외동아이가 사고로 죽은 거에요. 그 뒤로는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며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병에 걸려 입원하게 됐고요. 두 분을 어렵게 화해시켜드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도 절실히 알게 됐죠.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일 말고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환희봉사단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돕는다고 말했다. 봉사를 하면서 가족 관계가 더 화목해졌다는 이들은 물론 성격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이, 건강해졌다는 이들도 있다.

환희봉사단 신미라 단장(57 · 환희봉사단 8기)은 아이를 출산하던 중 겪은 의료사고로 인해 10년 동안 4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린다면 “만신창이가 되었을 정도”로 몸이 상했다. 오죽하면 매일 관속에 있는 꿈을 꿀 정도였을까. 아침에 겨우 일어나 가족들을 챙기고 나면 체력이 딸려 항상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픈 몸을 이끌고 관음사에서 예불을 드리던 때였다.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이 그녀에게 봉사를 권했다. 아픈 몸으로 무슨 봉사냐며 가볍게 흘려들었는데 스님은 그럴 수록 더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단장은 이해가 안됐지만 일단 실천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모든 생명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원했다. 그렇게 조금씩 자신보다 더 아픈이를 챙겨가던 중, 신 단장은 비로소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다. 자신을 둘러쌌던 감정의 업을 맑히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 간 것이다.

사실 많은 봉사자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환희 불교복지대학에 들어온다는 것이 신 단장의 말이다. 우울감에 자살을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생각에 자괴감 혹은 좌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이들도 많다.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저희가 적극 권유하죠. 스님도 함께 참가를 독려하시구요. 그러면 그분들은 마지못해 이곳을 찾아와요. 하지만 몇 개월만 지나면 사람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봉사를 하러 갈 때 우울한 얼굴로 갈수는 없잖아요? 억지로라도 웃게 되고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보살피면서 스스로 밝아지고 행복을 찾죠. 어떤 분은 봉사하면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연히 봉사단원들은 그만 나오시라고 만류했지만 그분은 극구 봉사하러 오시더군요. 아파보니까 누워있는 환자들의 마음을 더욱 알 것 같다면서요. 진심으로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게 된거죠. 저희 봉사단원들은 모두 자신이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현 스님은 교육과 봉사가 어우러져 많은 봉사단원들이 스스로 성장해간다고 말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위해 손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이라고도 했다.

환희 봉사단, 그들의 봉사는 어렵다. 봉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의 뿌리깊은 거부감부터 어루만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을 뚫고 가야만한다고 했다. 그 산을 넘어야 죽음 너머의 참 진리를 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진리의 베풂. 그것이 그들의 목표다. 진리를 바탕으로 피어나는 기쁨이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도 ‘환희’ 롭게 다가가길 기도하면서.

부산=하성미 기자

전법일기

신도들과 쌓은 미운정 고운정

내가 법당을 박차고 나간 이유

사찰 초하루 법회는 불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신행활동이다. 매월 초하루 날 불보살님과 호법선신들께 예불공양을 드리며 한 달을 잘 열어가려는 신심의 발로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사실 강원 졸업하고 사찰 소임만 살았지 주지로서 신도들에게 법문 할 인연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법문을 하며 초임 주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다.

초하루 법회 며칠 전부터 신도들에게 좋은 법문을 하고자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며, 불교 관련 재미있는 이야기나 설화 등을 찾고자 인터넷 검색도 한다. 법문 후에는 ‘내가 잘 법회를 진행했는가’ 를 항상 되짚어 본다.

그래도 가끔은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다. 바로 사찰 예절에 대한 문제다. 여느 사찰과 다름없이 원각사 절에도 법회 날이면 연세가 많은 노보살들이 법당 안을 가득 메운다. 언제부턴가 나는 법회에 앞서 신도들에게 사정을 한다.

“법당 안에서는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해주시고요. 기도 중이니 옆 신도들과는 너무 큰 목소리로 말씀하지마세요. 해우소에 갈 일이 있으면 조용히 다녀오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인지 깜박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다. 지난해 11월 초하루도 여느 때와 같이 신중기도를 마치고 법문을 시작했다. 헌데 법문 시작 5분이 되지 않아서 신도들의 수다와 핸드폰 벨소리가 법당을 메우기 시작했다. 한 달만에 만나는 지인이 반가워서인지 법문보다는 수다가 먼저다. ‘염불보다 잿밥’ 이라는 속담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다.

그래도 법문에 경청해주시는 일부 신도가 있어 법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10분 정도 지나니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다. 결국 나는 역정을 내고 말았다.

“신도님들 오늘 사찰에 왜 오셨나요. 주지가 법상에서 법문을 하는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순간 법당 안은 찬물을 뿌린 것처럼 조용해졌다. 나름대로 준비한 법문도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을 나갔다. 물론 마음은 편치 않았다. 종무소에 와 앉으면서도 온갖 상념이 들었다. ‘나이드신 분들인데 내가 너무 심하게 대한 것이 아닐까’, ‘수행자라면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다니’, ‘앞으로 신도님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등등.

결국 그 자리에서 앉아 목이 메일 정도로 염불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도들이 내 방문을 두드리며 연신 “주지 스님”을 찾았다. 나는 잠긴 목소리로 “네”라고 말했다. 목소리에 놀란 신도들이 ‘까르르’ 웃었다. 그러면서 “오늘 불자로서 어긋난 행동을 해서 참회하고자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러니 저러니해도 순수한 분들이셨다. 모든 감정이 녹아내리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



그림 · 박구원

이런 일이 있고나서 신도들과는 더욱 친밀해졌다. 이제는 신도들이 나에게 원각사에서 평생 같이 살자고 먼저 제안한다. 멋쩍게 웃어넘기지만 나 역시 원각사 신도들과 정이 많이 들었다. 이는 서로간의 신뢰와 믿음이 쌓여가고 있는 증거일 것이다.

신도들에게 있어 사찰은 친정이고 외가이다. 나 역시 신도들에게 친정 오빠, 동생,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법회가 있는 날이면 비가와도, 눈이 내려도 항상 나는 원각사 일주문 앞에 서 있다. 법회에 동참 하고자 멀리서 가까이서 오신 신도님들을 웃는 얼굴로 맞이하기 위해서다. 초임 주지인 나의 첫 신도님들은 한 분 한 분 모두 다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서로에게 의지하는 공동체. 그것이 내가 그리는 원각사의 미래다. 모두 모두 참 좋은 인연이다.



연호 스님 (서울 원각사 주지)

불교용품 전문·고급 연등·봉축 현수막

2015 연등 특별공급 (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봉축리본


▶종이등표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고급 칼라연등 : 진분홍, 연분홍, 보라, 다홍, 오렌지 8cm


▶지하철현수막


▶어깨띠


▶종이주름등


▶세로거치형 현수막


▶비닐만월등


▶봉축현수막




▶고급 칼라연등 : 연분홍, 오렌지, 진분홍, 다홍, 보라 8cm


*공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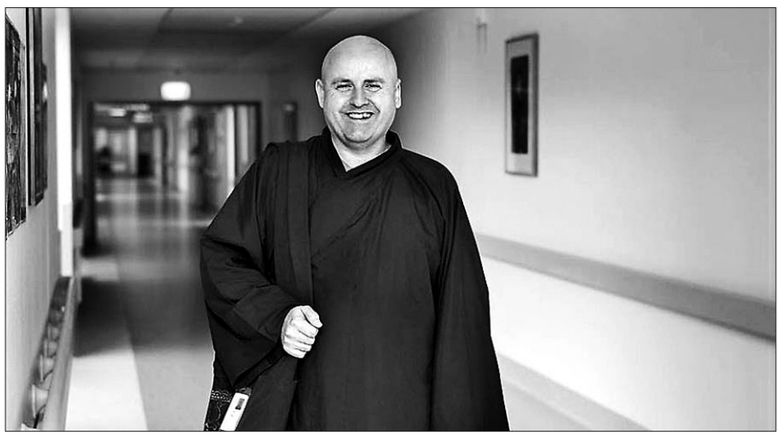

가격할인 예외품목

불교장엄용품전문
가야기획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불교적 친절’ 모토로 호주에 ‘선근’ 심다

환자와 이재민 마음 추스르는 호주의 앨런 스님


앨런 스님은 타즈마니아(Tasmania) 섬에 있는 버니(Bunnie) 지역병원의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섬에서 스님으로서 병원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는 유일하다.


앨런 스님은 15년간 펭귄 소방대의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버니 지역병원 종교시설 운영
펭귄 소방대 자원봉사 활동
“타즈마니아에 불심 전파할 것”

호주의 ‘제주도’로 불리는 타즈마니아(Tasmania) 섬에서 존경받는 종교지도자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스님이 있다. 바로 앨런(Alan Piercey) 스님이다.

〈ABC〉지는 “호주 노스웨스트 해안가 주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스님이 있다”며 “지역 병원의 법당에 주석하며 환자의 마음을 안아주고, 때론 화재 현장에 긴급 출동해 화마와 싸우는 수행자”라고 앨런 스님을 소개하고, 집중 조명했다.

앨런 스님은 중국불교계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이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스님(Monk)’ 외에도 ‘시푸(Sifu)’, ‘굿 맨(Good Man)’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길 주저하지 않는다. 그만큼 친숙하기 때문이다.

앨런 스님은 “중국불교의 정토종에서 ‘시 진강(Shih Jingang)’이라는 법명을 수지하고, 비구계를 받았다”며 “그런데 지역 주민들, 특히 버니(Bunnie) 지역병원의 환자들은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 팬더’에 등장하는 ‘시푸’라는 이름으로 부르길 좋아한다”고 말했다.

〈ABC〉지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시푸’의 뜻을 명확히 알고 사용하고 있다. 사실 타즈마니아 섬에서 유일하게 ‘목사’ 아닌 ‘스님’이라는 신분으로 병원 내 종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앨런 스님에게 가장 적절한 호칭일지도 모른다.

또한 앨런 스님이 15년 간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펭귄 소방대’에서는 ‘굿 맨(Good Man)’으로 불리고 있다. ‘굿 맨’이란 호칭은 타즈마니아 산불예방 캠페인에 등장하는데, 앨런 스님은 캠페인 관련 홍보물의 모델로 선정, 활동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불리게 됐다.

〈ABC〉지에 따르면, 앨런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타즈마니아 섬의 버니 지역병원 법당에서는 15년간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활동하며 수상한 다양한 트로피를 볼 수 있다. 이중에는 2013년 수상한 ‘올해의 소방관’ 상도 있다. “15년간 자원봉사 소방관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소방관의 도움이 크다”고 말한 앨런 스님은 “병원 환자들과 함께 매일 명상을 하는데, 이때마다 비상 호출기를 꺼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동료들이 있어 가능했다”며 “화재 현장에 늑장 출동할 때마다, 그 ‘미안함’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어다니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앨런 스님은 그가 7세가 되던 때 불교에 입문했다. 당시 맞벌이를 하던 스님의 부모님은, 출근할 때마다 이웃집 노부부에게 보육을 부탁했다. 그때 스님을 돌보았던 노부부가 바로 독실한 불자였다.

“이웃집 할머니는 나에게 항상 인도의 왕자(싯다르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기억을 더듬은 앨런 스님은 “그 경험이 내가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숱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결코 지치지 않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앨런 스님은 “병원 법당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소방관을 하는 것은 ‘포교’를 생각해서가 아니다”고 말한 앨런 스님은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친절’이라는 한 마디로 정의하길 주저하지 않는다”며 “이는 환자를 만날 때도, 이재민을 도울 때도 ‘포교’ 보다 먼저 기억하고 실천하는 단어”라고 강조했다.

한편 〈ABC〉지는 “앨런 스님이 환자와 이재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초콜릿 유통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유통업 수익 전액은 이를 위한 기금 조성에 쏟을 예정”이라며 “‘친절’을 모토로 스님의 다양한 대 사회 활동은 작게는 버니(Bunnie) 지역, 넓게는 타즈마니아 섬 전체에 이르기까지 선근을 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애리조나대, 불교 통한 대학생 사유 확장

‘불교 교육 프로그램 강화’…4월부터 ‘선고전 읽기’ 강좌 개강


애리조나대 학생들이 수업하는 장면.

애리조나대학이 오는 4월 14일부터 동아시아의 종교, 특히 불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신설, 공개강좌에 들어간다.

〈UA News〉지는 3월 17일 “미국에서 동양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데 주목, 불교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오는 4월 14일부터 학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의 불교문화와 그 가치의 이해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리조나대학의 이 같은 교육 방침은 동아시아 경제 규모가 상승하는 데 따라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가 동아시아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각국 간의 교류를 폭넓게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애리조나대학 동아시아학과장 앨버트 웰터(Alber Welter) 교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수업으로 배우고 체화한 ‘사유 체계’를 동아시아의 철학이나 윤리에 접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애리조나대학 내에서 진행된 동아시아 관련 모든 연구 성과가 펼쳐지고, 또 새롭게 읽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과장 웰터 교수에 따르면 ‘컨플렌센터(Confluencenter for Creative Inquiry)’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의 첫 강좌는 4월 14일 대학 내 시 학관(Poetry Center)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이는 ‘선(禪) 고전 읽기’를 주제로 한 시리즈의 첫 번째 강좌로, 셀레스티노 페르난데스(Celestino Fernandez, 사회학) 교수가 ‘금강경’을 기본 교재로 삼아 ‘불교와 행복’에 대한 담론을 펼칠 예정이다. 두 번째로 5월 4일 지앙 우(Jiang Wu, 동아시아학) 교수가 ‘법화경의 세상에서의 종교적 상상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UA News〉지는 “캠퍼스에서 불교란 여전히 ‘과거의 종교전통’ 일 뿐”이라는 우 교수의 말을 인용, “이는 불교가 역사、문화、철학적 주류 맥락에서 소외됐기 때문인데,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그 간극을 매우는 한편 학생들의 사유에 불교와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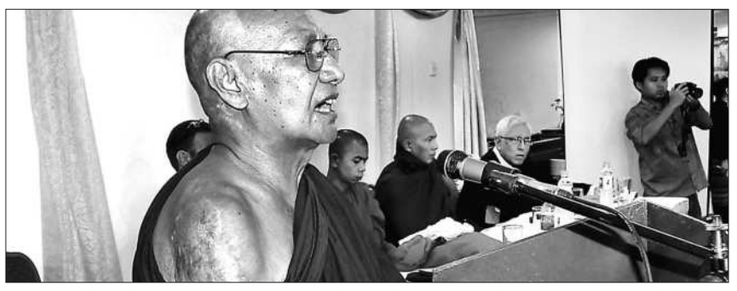
이에 대해 “연구실에 머물러 있던 불교 연구 성과물이 학생들과 교감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게 큰 의미”라고 강조한 ‘컨플렌센터의 하비에르 듀렌(Javier Dur?n) 이사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애리조나대학 불교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미국의 차세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컨플렌센터는 ‘영성에 근거한 학제간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의 연구 재단으로, 이 재단에서 선보인 ‘명상에 기초한 농장 혁신 프로그램’은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반향을 일으켰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얀마 스님들 코코 前 내무장관 고소

2012년 레파타웅 구리 광산 반대 시위 과잉진압으로


레파타웅 구리 광산지역서 벌어진 시위현장에서 팔에 화상을 입은 미얀마 스님이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얀마 스님들이 코코(Ko Ko) 前 미얀마 내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 ‘Justice Trust’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스님들은 지난 2012년 모니아(Monywa)의 레파타웅(Letpadaung) 구리 광산 지역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에서 화상을 입었다.

레파타웅 구리 광산은 미얀마 군부와 중국 완바오(Wanbao Mining Copper Ltd.)가 공동 운영 중인 광산으로, 환경 훼손과 강제 토지 수용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2012년 시위 현장에는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스님들도 대거 참여했는데, 미얀마 경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백린 수류탄을 사용, 시위대 선두에 섰던 100여 명의 스님들이 화상을 입었다.

AP 통신은 ‘Justice Trust’의 보도 자료를 인용, “당시 과잉진압으로 57명의 스님들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며 “미얀마 경찰의 과잉 진압을 허가 코코 전 내무장관이 이들의 치료를 책임져야 할 것”리라고 전했다.

동, 아연, 주석, 텅스텐, 니켈, 철, 석탄, 석유, 보석류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갖고 있는 미얀마는 1994년 광산 관련 법을 제정하고 외국 업체의 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AP 통신은 “레파타웅 구리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09년 타광 타웅(Tagaung Taung) 니켈 광산을 시작으로 미얀마의 주요 광산을 대거 확보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레파타웅 구리 광산 사태를 지켜본 미얀마의 역사학자이자 〈중국이 인도를 만나는 곳 : 미얀마와 아시아의 새로운 교차로〉”의 저자 탄민우(Thant Myint-U) 박사는 “중국은 자신들의 투자의 영향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서 “결국에는 중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미얀마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달라이라마, 80세 생일 美오렌지카운티서



달라이 라마가 오는 7월 오렌지카운티에 온다. 사진은 지난 2011년 UC어바인에서 강연을 하는 달라이 라마의 모습.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80세 생일을 오렌지카운티에서 맞는다.

OC레지스터는 달라이 라마 측의 공식 발표를 인용, 그의 8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전세계 티베트 불교 신자들의 행사가 오는 7월 5일 애너하임의 혼다센터에서 열린다고 13일 보도했다. 달라이 라마의 생일은 7월 6일이지만 축하 이벤트는 이보다 하루 앞서 열리는 것이다.

혼다센터는 1만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달라이 라마가 애너하임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일축하 이벤트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글로벌 컴패션 서밋(Global Compassion Summit)’ 행사의 일환이다. 달라이 라마는 생일잔치 이틀날인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UC 어바인에서 열릴 강연과 패널 토론 등의 이벤트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UC어바인에서 열리는 행사는 어바인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관 ‘리빙 피스 센터(Center for Living Peace)’가 대학 측과 함께 마련한다. 달라이 라마는 이미 두 차례 어바인을 방문한 바 있다. 티베트 불교 신자들에게 ‘살아있는 부처’로 여겨지는 달라이 라마는 1959년 정치적 망명을 한 이후 인도 북부에서 살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5,0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현 불 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별분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방수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농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방수전선-50cm
할인가 75,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방수전선-2m
할인가 80,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바림등(8cm)

비닐만월등 ▶
판매가 150,000원
• 1BOX : 100개
• 등지름 : 30㎝
할인가 3,200원 (30개이상)
정 가 3,800원
• 1BOX : 30개 • 등지름 : 24㎝
• 빨강,보라,주황,분홍,진분홍,흰색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전구(10W)
@ 250원
1BOX : 100개
제조원 : 베트남



PVC영가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 : 8.5㎝×21㎝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8.5㎝×21㎝ • 진분홍,연분홍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4,000원
판매가 10.5cm 4,500원
판매가 12cm(한지)10,000원
※1묶음당 10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완성품



플라스틱 등표연결집게
판매가 15,000원(100개)
• 연두색 / 흰색 中 선택



PVC등표 전용펜
판매가 2,000원
• 제 조 사 : 사쿠라 (일본)
• 가는 글씨와 굵은 글씨를 쓸수 있는 양면 펜.
(★검정색)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 등 할인가

- 바림등(6cm) @2,700원 (60개이상)
- 바림등(8cm) @3,200원 (30개이상)
- 바림등(10.5cm) @6,000원 (16개이상)
- 바림등(13cm) @13,000원 (6개이상)
- 바림등(20cm) @35,000원 (2개이상)
- 바림등(30cm) @80,000원 (1개이상)
- 공단등(6cm) @3,000원 (60개이상)
- 공단등(8cm) @3,600원 (30개이상)
- 공단등(10.5cm) @7,000원 (16개이상)
- 공단등(13cm) @15,000원 (6개이상)
- 비닐만월등 A형(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만월등(국산100개) 22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등철사(100개)
  6cm 75,000원 / 8cm 80,000원
  10.5cm 85,000원 / 12cm 100,000원



일반연잎(소/대) 6,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바림연잎/한지바림연잎
7,500원 / 9,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천바림연잎 30,000원
진분홍/ 주황/ 빨강/ 연분홍 / 보라
수량 : 약 1,20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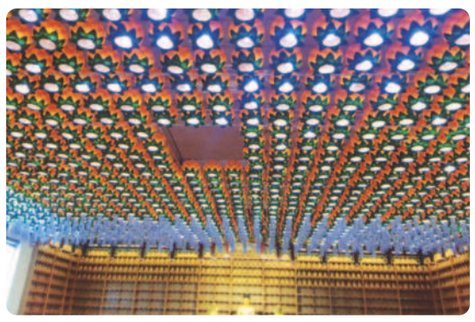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의 사 불 사 께 합 니 다

동

안정성, 편리성, 디 자 , 경제성 등 모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 보문사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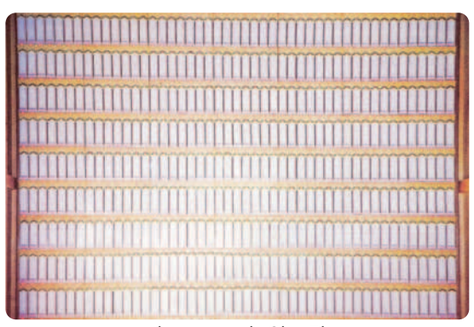
제주 월성사 위 단



제주 월성사 등



월 산 무위사 대법당



장 보 사 위 단



각종 등 본



대나무 부처님
(불, 특수불, 각종 불상)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 등 만월등

전문기 공해드니다.

전화 010 0 . 0199 10
경 기 시 동 은 로 100

청정한 마음 묵향에 담으니 여기가 꽃자리

안길상 화백 개인전 하와이 무량사서… 4월 18일~5월 20일


안길상 화백

내리 딸만 넷을 낳았던 어머니는 다섯째는 아들 낳기를 간절히 바라며 경북경산 성암사 산꼭대기까지 공양물을 머리에 이고 올라가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다섯째는 딸이었다. 낙심한 어머니는 갓난아이와 함께 죽겠다며 방에 불을 때지 말라고 했다. 출타했던 아버지가 돌아와서는 딸도 귀하다며 어머니를 설득시켰고 다섯째 딸은 무럭무럭 자라 스무살의 여인이 되었다.

어느날 친구들과 함께 들린 영천 은해사에 반해 버스를 세 번 갈아타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절에 다녔고 그때 만났던 70대의 선승 지선 스님 옆에서 먹을 갈아주며 어깨 너머로 글씨를 익혔다. 스님은 남동생 보기를 발원하며 부모님이 지어주었던 태남이란 이름은 소임을 다했으니 길상(吉祥)으로 살라 했다. 그후로 35년이 지난 지금, 그는 불법 만난 인연에 감사하고 일체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발원을 담아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안길상(56) 화백의 전시 '부처님, 묵향으로 만나네' 가 4월 18일~5월 20일 미국 하와이 무량사에서 열린다. 전시 수익금 전액을 무량사 요양원 '팔로로 코리언 케어홈' 건립을 위해 기부하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부처님 금강경' '여기가 꽃자리' '무(無)' 등 70여 작품을 선보인다.

"하와이 무량사 도현 스님과는 지난해 불교박람회에서 인연이 됐어요. 작은 부스를 마련해 전시를 했는데 스님께서 제 작품을 보고 전시를 하자고 제안하셨죠. 요양원 설립을 위해 여는 전시라 하니 저도 적극 동참하고 싶었고 수익금 전액 기부를 결정했어요. 제 작품을 감상하고 돌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화두참선, 3천배, 금강경 사경 등 다년간의 수행으로 다져진 불심이 작품 속으로 녹아드니, 그의 작품은 고요한듯하면서도 동적이고, 심오한듯 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여여하다.

특히, 두폭 가리개 형태로 완성한 '부처님 금강경' 은 금강경을 사경하듯 예서체로 쓰고 그 위에 좌선하는 부처님을 재미있게 터치하듯 그려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씨를 썼어요. 한 자라도 틀리면 다시 작성해야 하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한 달 넘게 작업해 작품을 완성했어요. 여기에 무위법을 통해 세상이 정화 되고 행복하고 좋은 기운이 충만하도록 하는 의미를 담아 부처님의 참선 모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무(無)는' 보라색 바탕에 '무' 자를 쓰고 사경한 반야심경 종이를 찢어 부쳐 완성해냈다. 여기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한다고 저 하늘의 구름과 바람이 내게 일러준다. 비로소 몸과 마음이 자유롭다' 는 글귀가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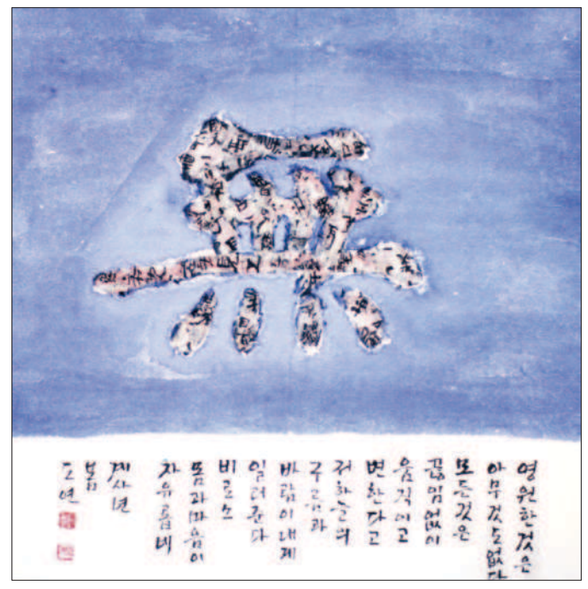
"반야심경의 핵심인 공사상을 담았어요. 수없는 '무' 를 새기며 상을 내지 말되, '무' 는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라는 뜻을 담았죠."

작가는 아무리 불법을 많이 공부해도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그 충만한 행복을 나누어주는 의미를 '꽃자리' 시리즈로 남기고 있다. '여기가 꽃자리' 역시 이런 의미를 담았다.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너무 잘 대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일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꽃자리라는 의미를 담아서 작품을 완성했죠. 집주인이 당호로 쓴다고 할만큼 좋아해주었어요."

오랜 수행 여정 작품에 투영해
'부처님 금강경' 등 70여 작품 전시
수익금 전액 요양원 설립에 기부

이밖에도 임제선사의 어록을 채색판화에 곁들인 작품, 부처님 탄생의 기쁨과 성철 스님 부처님오신날 법어를 함께 담은 '천상천하유아독존' 등 불경의 어록을 서예로 옮기고 그림을 곁들인 작품은 대중들의 가슴에 불심의 향기를 전해줄 것이다.




안길상(56) 화백의 전시 '부처님, 묵향으로 만나네' 가 4월 18일~5월 20일 미국 하와이 무량사에서 열린다. 작가는 전시 수익금 전액을 무량사 요양원 '팔로로 코리언 케어홈' 건립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그림 왼쪽은 임제선사 어록에서 문구를 가져오고 판화의 문양에 채색한 작품. 그림 위는 공사상을 담은 '무'

"성격이 빈틈이 많고 어설퍼요. 이런 제가 보는 깨달음은 무겁거나 딱딱하지 않아요.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유연하죠. 머리로 아는 불법은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알고 느낀 것을 그림과 글씨로 남겨 세상과 나누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처처가 수행처에요.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읽고 느낀 것을 작품으로 옮기죠. 제 작품이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살다보면 태어날 때보다는 죽을 때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불제자로 사는 이유이고 또 창작을 해나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010-3664-313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최효임 작가의 '연꽃'. 법열의 기쁨을 담았다.

'환희수' 에 매화 열리니 법열의 기쁨이

지원 최효임 작가 개인전

지원 최효임 작가가 3월 31일~4월 5일 나무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 주최로 열리는 전시는 수익금을 (재)아름다운동행 탄자니아 농업고등학교 건립에 지원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환희수, 연꽃 등 36점의 문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작인 환희수는 즐겁고 기쁜 일이 많이 생기는 나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늘색을 배경으로 흰색 매화를 그렸죠. 꽃잎이 흩날리는 느낌을 포착해냈는데 이는 법문을 듣고 일어나는 기쁨이 표현되어 있어요. 신심이 솟아나면 마음에서 기쁨이 우러나오고 행복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때의 느낌을 꽃이 피는 봄의 모습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모태 불자라고 말하는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불교 집안에 자라 늘 불교와 친숙했다. 이후 20여년 조계사 신도로 신행활동을 해온 그는 현재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 자문위원으로 절에 와서 법문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의 이런 환희로운 마음은 작품 '연꽃' 에도 잘 담겨 있다.

"연꽃은 불교적인 사상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군자의 뜻을 품고 있는 꽃으로 문인화의 단골 소재로도 많이 사용하죠. 이번 전시가 불교와 인연이 깊은 만큼 먹으로 잎을 표현하고 붉은색으로 꽃을 표현해 법열의 기쁨, 용맹정진의 의지 등을 담아 봤어요."

3월 31일~4월 5일 나무 갤러리서
수익금 동행 탄자니아 학교 지원도

최 씨는 어려운 가정환경을 딛고 어머니의 냉면가게를 도우며 독학으로 문인화를 공부해, 대한민국 문인화대전 대상을 비롯 서울미술대전 금상,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장상 우수상, 대한민국 전통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현재는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 법우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는 등 이타행 실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버지께서 문인화를 좋아하셨어요. 아버지 영전에서 부끄럽지 않은 문인화가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죠. 이제는 다른 일은 접고 그림에만 전념하며 전업작가로 살고 있죠. 불교를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것이 어떤 공부도 실천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불자로서 불교를 공부하고 또 이를 세상을 위해 잘 쓸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동행의 아프리카 학교 건립을 위해 수익금을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그래서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010-3704-8940

정혜숙 기자

청묵의 산에서 내면의 세계를 觀하다 〈관〉

김영순의 개인전
3월 25일~31일 라메르서


청묵으로 표현한 김영순의 '산'

김영순의 개인전 '청묵에 묻다' 展이 3월 25일~31일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산, 화개의 봄, 삼성산 설후 등 한국의 산천을 청묵으로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특히, 작품 '산' 에서는 청묵을 통해 사물의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선적인 이미지를 표현해 낸다.

"불교에서 쪽색을 많이 사용해요. 쪽이라는 것은 쑥 같은 식물인데 여기서 승복색깔의 이미지가 나오죠. 검으면서도 윤기가 있고 푸르른 오묘한 느낌이 있어요. 새벽 산의 느낌이 이 청묵의 느낌과도 잘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내면의 성찰이 청묵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국대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에서 공부하며 불화 등 다양한 장르의 그림을 섭렵한 작가는 마곡사, 칠불암, 백련사 등 전국 사찰을 돌며 그림 작업을 하기도 했다.

앞으로 작가는 먹 작업을 통해 한국 산천의 아름다움을 동양화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먹 작업은 제 내면의 느낌을 자연에 투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먹을 통해 자연과 내면의 거울을 투영시킬 수 있는 가장 동양화다운 동양화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02)730-5454

정혜숙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자연산 구지뽕
묘목 분양 (3년, 5년생)

무노동으로 (2,000평) 연봉 1억이상 가능!!
●구지뽕 나무는 잎파리, 가지, 열매, 뿌리 등 전체를 건강식품,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고혈압, 당뇨, 근골강화, 면역력 증진에 특효)
●최고 소득 작물로써 자연산은 한번 심어 놓으면 300년이상 사찰자립에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500년 이상도 가능)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로 키워야 더 좋음으로 사찰자립, 귀농귀촌, 은퇴 후 생활에 최적의 고소득 효도나무입니다.
▶3년생 7,000주 ▶5년생 5,000주 보유중

개복숭아 묘목분양 (1년생)



• 강원도 350고지 이상의 토종 자연산 씨앗으로만 발아
• 무농약, 무비료 노동력 無
• 열매솎기, 밭매기가 전혀 필요 無
• 꽃이 황홀해서 관상수로도 최고!
• 한번 심어 놓으면 150년이상 수확 (300년 가능)
※ 전국 최대 묘목 보유! (50주이상 주문 부탁)

구입문의 010-9608-2356(충주농원)
입금계좌 : 농협 123-02-311652 (이상국)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동양화가 정종미 개인전이 4월 12일까지 고려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불화의 도상에 여인의 얼굴을 결합한 '오색보살도 시리즈'가 대중들을 찾아간다.

한국 여인의 삶에서 부처를 읽다

정종미 개인전…
고려대 박물관서 4월 12일까지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의 공로가 컸다고 봐요. 그분들이 부처님이죠. 하지만 이런 성과들이 전혀 가치 부여가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라도 그분들을 모시고 경배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여성도 부처라는 생각으로 보관도 씌우고 면사포도 씌워 상단에 모시듯 작품을 배치해 보았습니다."

고려불화의 도상에 여인의 얼굴이 결합된 '오색보살도 시리즈'가 대중들을 찾아간다. 동양화가 정종미(고려대 디자인 조형학부 교수) 개인전 '여성성에 바치는 헌사 4'가 4월 12일까지 고려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작가가 30여년간 작업해온 작품들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회고적 의미를 갖고 있는 전시에서는 화판에 천연 염색한 종이와 천을 붙여 여인을 표현한 종이부인 시리즈, 고려불화 도상에 한국 여인의 얼굴을 조합한 '오색보살' 시리즈 등 대표작 80여 점이 선보인다.

오색보살은 고려불화에서 그 형상을 빌려왔다. 보살의 몸을 그대로 재현하고 얼굴만 여성의 얼굴로 바꾸어 표현했다. 작가는 "여인의 얼굴은 배경에 직접 그렸고 보살의 옷은 닥종이를 따로 만들어 화면 위에 붙였다. 얇고 질긴 닥종이를 염색해 옷의 모양을 조각조각 만들어 화면 위에 부조 식으로 붙이고 얼굴 가슴, 손과 팔은 화면에 직접 그렸다. 이렇게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에는 한 두 달의 시간이 걸린다"며 제작 과정을 설명한다.

작가는 여성의 모습에서 부처를 보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작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두 여인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 "아버지가 많은 여인을 사랑한 탓에 어머니가 무척 힘든 삶을 사셨어요. 자식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수월관음도' 보살의 몸에 염색 한지를 입히고 여인의 얼굴을 그려냈다.

고려불화 도상에 여인의 얼굴 접목
화판에 염색 천 붙여 불화 재현
'오색보살도'로 여성의 삶 찬탄
불교는 동양화 이루는 핵심 사상
여성관·자연사상과 결합해
새로운 작품 창작에 매진하고자

그 다음으로는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었던 할머니를 이야기한다.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어릴적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에요. 대학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안부였어요. 해방 되고 한국으로 들어와 길거리에 쓰러진 여인을 집에 모셔와 치료를 해드렸고 이후 저희 집 일을 도우며 사셨죠."

두 여인의 희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그 희생에 감사하며 그들을 부처님의 경지까지 끌어올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불교는 1700여년 우리 민족을 지탱해 온 종교이기 때문에 동양화에서는 불교적 요소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또한 불교적 세계관은 곧 여성적 세계관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 최대 이슈인데 이 자연은 생명 잉태를 한다는 점에서 여성과 가깝죠. 불교교리도 자연과의 합일 또는 교감을 이야기하죠. 결국 여성을 통해 자연도 만날 수 있고 불교적인 세계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 여성 불교적 세계관이 융합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밖에도 색채의 진수를 느끼게 해주는 '사미인곡' '역사속의 종이부인-황진이'를 비롯해 '오색산수' '종이부인' 'She' 시리즈 등 대표작을 만나볼 수 있다.

정종미 작가는 저서 〈우리그림의 색과 칠〉을 통해 사라진 전통재료를 새롭게 발굴하고 해석해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가 사용하는 안료와 전색제 등의 전통재료와 도구들을 보여주는 코너가 마련됐으며 작업과정을 담은 동영상도 공개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목표 향해 질주하는 '삶' 멈춰 돌아 볼 때

애니메이션 영화 '박스트롤'



애니메이션 영화 박스트롤의 빨간 모자는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앙굴라마라의 삶과 닮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살아간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목표의 설정과 성취의 반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목표라는 것이 크건 작건 높건 낮건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때로는 좌절하지만 또다시 도전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 중생의 삶인지 모른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생의 삶은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 목표의 방향이 개인의 과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일 때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이다.

애니메이션 영화 박스트롤은 치즈브릿지 마을 지하에 살고 있는 박스트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네모반듯한 박스를 입고 다니는 귀여운 몬스터, 또 그와 함께 살고 있는 박스를 쓴 인간 소년 에그에 관한 이야기다. 어느날 평화롭게만 지내던 박스트롤들에게 큰 위험이 닥친다. 빨간모자 일당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빨간모자의 목표는 귀족만이 쓸 수 있는 하얀모자를 갖는 것. 그는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빨간모자는 박스트롤을 이용한다. 마을의 아이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는 이들이 바로 박스트롤이라는 거짓 정보를 퍼트리는 것이다. 박스트롤을 악마로 몰아가면서 빨간모자는 그들을 제거하는 영웅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렇게 빨간모자는 치즈마을의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하얀모자를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빨간모자는 앙굴라마라와 닮아 있다.

앙굴라마라는 사위성 출신으로 북인도 쪽에서 한 스승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지혜롭기는 물론이고 용모까지 수려했으며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스승의 아내는 스승이 집을 비운 사이 앙굴라마라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자 스승의 아내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고 자신의 행동을 남편에게 이를까봐 두려워졌다.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는 앙굴라마라가 자신을 강제로 욕 보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괘씸한 마음이 든 스승은 알굴라마라에게 100명의 사람을 죽여 시체의 손가락 뼈 100개를 목에 걸면 공부를 마칠 수 있다고 말한다.

스승의 말을 무조건 믿은 앙굴라마라는 닥치는대로 사람을 죽이며 손가락 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수행의 마지막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박스트롤 제거에 나선 빨간모자
목적 달성 위해 맹목적 악행 거듭
살인마 앙굴라마라의 삶과 닮아

않았던 것이다. 이제 9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명만이 남았다. 앙굴라마라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희생해 100명을 채우고자 길을 나선다. 그때 부처님이 앙굴라마라 앞에 나서게 된다. 부처님이 걷기 시작하자 앙굴라마라는 부처님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평소처럼 걸었지만 앙굴라마라는 부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는 '제발 걸음을 멈추라'고 소리친다. 부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앙굴라마라여! 나는 이미 멈춘지가 오래 되었다. 멈추지 않은 것은 바로 너다. 나는 번뇌와 고뇌와 경계의 끄달림을 멈춘 지 오래 되었으나 너는 멈추질 못하고 있구나!"

이 말을 들은 앙굴라마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참회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앙굴라마라의 모습은 하얀모자를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빨간모자의 행보와 닮아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표를 향한 질주, 정당성이 결여된 목표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물론 어둠이 걷히면 아침이 오고 비가 온 뒤에 날씨가 맑게 개듯 영화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벌을 받을 자는 벌을 받고 행복을 누릴 자는 행복을 찾아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명암이 뚜렷한 애니메이션 영화와는 달리 부처님의 제자로 귀의한 앙굴라마라의 행보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살인을 멈추고 비구가 된 그가 탁발을 나서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돌팔매를 가했다.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는 돌팔매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했다. '부처님! 저는 아무런 원망도 후회도 미움도 없습니다. 평온합니다.' 자신이 지은 업보를 기꺼이 받는 길을 선택했다. 과오를 뉘우치고 기꺼이 참회한 앙굴라마라의 마지막은 처참했지만 평온했다.

끊임없이 바위를 굴리는 시지프스처럼 중생의 삶은 목표를 향해 오르내림을 반복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로 또다른 업을 쌓기 마련이다.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삶들에게 묻고 싶다. 이제는 멈추어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정혜숙 기자



수정기공 및 기공재활사 자격과정 특강

(사람정비 메뉴얼 수정기공)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수정기공 재활사) 민간자격(2014-5765)을 등록하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약물이나 침 뜸 지압, 마사지 등으로 질병을 치료를 고집하는가?

수정기공은 1-3차원에 강압에 준하는 단계가 아닌 거의 힘을 주지 않는 4단계를 지나 과거 설화나 천기누설같이 사랑의 극치인 5단계 재활 단계로 영육간 불편했던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과 희망과 행복을 재활시키는 꿈의 결정판입니다.

◆강 의 일 정 : 매월 첫주 일요일 시작, 1개월 4주 단기코스 (일정변경 가능)
◆강 의 내 용 : 기공을 이용한 사람정비 매뉴얼
◆접 수 인 원 : 선착순 8명 이내.
◆수강 대상자 : 의료인, 물리치료사, 건강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남녀.

1 강 사 : 김문기 원장 (박사 / 한국 신지식인)
2 교 재 : 환상의 통증치유 STT의 4단계와 5단계 기공법 전수
3 강의 장소 : 수원 성균관대학 전철역 앞
4 접수 및 상담 : 010-3463-7806
5 수강료 : 수정기공 수료 및 자격증 취득과정 전화 상담
6 참고 홈페이지 : soojung99.pe.kr

행복이 가득한 효소

세계 최초 꼭꼭 씹어 먹는 효소 「15g의 기적」을 선물 합니다.

병마의 후유증으로 하루하루가 힘드십니까?
몸이 차고 늘 피곤하여 의욕이 없으십니까?
손발이 차고 속이 답답하여 소화가 힘드십니까?

몸속의 독소를 해독 배설시키고, 세포를 재생시켜 보십시오.
무기력하고 힘든 하루하루가 살맛이 납니다.

이런분께 권합니다
● 매일 제를 집전하시는 스님
● 100일 기도 1000일 기도수행을 하시는 스님 및 제가불자
● 피로와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
● 성장기 자녀의 건강이 걱정이신 학부모님
● 수험생이나 입시 준비생



■ 6년근 홍삼과 벌꿀로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36만원
■ 6년근 홍삼과 러시아산 녹용을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100만원
■ 6년근 홍삼과 유기농 커피를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20만원
■ 6년근 홍삼을 진하게 농축 발효한 당치 효소파우더 10g×90호. 60만원

※ 식품법 제11조에 의하여 탁월한 효능과 임상을 전하지 못합니다.

www.행복이가득한효소.com
경북 경산시 옥곡동 80번지 (장산로 1길 5)
1577-0891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1 ~ 3/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2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법정스님, 최인호	여백
3	숫따니빠따 (빠알리원전번역)	일아스님	불광출판사
4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이일야	담앤북스
5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동봉스님	민족사
6	한권으로 읽는 불교 이야기	성기용	운주사
7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법인스님	불광출판사
8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9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월호스님, 배종훈	민족사
10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이제열	모과나무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에서 도반들과 함께 찍은 사진. 원 안에 있는 뒷줄 왼쪽 네번째가 도명 스님.

“마음이 부처니 마음 밖에서 부처 찾지 맙시다”

봄은 가도 꽃은 남아 있네

도명선사법어집간행위원회 지음
우리출판사 펴냄 | 비매품



담연당(湛然堂) 도명(道明) 대선사(大禪師) 열반 20주기를 맞아 법어집인 〈봄은 가도 꽃은 남아 있네〉가 출간됐다.

이번 법어집을 출간한 도명문도회 대표 화암사 주지 동선 스님은 “은사이신 도명 대선사께 법을 듣고 배울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 문인 제자들은 매우 소중한 법연(法緣)의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몹시 아쉬운 것은 도명 대선사의 가르침과 행장이 글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문인 제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 대선사 열반 20주년을 맞아 은사께서 평소 제자들에게 설하셨던 법어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게 됐다”고 밝혔다.

법어집 출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도명 스님의 맏상좌인 화암사 주지 동선스님이다. 스님은 이번 책 출간을 위해 3년여에 걸쳐 전국 사찰에 산재한 은사의 사료는 물론, 문인 제자들과 지인들의 회고담을 수집하는 역할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동선 스님은 문인들이 각자 기억하는 은사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나눠 글로 정리했다.

동선 스님은 “이번 법어집에 실린 법문의 본래의미를 확인해주실 은사가 없다고 하나, 그 본의는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은사 스님의 법어는 고구정녕하여 후학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책에는 평생의 수행 도반이던 큰 스님들의 회고담도 등장해 진한 우정의 훈훈함을 후학들에게 전한다. 행장은 대선사와 평생 도반(道伴)의 정을 나눈 조계종 재심호계위원 정휴(正休) 스님이 썼으며, 법어집 서문은 역시 도반이던 백담사 무금선원 조실 무산(霧山) 오현(五鉉) 스님이 적었다.

무산 스님은 서문에서 “선사는 일찍이 남다른 정진력으로 진체의 오묘함을 알아차린 뒤에는 강호를 넘나들며 대해를 뒤집고, 수미산을 거꾸러뜨리며, 허공을 부수는 기량을 보여주었다.

한때 오대산주(五大山主)가 되어서는 도속(道俗)을 인로(引路)하되 태백준령을 오가는 별과 달과 구름과 바람이 서로 불상관(不相關)이나 또한 함께 어우러지는 이사무애(理事無碍)한 도리(道理)를 보였다. 하나를 물으면 열을 가르쳐주고, 토끼를 보면 매를 날리며, 바람을 보아 불을 놓으니 그 선교방편(善巧方便)은 천하대중을 안지(安之)케 하려는 것이었다”며 도명 스님을 회고했다.

이번 책은 △화보 △서문 △깨침의 법어 △선맥(禪脈)을 찾아서 △도명스님 행장 △탑비문 △연보 △후기 순으로 구성됐다.

‘깨침의 법어’는 도명 대선사가 남긴 주제별 법문을 묶은 것이고, ‘선맥을 찾아서’는 초조 달마 대사에서 임제 의현 선사까지 기라성 같은 중국 선사들의 가르침을 설한 내용을 가려 뽑은 것이다. 법어집 내용을 보면, 도명 대선사는 ‘우주 만법이 한 마음이고 한 마음이 우주 만법(萬法是一心 一心是萬法)’ 임을 간파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깨침의 법어에 실린 〈관시하인(觀是何人) 심시하물(心是何物)〉 내용을 보자.

“마음은 참으로 뚜렷하고 호젓이 밝아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조사들은 한결같이 ‘한 물건’이라 했습니다. 이 마음이 부처이니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맙시다.”

도명 대선사 입적에 대해서도 정휴 스님은 행장서 이렇게 묘사했다. 금조도방하(今朝都放下)/본성원무애(本性元無碍)/무론거여주(無論去與住)/수처진오가(隨處盡吾家)〈오늘 아침 모든 것을 놓아버리니/본래자성에는 걸림이 없네/오고 가는 것을 논하지 말라/이르는 곳마다 나의 집이다.〉

선사는 열반송을 남기고는 옆으로 돌아누운 후 말이 없었다. 1995년 2월 10일 주석처인 보문사서 생멸(生滅)의 한 생애를 마감하고 입적했다.

도명 대선사는 1961년 대구 파계사서 출가해, 1962년 고송 선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법명을 받았다. 이후 1965년 석암 선사에게 비구계를 받았다. 1967년 속리산 법주사 강원서 수학한 뒤, 1978년 대구 남지장사 주지, 1979년 강릉 보현사 주지, 1980년 상원사 주지를 역임했다. 이후, 1984년 조계종 중앙종회 종회의원, 1984년 조계종총무원 사회부장, 1985년 조계종총무원 규정부장을 거쳤다. 1985년 오대산 월정사 주지에 취임했다. 한편, 도명 대선사 법어집은 3월 28일 오전 10시 강원도 고성 화암사서 봉행되는 도명선사 열반 20주기 추모다례제서 부처님 전에 봉안될 예정이다. (033)633-1525

오현스님 서문·정휴스님 행장 집필
법어집, 맏상좌 동선 스님이 출간
3월 28일 화암사서 20주기 다례제

김주일 기자

“얼나로는 부처님과 예수와 내가 하나”

다석 씨알강의

박재현 지음 | 푸른역사 펴냄 | 1만5천원



〈다석 씨알 강의〉는 다석 류영모의 생생한 육성이 담긴 진귀한 현장 기록이자 다석 사상의 진면목을 파악하는 데 특히 중요한 책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다석 사상은 주로 ‘욕망과 생사(生死)의 노예인 제나(自我, ego)서 벗어나 진정한 나인 얼나(靈)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형이상학적 차원의 깨달음에 관한 말씀이었다. 그런데 〈다석 씨알 강의〉에는 철저한 금욕의 삶과 공부를 통해 깨달음에 이른 큰 사상가의 모습만이 아니라, 독재에 반대하고 혁명을 높이 평가하는 민주주의자 류영모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1960년 4·19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다석은 YMCA 연경반 강의서 학생들의 의거에 관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 강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다석은 평생 쓴 일기 〈다석일지〉 외에 스스로 책을 써서 남기지 않았다. 현재 다석과 관련된 책들은 다석이 직접 구술하거나 쓴 것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려는 제자들의 기록이거나 다석 사상 해설서가 전부이다. 다만, 다석이 1956~1957년에 서울 YMCA에서 한 연경반 강의의 속기록 전문을 다듬어 출간한 〈다석강의〉와 1971년 8월 전남 광주에 있는 금욕 수도 공동체 ‘동광원’에서 일주일간 한 강의의 녹음 테이프를 풀어 옮긴 〈다석 마지막 강의〉가 있어 다석의 육성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다석 씨알 강의〉가 다석과 그의 사상을 알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목마름을 풀어줄 수 있게 됐다.

〈다석 씨알 강의〉는 모두 45편의 강의를 담고 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주규식이 1959년 11월 6일부터 1961년 11월 17일까지 다석의 강의 내용을 기록한 노트를 저본으로 삼았다. 매주 금요일마다 열린 종로 YMCA 강의 외에 다석의 자택(은평구 구기동)을 찾아가 들은 강의와 다석이 다른 곳에서 한 강의도 담겨 있다. 주규식은 다석의 말투까지 살려서 적을 정도로 꼼꼼하게 강의를 기록했으나, 속기가 아니었기에 전체 강의 내용을 온전히 담지는 못했다.

다석은 자신이 지은 시조나 한시, 성경 구절 풀이, 사서삼경 풀이를 한지에 직접 적어 와서 칠판에 붙여놓고 강의했다고 한다. 이 책은 주규식의 노트를 바탕으로 하여 당시 강의 내용을 가능한 한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다. 노트에 기록된 내용 외에 추가로 배경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 함께 강의를 들었던 박영호가 풀이 글을 따로 썼다.

다석 류영모는 오늘 하루살이(一日一生)의 철학으로 잠자는 것과 죽음을 똑같이 보고 하루를 평생으로 여기며 매일 죽는 연습을 했다. 그에게 몸의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므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현실에 무관심하고 오로지 죽음 너머의 삶, 깨달음에만 몰두한 초월적 종교가로서 다석을 상상하게 된다. 그렇다면 ‘행동하는 사상가’로서 일평생 민주화

동서고금 종교와 철학 하나로 꿰뚫어
“삶은 사형수의 집행 유예 기간” 주장
55년 만의 강의 45편…노트기록 저본

운동에 헌신한 다석의 제자 함석헌은 사상적으로 스승을 떠난 이단아 혹은 돌연변이였던 걸까? 이 의문을 풀 실마리는 〈다석 씨알 강의〉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실린 민주주의와 4·19혁명에 관한 류영모의 말에서 함석헌의 씨알 사상의 뿌리를 발견하게 된다. 더불어, 다석 사상은 결코 하나의 틀로 규정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세계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류영모는 백성, 민중을 순수한 우리말로 ‘씨알’이라고 썼다. 씨알이란 말은 원래 있던 말이지만 민(民)을 씨알이라고 표현한 것은 류영모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씨알이라는 말을 널리 퍼뜨린 사람은 함석헌이었다. 류영모가 쓴 씨알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다. 싹이 안 튼 씨알은 민(民)의 뜻으로 쓰고, 싹이 튼 씨알은 얼(靈)의 뜻으로 썼다. 이 책에선 민중을 뜻하는 씨알이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다.

다석은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 공자, 노자 등 여러 성인을 두루 좋아했다. 다석은 또한 〈반야심경〉을 때마다 암송할 정도로 불교의 가르침에 심취했고, 〈중용〉과 〈노자〉를 우리말로 완역할 정도로 유학과 노장 사상을 깊이 탐구했다. 그는 동서 사상을 회통시켜 대통합을 이룬 큰 사상가였다.

다석은 여러 성인들에게서 하나의 공통된 진리를 보았다. 하느님이 보내주시는 하느님의 생명인 얼(성령)을 공자는 덕(德)이라 하고, 부처님은 법(法)이라 했으며, 노자는 도(道)라 하고, 예수는 얼(靈)이라고 한 것이 다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름만 다를 뿐 실체는 같다는 것이다. ‘얼나(참나)’로는 예수, 석가, 공자, 노자가 하나로 같다는 것이다. 하느님이 보낸 영원한 생명인 얼나를 깨달으면 우리도 예수, 석가와 같은 하느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다석이 말하는 하느님은 기독교서 섬기는 인간 모습을 한 인태신이 아니라, ‘없이 계시는 님’ ‘빔(空)’ ‘태허공(太虛空)’이라 표현되는 진리의 근원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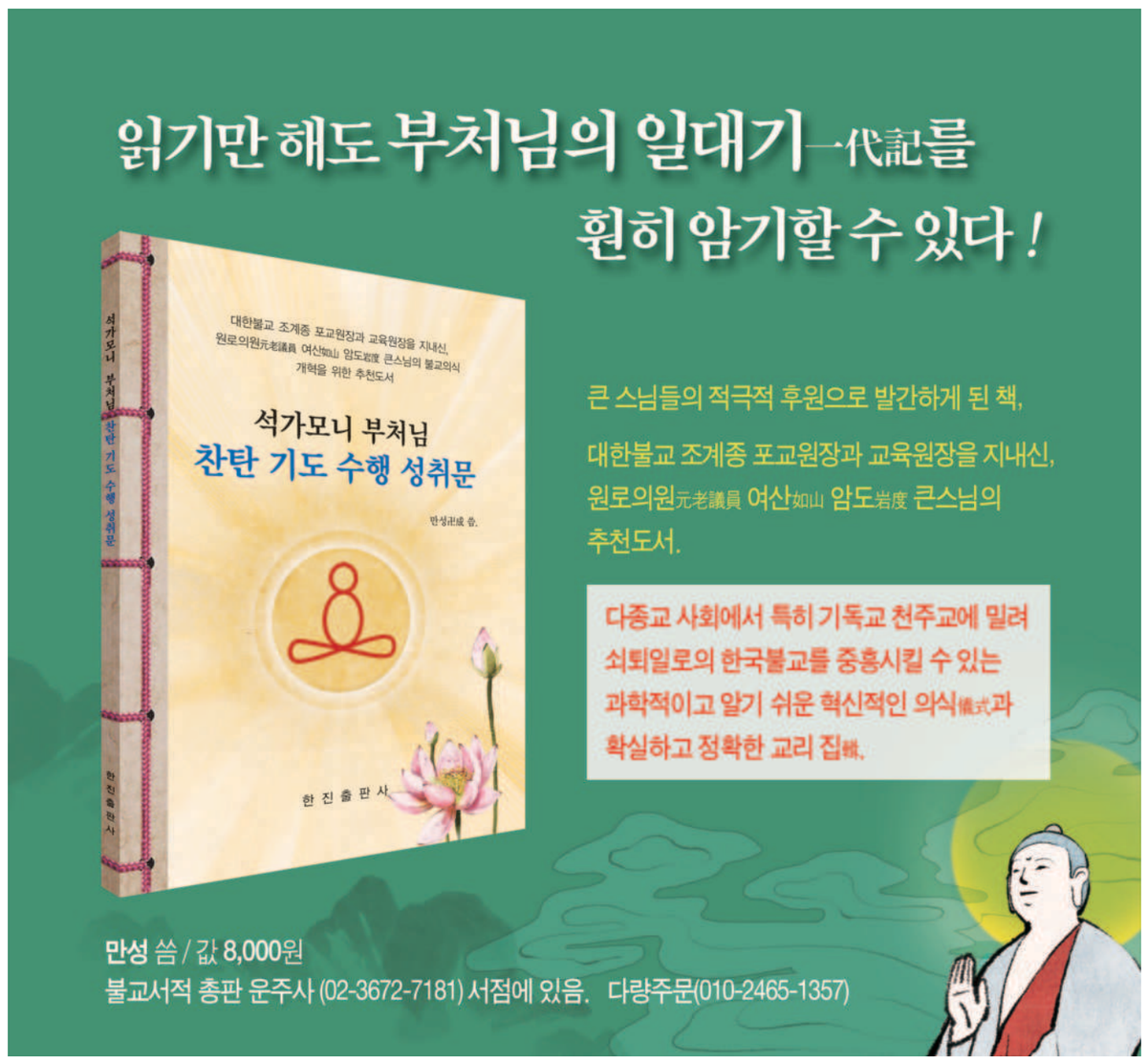
다석은 이 책에서 말한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말씀과 법(法)이에요. 로고스와 다르마가 다를 게 없어요. 진리(法)는 그 이상 더 없으니 이를 믿습니다. 하느님은 진리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아니까 삶(生)의 맛을 참으로 알고 삶의 맛을 참으로 아니까 영생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수신기(受信機)예요. 하늘 방송을 듣는 수신기. 우리는 작지만 작다고 큰 것과 다른 게 아닙니다.”라고.

다석 류영모는 말(言) 속에 진리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다석은 자신이 궁구한 이 세계와 존재의 의미를 서양서 만들어진 철학 용어나 중국 한자가 아닌 순 우리말, 우리글에 담고자 한 최초의 철학자였다. 한학(漢學)의 대가인 다석은 한자 한 글자에 철학 개론 한 권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파자(破字)’를 해서 한자 생성 원리를 밝혀 거기서 철학을 캐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말과 우리글을 아끼게 됐다. 다석은 한글을 소리글자이면서 동시에 깊은 철학과 뜻을 지닌 뜻글자로도 보았다.

이 책에 실린 45편의 강의 내용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 말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알라’라는 말이다. 다석은 1960년 9월 23일에 쓴 시조 〈알라〉를 중요시 여겨 여러 차례 강의했다. ‘알라’는 꼭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빔(허공)이 모든 물질의 근원이면서 참나임을 스스로 깨쳐 알라는 뜻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책 속의 밑줄 긋기

출가수행자도 마찬가지지만 재가신자들에게 특히 강조하는 실천은 자비이다. 불자들이 자비를 실천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보시(布施)이다. 보시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재물(財物)을 베풀고,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베풀며,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베푸는 실천이다.

〈불교와의 첫 만남〉中에서

발심은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불법 만난 인연을 감사히 여겨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되고 큰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즉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려는 마음,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죠. 다음 생도 뗏뗏하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심수행(發心修行)이죠. 발심수행은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고자 수행하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든지 진언을 하든지 화두를 하든지 기질과 인연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나[我]를 버리고 일체중생의 이익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무비스님의 발심수행장〉中에서

Books

불교에 관한 모든 것 이 안에 있다

불교와의 첫만남

불교교재편찬위원회 지음 | 불광 펴냄 | 1만 9천원



지난해 한국갤럽이 조사한 한국인 종교 실태에 따르면, 다른 종교는 연령대별 신도 비율이 고르게 분포된 반면 불교는 20~30대 청년층 비율이 50~60대에 비해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불교는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종교'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젊은층에서 불교에 거리감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책 저자들은 불교 사상체계의 심오함과 지루함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불교의 핵심 교리 및 다양한 응용이론들은 젊은이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방대하고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좀 더 쉽고 불교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책이 기획된 취지이다. 불교의 기초지식을 초심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함으로써 '불교는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젊은 세대들도 불교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불교의 한 측면을 깊게 다루기보다 불교의 교리, 역사, 문화 전반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불교의 정의와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 거시적 관점서 불교 전체를 헤아릴 수 있도록 했다.

초심자 위한 종합 불교 안내서
부처님 생애, 불교 역사 등 소개
참선과 명상의 비교 분석도 실려

책은 총 3부로 나눠져 있다. 1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에서는 종교로서의 불교, 붓다의 생애와 근본 가르침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2부 〈불교의 역사와 문화〉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불교 역사와 문화를 다채롭게 펼쳐 보이며, 3부 〈불교와 현대사회〉에서는 불자의 신행과 실천, 선과 명상, 불교 윤리 등에 대해 다룬다. 말하자면 이 책은, 신앙과 학문과 문화의 차원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초심자를 위한 불교 안내서이다.

우선 좀더 책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1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중 제 1장에서는 불교 및 종교 전반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서술한다. 탈종교 시대로 갈수록 종교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지만 여전히 종교는 우리 삶의 주요한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초월지향성, 이타적 인간으로의 변화, 체험을 통한 안심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종교의 일반적 특성을 설명한다. 뒤이어 종교의 일반적 특성을 모두 가지며, 동시에 인간 중심적 · 자력수행적 종교로서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고 세상에 헌신하는 불교만의 고유한 특성을 밝힌다.

2부 불교의 역사와 문화중 제 4장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들이 많다. 한국불교의 전래와 전개, 시대별 불교의 존재 양상, 불교문화유산에 대해 폭넓게 다룬다.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원효, 의천, 지눌 등 불교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과 그들의 업적에 대해 꼼꼼히 일러준다. 이어서 3보 사찰, 5대 보궁, 팔만대장경 등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문화유산과 불국토를 향한 염원으로 이룩된 경주의 불교유적들을 소개한다.

마지막 3부 불교와 현대사회에서는 고개가 끄덕여 지는 부분이 많다. 바로 우리들 주변의 이야기기 때문이다. 1장에서는 출가수행자와 재가신자의 신행과 실천을 주제로 현대 한국 불자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출가하는 방법, 출가자의 자세, 절집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가신자들의 신행 및 수행 풍토,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신행공동체와 그들의 활동까지 간략히 전한다. 이어 2장에서는 선과 명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먼저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참선'과 '명상'의 관계를 비교검토하고 유형별로 집중 명상, 자애 명상, 통찰 명상, 화두 명상의 수행법과 각각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불교가 서양으로 전파되는 과정과 서양인들이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양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김주일 기자

대강백 무비 스님 언어로 읽는 원효 대사 저술

무비스님의 발심수행장 강의

무비 스님 강설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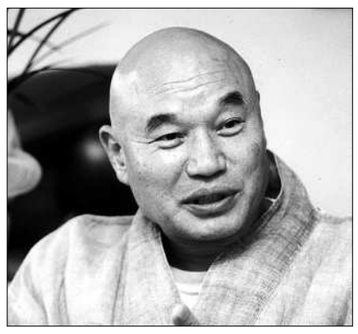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출가를 '위대한 포기'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하고, 가까운 사람을 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마음을 넓게 써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결코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평등심으로써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난행이죠. 정말로 실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인이 해야 할 일이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사는 사람들의 일이죠.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처럼 존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원효 스님은 불교사적으로는 신라를 대표하는 위대한 고승대덕이다. 하지만 한국불교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뛰어난 사상가요 성자로 추앙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상과 저술을 남겼다. 상류 계급뿐 아니라 하층 계급까지 종횡무진 다니면서 교화한 원효 스님의 교화 내용은 발심수행과 화합에 대한 것이 그 중심이다.

그런 원효 스님이 저술한 〈발심수행장〉은 보리심을 발한 사람이 처음 접하게 되는 〈초발심자경문〉에 지눌 스님의 〈계초심학인문〉 야운 스님의 〈자경문〉과 함께 수록된 글로 짧은 분량이지만 보리심을 발한 사람의 수행에 관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첫째는 '발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발심해서 '수행을 한다'는 것으로, 이 글의 전체 내용은 발심과 수행에 관한 말씀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은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을 원문과 함께 해석을 제시하고 그에 이은 우리 시대 최고의 대강백 무비 스님〈사진〉의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무비 스님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에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원효 스님의 원문을 각 구절 별로 나눠, 용어의 올바른 해석과 함께 관련된 경전이나 한시를 인용하고, 옛사람들의 일화를 곁들인 해설을 붙여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속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서의 말미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발심수행장〉 원문과 해석을 수록해 해설을 읽고 이해한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발심수행장〉 원문을 읽으며 내용을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무비 스님은 이 책에서 원효 스님의 가르침과 같이 한때 도인이 되기 위해 솔잎 등 생식을 통해 수행 정진에 임했다며 토로하고 있다. 그만큼 〈발심수행장〉은 초발심자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정성스럽게 컬러를 입히며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되찾자

젠 만다라 컬러링북

데상 앤 똘로라 엮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 3천원



〈젠 만다라 컬러링북: 명상과 집중에 도움이 되는 100가지 색칠하기〉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젠 스타일'이다. 정갈함, 고요함, 평화로움, 자연스러움…. 만다라를 색칠하는 동안 이러한 젠 스타일의 감성을 경험할 수 있다.

젠(Zen)이라는 말은 선(禪)을 부르는 일본 발음이다. 유럽에 일본의 선, 즉 젠이 전해지면서 서구에서는 '젠=선 · 좌선 · 명상'이 되었다. '젠 스타일'이란 말이 패션과 건축을 비롯해 생활 전반에서 통용될 정도로 젠은 이제 대중적인 용어가 되었다.

만다라에서 기하학적 패턴까지
완성도 높은 밑그림 100가지 수록

〈젠 만다라 컬러링북〉이 젠 스타일의 감성을 전하는 원동력은 '만다라(Mandalas)'에 있다. 만다라는 고대 인도에서 발달한 원형 그림이다. 티베트에서는 불교수행의 하나로 전해져 왔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명상과 미술치료 도구로 사용돼 왔다.

원형 특유의 안정감과 균형의 미를 갖춘 만다라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이러한 만다라를 색칠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런저런 걱정이나 두려움,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된다. 색칠 자체에 집중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진다. 만다라 색칠이 명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세기 초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만다라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혀내며, 만다라를 심리 치료에 활용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성인은 물론 어린이와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만다라 미술치료가 활발히 진행된다.

〈젠 만다라 컬러링북〉은 프랑스에서 왔다. 프랑스판 〈비밀의 정원〉으로 유명한 컬러링북 〈네이처〉를 펴낸 '데상 앤 똘로라(Dessain Tolra)'가 만들었다. 컬러링북으로 명성이 높은 출판사의 책답게 〈젠 만다라 컬러링북〉 역시 밑그림 하나하나 정교하고 세밀하다.

〈젠 만다라 컬러링북〉에 수록된 밑그림은 총 100가지. 밑그림의 소재가 다양해 지루할 틈이 없다. 원형의 아름다운 만다라를 기본으로 선 중심의 패턴, 기하학적 패턴, 페이즐리 패턴, 꽃과 나무 · 새 같은 자연 패턴까지. 단 한 권으로 다양한 소재를 두루 접할 수 있으니 지금까지 나온 컬러링북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책의 모양과 만듦새 역시 기존의 컬러링북과 달리 튼튼하며 고급스럽다. 양장 표지로 튼튼하게 만들어 책을 자주 펼치거나 오래 펼쳐 놓고 색칠해도 늘 새것 같다. 또 표지에 원형의 특수 가공을 더해 고급스러운 멋이 살아 있다.

김주일 기자



화제의 책
神이 내려주신 선물
손과 얼굴보는 법

손과 얼굴은 운명을 결정 한다.
가장 쉽고 정통으로 알고 싶지 않은가?

♣ 타고난 인상이란 그 사람의 자체이며 정보가 된다. 그래서 손과 얼굴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되므로 현대인들에게 관상술은 성공의 비즈니스라 하였다.
♣ 리더는 반듯이 관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알고, 상대방까지 알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먼저 좋아진다. 그래서 인상학이란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들여다 보는 거울이다.
♣ 이 책은 손과 얼굴을 좀더 많이 알게 한다. 당신의 미래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 "손과 얼굴 보는 법"은 인상학을 정통으로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 손과 얼굴은 대박이다.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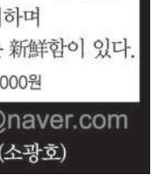


전국 서점 판매중!

■ 송월스님 지음 / 사륙반판 / 양장본 / 312쪽 / 정가 17,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격국格局과 용신用神으로 운運보는 법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쩍이는 지성, 만물을 꿰뚫는 투시력, 특히 풍부하고 살아있는 경험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청산 김성진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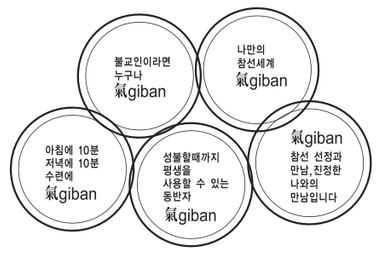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외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돈점론 적용한 유교와 불교 사상 '회통'

불교로 읽는 古典

왕용계의 〈사무설(四無說)〉



박길수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교수

왕기(王畿, 1498~1583)는 명대(明代) 중기의 저명한 학자로 자(字)는 여중(汝中)이고, 호(號)는 용계(龍溪)이다. 그는 젊은 나이에 진사 시험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이후 관직 생활은 채 2년이 안되며 나머지 40여 년의 생애를 오직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힘을 쏟다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이후 명대의 문인인 장여림(張汝霖)이 왕기의 행적과 저작들을 교감하고 1615년에 〈용계왕선생전집龍溪王先生全集〉을 간행하였고, 2007년에는 중국의 봉황출판사(鳳凰出版社)가 표점본 〈왕기집王畿集〉을 출판하여 학계에 활발한 연구를 촉진하였다.

일반적으로 왕기에 대한 기존의 학계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둘로 나뉜다. 하나는 그의 사상은 전형적인 원불입유(援佛入儒), 곧 불교 사상을 차용하여 유학을 새롭게 구성한 사상이므로 순정한 유학 사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견해들로 명대의 양명학자 가운데 오직 왕기만이 양명학의 정맥(精脈)과 학리(學理)를 계승하여 이를 사상적으로 보다 완정하게 발전시켰다는 평가이다. 필자는 이러한 상반된 평가 가운데 후자의 평가가 더 타당하다고 본다. 문제는 왕기의 사상이 이처럼 상반된 평가들을 받게 된 배경에는 그가 제시한 유불도(儒佛道) 회통 사상과 사무설(四無說)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불도 회통은 왕기 사상의 원만성과 원융무애한 철학 정신을 잘 보여주며, 또한 사무설은 그의 고원한 철학적 자각과 실천을 여실히 시사해준다. 주지하는 것처럼, 사무설의 연원은 그의 스승인 왕양명(王陽明, 1472~1529)의 사구교(四句敎)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명은 일찍이 천천교(天泉橋)에서 최후의 정론을 다음과 같이 설파한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마음의 본체이다.
(無善無惡心之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이 의념의 일어남이다.
(有善有惡意之動)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이 양지이다.
(知善知惡是良知)
선을 행하고 악을 없애는 것이 격물이다.
(爲善去惡是格物)

또한 양명은 두 가지 교법을 소개하면서 상근(上根)의 사람은 무선무악의 심체를 곧바로 깨달을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심체를 곧바로 깨달을 수 없으므로 유선유악의 단계로부터 출발하여 점진적인 공부를 통해 심체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양자를 겸할 것을 강조한다. 이 두 가지 교법(敎法)을 흔히 돈교(頓敎)와 점교(漸敎)라고 한다. 돈교는 곧 돈오(頓悟)에 기초한 계도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최고의 자질을 지닌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본체를 곧바로 자각하게 하는 수양법을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점교는 곧 점수(漸修)에 근거한 수양법으로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점진적인 공부를 통해서 점차 마음의 본체를 체인해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를 본체와 공부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면, 결국 돈교는 본체에 대한 자각 위에서 공부를 견지하는 것이고, 점교는 공부의 견지 위에서 본체를 자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왕기는 사물설을 제시하고, 교법과 관련해서는 돈교의 입장을 견지한다.

본체의 은미함과 작용의 드러남은 다만 동일한 기틀일 따름이고, 심(心)·의(意)·지(知)·물(物)은 다만 한 가지의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심이 무선무악의 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의는 곧 무선무악의 의이고, 지는 곧 무선무악의 지이며, 물은 곧 무선무악의 물이다. (〈**용계왕선생전집**〉 **1권, '천천증도기'**)

왕기는 수미일관 엄격한 학리(學理)에 근거해 스승이 제시한 사구교의 궁극적 종지는 필연적으로 사무설이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사구교의 첫 번째 구절에서 심의 본질과 특징을 무선무악으로 규정한 이상 심의 기타 속성과 활동 역시 이러한 무선무악의 본질을 구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또한 본체의 시각에서 본심·의·지·물을 각기 무심지심(無心之心), 무의지의(無意之意), 무지지지(無知之知), 무물지물(無物之物)로 정의한다.(〈용계왕선생전집〉 1권, '천천증도기') 그러면 심의 본래면목으로서 무선무악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마음에는 본래 악이 없기 때문에 의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비록 선이라 하더라도 그 명칭을 얻을 길이 없으니 이것을 지선(至善)이라고 한다. 의념이 일어나는 순간 곧 망념이니 비록 선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본심을 떠난 것이니 이것을 의습(義襲, 곧 인위적으로 지어낸 선)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참과 거짓이 구별된다. (〈**용계왕선생전집**〉 **5권, '자오정사회어'**)

왕기가 말한 무선무악이란 근본적인 제약성을 지닌 사고에 기초한 상대적이고 경험적인 선악 개념을 초월했을 때 비로소 체증되는 것이며, 이때 현현하는 본심은 선악을 모두 여의었으므로 진정한 지선(至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본심이며 이에 도달하려면 무엇보다도 '불기의(不起意, 의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왕기는 의념에서부터 발생하여 정립되는 선악의 가치는 철저히 부정하지만, 이러한 상대적인 선악을 초월하여 마음의 본체에서 구현되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선의 실재성은 긍정한다. 이것은 마치 불교가 삼라만상의 실체적 자성(自性)은 부정하면서도 궁극적 본성으로서 불성(佛性)은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왕기가 심의 본질과 관련하여 이처럼 독특한 본체론(Ontology)을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불교의 본체와 공부에 대한 그의 철저한 체험과 자각이 전제되어 있다. 먼저, 왕기는 유학의 종지로 '깨달음(覺)'을 제시하고 그 대상이 '공(空)'임을 강조한다. 곧 최상의 깨달음은 곧 무를 자각하는 것이다.



왕기의 모습을 그린 중국대사전속 삽화. 왕기는 불교수행에 근거한 견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유불도 회통론을 제시했다.

돈점 논리 바탕한 양명학의 적자
무심지심, 무선무악 등 제시
'본체가 곧 공부'라는 공부론 펴내
유교와 불교 회통… 두 사상 결합



현전하는 본체는 마치 공중을 나는 새의 흔적이나 물에 비친 달의 그림자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가라앉은 듯 떠 있는 듯 하며, 그것에 대해 논의하자마자 곧 어그러지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어느덧 등 뒤에 있어 신묘한 기틀로 묘하게 응한다. 그 본체는 본래 공하니 어디로부터 그것을 인식할 것인가? 이 지점에서 깨달아야 비로소 형상이 없는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황종희,〈명유학안〉 12권, '절중왕문학안'**)

다시 말하면, 늘 시시각각 현현하는 마음의 본체는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신묘한 기틀과 작용을 구현하는 무형상의 공(空)으로서 언제나 상대적인 유무(有無)의 경계를 넘어선다. 따라서 이러한 본체를 자각하는 데에는 특정한 방법이 없으며 오히려 본체의 이러한 본질과 특징이 언제나 현전한다는 실존적 상태를 자각할 때에만 비로소 마음의 본체를 명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왕기는 이러한 본체를 자각하는 공부법으로 돈점(頓漸)을 제시하고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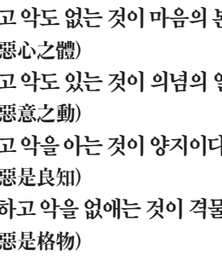
본체를 깨닫는 방법에는 돈오도 있고 점오도 있으며, 공부에는 돈수도 있고 점수도 있다. 모든 실마리를 한꺼번에 잡아 일거에 끊어 버리는 방식은 돈오·돈수의 방법이다. 싹이 자라서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방식은 점오·점수의 방법이다. 때로는 깨달음 가운데 공부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도 하며, 때로는 급진 가운데 점진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점진 가운데 급진이 있기도 한다. 이것은 근기에 총명과 우둔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만, 그 결실에 이르러서는 동일하다. (〈**용계왕선생전집**〉 **2권, '유도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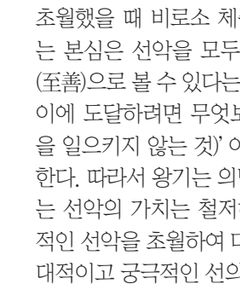
여기서 왕기는 불교의 본체론과 수양론에 대한 깊은 체험을 토대로 돈점(頓漸)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공부에만 돈점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체의 자각 활동에도 돈점의 구별이 있으며, 또한 본체와 공부는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내함(內含)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타고난 근기의 차이에 따라 본체와 공부 수준에 돈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모든 공부는 그 자체로 본체의 주재 활동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본체의 자각이라는 차원에서는 실제적인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견해들은 왕기가 유학과 불교의 본체론과 공부론에 대한 철저한 체험과 양자의 종합을 통해 '본체가 곧 공부'이고, '공부가 곧 본체'라는 보다 원만하고 고원한 학문 경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처럼 본체와 공부가 완전히 융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공부가 곧 '공부가 없는 가운데 드러나는 참된 공부(無工夫中眞工夫)'인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일찍이 성학(聖學)의 최고 이념과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도 없고 불선도 없는 것을 지극한 선이라고 하며, 일정한 법도도 없고 일정하지 않은 법도도 없는 것을 참된 법도라고 하며, 미혹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것을 철저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 유학의 불이(不二)의 근본 종지이니 하늘이 내려 주신 성인의 최상의 학문이다. (〈**용계왕선생전집**〉 **17권, '불이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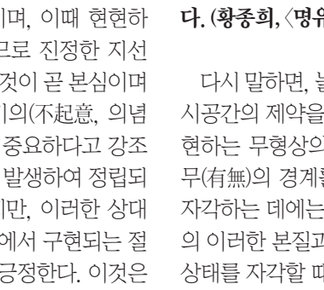
위의 글에서 우리는 왕기의 사유 방식과 사상 체계가 근본적으로 유학과 불교 사상의 창조적 결합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의 불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의식과 관심이 유학과 불교에 대한 단순한 교판(敎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 사상이 지닌 고원한 가치와 장점을 창조적으로 회통하려는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보다도 실존적 인간의 본질과 특징을 보다 더 명료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수양 체계를 건립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볼 때, 왕기와 관련된 전통적인 이단 논쟁은 피상적이며 심지어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새롭게 창조한 사상이 고금의 현실에서 얼마나 여전히 적실한지를 깊이 살펴보는 작업일 것이다.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칠성상회
02-879-2007
무료배송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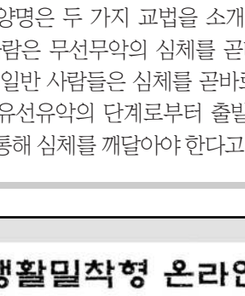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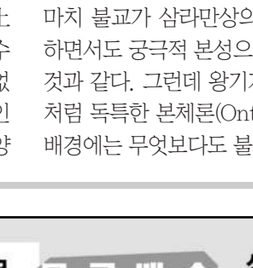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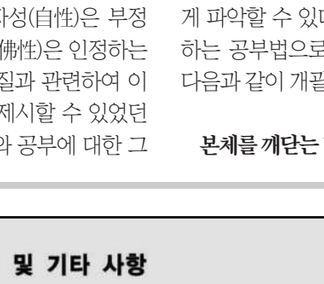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엑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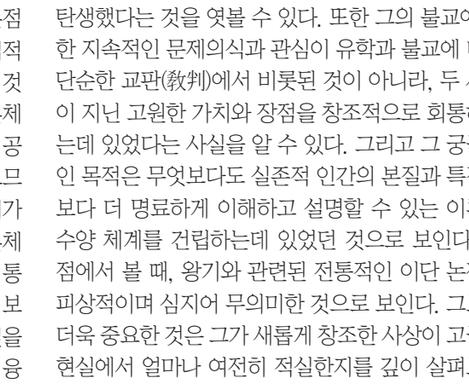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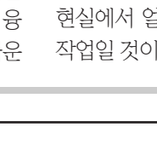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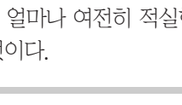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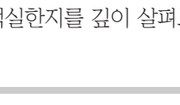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듯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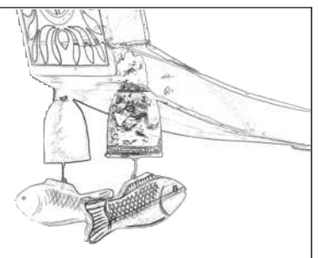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약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라.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온하다.

- 유교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031-842-1070
010-9944-1075

암 병고액난 상담치유
암, 간질(천병), 정신병(미친병),
귀신병 등으로고통받고 계신분 과
풍파가 많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분 치유상담
불광사 해산 스님
010-7321-0404

실전 방편술
명리와 귀장술 - 1개월 완성
기 초 를 알 면 - 1주일 완성
사찰운영 하시는 스님, 보살님
무속인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 성불을 받는가?
정확하게 답해 줍니다
호산 합장 010-5960-4984



침구술 배우실 분
명 리 배우실 분
개인지도
(활인사 주지 직강)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2번출구
02)3487-2311

청 소
- 이사, 입주, 상가, 공장, 사찰 청소
- 제초, 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8986

우주광명 기(氣)천도재
사바세계최초 "재물(음식)을 차리지 않고 목탁, 염불"을 하지않는 우주광명 신통력 기천도재
각종질병,우환,업장소멸과 완벽한 조상천도 / 장애로 인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움 해결 / 가장빠른 깨달음과 해탈 사후 극락왕생 / 아미타불 일광부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우주 기천도재
우주광명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인과의 업장소멸 해법
만사만생의 고를 풀어가는 글문비방
- 불치병(병명無)
- 빙의(신병)
- 사업,소원,가정사상담
- 알수 없는 풍수탈
- 인생의 고는 인생방정식의 해법으로 답을 찾자
- 번뇌 해탈은 불정사에서
불정사 도정 치우 합장
051)558-5585.010-4593-2918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경덕사, 밀양 삼봉사)
010-4484-57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해남)
061-534-1304
010-4422-8250

주지 원합니다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불사가 어려운 사찰을
무보시로 도와 드립니다
스님 도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세요
(60대 비구승)
010-5699-4848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도심속의 조용한
비구니도량. 기도하며
공부하실 스님 환영!
010-9340-3921

공양주 보살님, 일 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65세이상)
(울진 영명사)
010-2078-9595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양산 물금)
010-3647-0018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학인스님 가능)
(경주)
010-3746-8887

적은보시금받고
부전으로 계실 비구스님
(김해, 60-65세까지)
평생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010-3499-3721

공양주 보살님, 사무장
(女, 유경험자 우대)
(도봉산 천축사)
010-6253-387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010-4450-2500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여법하게 염불하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안양, 50대)
031-471-6675

빈절, 관리하기 어려운 절
절충하여 관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주 풍수에 능함)
현재 조계종 사찰에 있음
010-7121-94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에니멀 에너지 힐링 세미나
*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 반려동물의가벼운 병과 나쁜 버릇을 스스로 치료해주어 마음 고생을 덜으세요. 여기와서 (디바인 하트) 라는 기 에너지를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시간 : 오전11시부터 ~ 오후 4시, 교육은 단 하루에 끝납니다
* 교육비 : 20만원, 미리 예약필요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 02)720-5682. 010-8392-2557

구성학 인연관법 (8주) 특강반 (4월 21일 화요일 개강)
- 구성학으로 개개인의 인연법에 맞는 조상 천도제, 칠성제, 젊은 영가 천도제, 태아령제, 빙의 등의 제(祭)를 한눈에 찾는 방법
- 1년 운세 및 한달 운 쉽게 통변하는 방법 - 각종 택일 쉽게 찾는 방법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2시간씩) 16주간
* 구성학 전문술사(32주)과정(4월 23일 목요일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2시간씩) 32주간
* 현공풍수 양택(32주)과정(4월 23일 목요일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2시간씩) 32주간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010-5116-9313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성학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불 교 의 식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점안식,
각종행사를 봉행합니다
범음범패, 바라춤, 작법무,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다보사 주지 성원 합장
010-4802-3290

사람을 찾습니다
전원생활하시며 노후를 즐겁게 보내실 분. 비구, 비구니, 불자님
45 ~ 65세 부부환영. 신축주택 무료사용. 경우에 따라 식사 제공 가능.
김천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면 소재지 부근 계곡물 콸콸,
남향집이며 시내버스가 집앞에.
- 주변여건 : 대형 복숭아, 자두, 표고, 감나무 정원
- 조건 : 3천만원 이상 투자 가능한 분, 투자가치 확실하며 등기도 가능합니다
현재 비어있는 세 집이 있으며 수백평 정원이 정리되어 있고 마당에 잔디,
주차장 완비 총면적 약 3천평이며 유실수 등 텃밭도 있습니다.
기타 상세문의는 전화요망.
전화 010-9923-2452 / 팩스 054)434-2452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송림사
- 주 지 : 향조 (김진)
- 사찰주소 : 경남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271-4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무료공개강좌

(연결카페 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3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 대 상 : 명리왕초보반 (영가기초 포함)
영 가 특 강 반 (포교원 운영자)
■ 강의내용
① 한 맺힌 조상 찾는법, 조상(귀신)이 발동한(대,세운) 것을 아는 법
② 천도는 얽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서 해야 효험이 빠르다.
③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으며 영가를 정확하게 뽑아낸다.
④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⑤ 신경성, 우울증 등으로 마음안정이 안되거나,
공부가 안되는 학생

명리왕초보반강좌
- 듣기만 해도 기억되는 쉬운오행풀이, 한자 몰라도 됨
- 기초반 2개월과정 모집 - 수강료 2개월 30만원
- 기초가 없으신 분은 초보반 수강후 영가반에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010-9150-2284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 (성대시장 성대마트앞) - 동작구 상도동 315-5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나 여래는 오직 길을 가리킬 뿐이니 그 길을 따라가고
가지 않는 것을 나인들 어찌하겠는가.

- 중아함경 -

사 찰 안 내

▶ 바다조망 토굴 터 안내◀
- 위치 : 거제시 바다조망 최고
- 총부지 : 526㎡ • 가액 : 3800만원

▶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위치 : 순천시 낙안온천 부근
- 법당 : 61.8㎡ 석담조 기와지붕
- 총부지 : 5,000평(종교용지 186평)
- 가액 : 3,500만원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안내◀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 15평
- 총부지 : 1,900여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여년 전 벽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석물 30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만원 인수 (은행 5억 별도)

※전국사찰 30년 역사※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도심사찰 양도
- 목조법당과요사채(방사7).산신각.창고
- 토지 730㎡ 납골터.텃밭.주차장.노천불
- 양도금액 : 5억6천만(융자 2억)
- 원주 횡성 5분거리. 최고위치임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010-5369-4154 (창건주)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소재
- 종교용지 및 대지 약 59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2동
- 가액 :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900만원

010-9988-724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 위치: 서울
◎ 부지: 100평 ◎ 대지: 40평
◎ 법당: 50평, ◎ 법당: 30평
◎ 요사: 120평 ◎ 요사: 40평
◎ 양도: 15억 5천 ◎ 양도: 4억 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경주시 계곡접(폭포) 관광사찰 양도
* 요사건물80㎡,스님실79㎡, 법당,산신각 등 건물 5동
* 토자 6.400㎡ 법당.산신각기와 단청됨.바위계곡접
* 양도가 : 12억(주차장. 전설과 문화재 급 있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주차장 100평,
- 기도하기 좋은곳, 산세가 좋고 물 맑은곳. 송이, 능이 많은 곳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571-655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3층 건물 3층
- 약사여래불
- 주차편리한 대로변
- 포교에 최적지이고 완벽한 시설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9203-3368

도심 속 사찰안내

- 위치:안산시 단원구 신고잔 로데오거리
- 5층 건물 중 5층
- 총 150평에 실평수 75평 마당에 조립식 건물 두동(2동)
- 현재는 부처님 모셔져있지않음 주위에 300전세대 아파트 입주
- 방4개, 화장실2개 엘리베이터, 복도 남녀화장실
- 양도가액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010-9000-2291화주보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기가 막힌 명당터"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621, 621. 623
- 가셔서 느껴 보신후 전화 주세요

010-3519-5939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대봉동 729-2
- 1층 15평, 2층 15평 합 30평
- 가액 : 보 500만 월 35만
- 보, 시, 물 합 1,700만원

010-2878-338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근교
- 대지1000평 임야 2000평 총 3000평
- 건물 5동 타종 1총 6채
- 양도가 : 15억

상담문의전화 :

010-9818-09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 40평
- 대웅전1, 서재1, 큰방 1, 작은방1, 주방겸 거실 1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108소불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 시설비는 협의 가능

010-8653-321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천마산 감천동 버스정류소 앞 큰 도로변 자가용으로 송도 해수욕장 3분거리
- 2층 약 60평, 위치 환경 특 A급
- 큰법당,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용왕단, 산신각, 영가단, 포대화상
- 큰공양간, 방3, 샤워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2천500만원

010-7337-172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법당 : 목조 18평
- 요사채: 목조 30평
- 전각 : 목조 3동
- 기타 부속 건물 3동
- 부지: 전, 임야,대지-약 1890평
- 양도가액:4억5천만원

011-854-9559

꼭 매입할 의사가 있는분만 연락주세요

부산 온천장 중심 법당

- 2층 공양실, 방 2개(약 50평)
- 3층 법당, 방 1개(약 50평)
- 100% 살림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2천만원
- 월세 : 일백십오만원
- 시설비는 거의 없음, 보시고 결정

010-4010-4070

포교원 안내

- 위치 : 춘천시 동부시장 내
- 2층 50평, 삼존불, 산신각,
- 살림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010-9235-7513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법당 24평,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571-1번지 선경복합상가 4층
- 평수 55평(법당, 거실, 부엌, 화장실, 엘레베이터)
- 전세 : 2000만원에 달세 8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955-4978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북부동 소재
- 삼존불, 방 5, 공양간
- 평수 85평
- 가액 : 전세 4,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백만원 (절충가능)

010-8384-775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동
- 전체 75평, 건평 24평(작은 텃밭)
- 1층 방3, 주방, 욕실, 마당해수관음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시설일체완비)
- 시장안에 위치해 포교하기 좋음

011-9542-825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임) 요사채 2동
- 시설 완비
- 가액 : 3억

010-3508-771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청평한옥안내

- 위치: 청평
- 대지 :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큰방1, 작은방 2개 중 하나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

직거래 010-9411-5302

사 찰 안 내

- 위치: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건평(법당, 요사) : 329.4㎡
- 창고, 기타 : 약 15평 외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되어 있음
- 석등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5천

010-7582-009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 삼존불, 후불탱화, 산신, 용왕, 신중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집기 일체 800백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스님 건강상)

010-9036-115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 산중의 청정도량 명당의 사찰입니다
- 답사하시면 후회 안함
- 가액 : 3억 8천만원

011-9973-0836

참 토 굴 안 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연수로 44번길
- 건물 : 벽돌조 와즙 독채
- 법당, 극락전, 신중, 영가단, 산신, 용신, 기도, 시설완비, 방 2개, 접견실 외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오전 기도 관계로 정오 12시 이후에 전화주세요

010-2064-050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법당, 관음전, 종각
- 요사채, 방은 총 13칸 공양간, 창고, 차고 외 부화장실 등등
- 건물은 총 13동 대형버스주차 5대 소형차 주차 20대 등
- 가액: 3억 9천만원
- 스님 건강 문제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150-22(청용안 1길 4)
- 전통기와 한옥건물 대지106평, 건평52평,법당 22평,거실,방3, 후불탱화 4×8 1점
- 신중탱화 1점, 대리석 법단, 태양광 발전설치
- 가액 :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4705-7711

010-6252-7711

사 찰 안 내

- 위치 : 홍천군 홍천강 상류, 경치 좋음. 경춘고속도로 경유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종교부지 312평, 대지 200평, 목조법당 30평
- 요사채 : 30평
- 가액 : 2억 6천

033-434-1365

010-2665-9978

명당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오대산
- 법정스님 집필 하시던 주변 50M 거리
- 좌청 우백 안산이 완벽 수려한 삼길육수
- 1,000평(대지 100평 포함)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십시오

010-2678-0727

사찰 최적지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282-8 남포저수지 앞
- 옥마산 정기를 받은 사찰
- 법당 외 부속건물 3채
- 건평 52평, 토지 377평
- 가액 : 3억 2천만원(주인직)

010-6444-4252

041-934-8497

사 찰 안 내

- 위치 : 소백산 부용봉 산하(예천군)
- 산사 평수 2,000평, 대웅전, 지장각, 산신각 요사채 1, 주거공간 1, 창고 1
- 사찰 옆 과수원 1,550평을 택지 부지로 조성해 놓았음
- 텃밭 300평, 시가 억대 되는 소나무 6그루 정도 있음
- 사찰까지 진입로 포장 되어있음

※ 경치 최고로 오셔서 보시면 대만족 하실 것입니다

- 가액 : 4억 5천(절충가능)

010-5203-1326

010-8829-63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곡성 3대명산 설산
- 산 42,566㎡(약 1만 3천평) 종교부지 2,161㎡(650평)
- 건물 : 72㎡(21평), 54㎡(17평), 41㎡(13평) 각각 경량 철골 판넬
- 식수 : 암반, 지하수
- 특징 : 사찰, 연수원, 별장, 전원주택
- 광주광역시 20분거리
- 가액 : 3억 8천

010-7732-2378

명당사찰 터 안내

- 위치 : 포천 왕방산 대진대학 우측 중앙 위치
- 군신동조 혈자리 금시발복 거부장자 문무겸전 터
- 대지 300평, 1층 100평, 2층 100평
- 가액 : 8억 5천

010-9292-311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소양리 22-31
- 대지 1,240평
- 산식각, 미륵불, 요사채 없음 암반수
- 가액 : 9,000만원

010-3763-2809

토굴안내(전세)

- 위치 : 하동군 북천면
- 방 3개, 창고 2개
- 가액 : 전세 100만원 (월세 없음)
- 시설비 100만원

010-9632-8686

포교원 안내(전,월세)

- 위치 : 진주시 상봉동 2층 진주시내 5분거리
- 큰방 2개, 작은방 1개
- 베란다, 거실 넓음
- 가액 : 1,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00만원

010-9632-868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하철 부근)
- 평수 : 약45평
- 법당, 방3, 주방, 욕실
- 가액: 보증금 4,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후 협의 (엄청 싸게 드립니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505-0101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성당동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소불
- 영가단, 종, 음향시설, 냉 난방기, 조명 등 집기일체
- 2014년 11월 신조성,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2차선 대로변 2층,
- 가액: 보 300만 월35만, 시설비 1,200만원 합 1천 5백만원, 절충 없음, 방없음

053-651-15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양산시 남부시장내
- 평수 : 34평
- 보증금 2,000만원 달세 25만
- 보증금 3,000만원 달세 15만
- 전세 5,00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합니다
- 부동산은 연락 자제 해주세요

010-9906-966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 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돌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기와형 약32평, 근린생활시설 사찰 (개인등기 법적 보장)
- 대지: 약 100평(도지료 년 35만)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화장실
- 여건: 큰길변 남향(현대식 시설)
- 가액: 3,850만원

010-7295-125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가 3층 48평
- 아파트 밀집, 재래시장 인근
- 시설 : 법당, 거실, 방2, 주방완비,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45만원 시설비 상담후 조절
- 불사관계로 저렴하게 양도

010-3102-532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근방 포교원
- 2층 건물중 2층
- 사용면적 60평 옥상전체 사용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 답사후 시설비 절충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 87-5
- 건물 2동 201평
- 가액 : 평당 38만원

* 야콘 고추장 특허 때 2억 *

010-3595-9856

행복해지는 연습

쵸감 트룽파(티베트 승려)

〈6〉 프라즈나 :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다

“분별심 버려야 전체를 볼 수 있다”

나로파는 승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당신들은 명상센터 회원이 되었다. 나로파는 승원의 일원이 되었고, 그것은 당신이 이곳 명상센터의 일원이 된 것과도 같다. 그러고 나서 매우 흥미롭게도 수행을 하던 중 당신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공격심이 일어난다. 거대한 분노와 원망이. 그런 공격심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뿌리를 찾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이 공격심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어떤 꼬임에 넘어가 수행 환경의 일원이 된 데서 나오는 공격심이 있다. 그 공격심은 만사형통, 즉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런 공격심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실은 거대한 자각이 있다. 거의 명상 수준에 가까운 공격심과 원망에 대한 몰입이 일어난다. 당신은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명상 선생님이 당신에게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 부당한 수련 과제를 주어서,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 등등 말이다. 어느 정도 역겹기도 하다. 그래서 수행 도중에 가끔 그만둘까, 이곳을 떠날까 하는 생각도 일어난다. 그리고 당신이 떠나는 장면을 아주 자세히 마음속에 연출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망설임도 있다. 어떤 경우는 떠나는 일 자체가 너무 커 보여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가 겁나기도 한다.

이 모든 종류의 공격심이 다 우리가 고통과 고통의 진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도, 더 이상 잊어버릴 수도 없는 확실한 것으로 깨닫기 시작한 후에 일어난다. 이 고통은 실제 고통이다. 당신이 이를 체험하는 것은 당신이 배운 가르침이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당신의 실제 고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당신은 감옥에 갇혀버린 기분이 된다. 당신이 발견한 것이 이 책에서 배운 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고통의 존재를 깨달음으로써 이렇게 갇혀버리는 것은 전혀 유쾌하지가 않다. 동시에 당신이 실로 진리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가망성이 있지만 행복한 결말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 상황은 생각할수록 점점 더 끔찍해진다. 그것이 바로 공격심이 가는 행로이다. 당신은 무언가가 원망스럽다. 세상이, 또는 책이, 사람들이, 환경이, 삶의 방식이 원망스럽다. 동시에 당신 자신의 존재가 원망스럽다. 당신 자신이 고통의 창조자이며, 당신은 그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점점 더 암울해진다.

발을 뻗어 가장 가까이 있는 탁자나 의자를 발로 걷어차 보아도 별로 시원해지지 않는다. 동료들에게 무례하게 굴어보아도 마찬가지다. 웬일인지 음식을 트집잡아보아도 별로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다. 불가피한 우울증, 알 수 없는 암울함, 그것도 매우 막강한 우울함이 분노와 원망과 함께 찾아온다.

당신은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질문해본다. 이것은 나쁘다고도 좋다고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있다. 그것은 분명 존재한다.

그 모든 분노와 원망과 고통, 우울함과 성적 불만과 금전적 문제, 즉 우리 머릿속을 빙빙 맴도는 온갖 것들은 한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 한 가지 좋은 메시지, 진정 좋은 메시지, 우리 안에서 이제 막 발견하려는 보석이 하나 있다. 그것이 고통을 없애주고 행복을 가져온대서 좋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미묘한 고통이지만 동시에 거대한 보석이며, 그 안에 엄청난 풍요와 놀라운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그것의 이름은 지성이다. 당신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 무언가를 탄생시키려 하지만 낳을 수 없는 고통은 바로 지성이 이제 막 태어나려 한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이다.

나로파의 경우 그는 승원 안의 비좁은 방에 갇혀 있었다. 전통적으로 수행자에게는 사방 8자(3m)의 방이 주어진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정에 잠자리에 든다. 승원의 안마당에서는 밤중에 커다란 죽비를 든 스님이 지켜서서 모든 사람이 졸거나 자지 않고 공부하는지, 경전을 외고 있는지 감독한다. 나로파는 석유램프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독서를 한다. 경전을 읽고 외고, 그 내용에 관해 명상을 한다.

승원 안에서 유일한 기분 전환은 공부하는 과목이 바뀔 때나 명상 기법을 바꿀 때뿐이다. 당신은 명상을 한다. 이윽고 종이 울린다. 그때 당신에게 유일한 휴식은 공부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공부를 한다. 그러다가 종이 울리면 유일한 휴식은 명상으로 되돌아가는 것뿐이다. 승원 안에서의 식사는 뭐 대단할 것도 없다. 실은 마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규율 담당 스님이 언제 어느 때 나타나서 마음챙김이 부족하다고 질타할지 모른다. 뛰지도 달리지도 못한다. 마음챙김 속에서 걷고 조용히 이야기한다. 소리를 질러도 안 된다. 심지어 낙서조차도 안 된다.

나란다대학에서의 삶은 매우 위엄 있고 본질적으로 건전했지만 동시에 매우 고된 삶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원망은 프라즈나를 가져온다. 나로파와 아티샤 및 사라하 처럼 당대의 많은 위대한 스승들이 다 그런 환경에서 배출되었다. 원망이 프라즈나로 바뀌는 것이다.

프라즈나는 산스크리트어이다. ‘즈나’는 ‘지식’을 의미하고 ‘프라’는 ‘최상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프라즈나는 최상의 지식, 또는 더 큰 지식을 의미한다.

프라즈나를 지혜와 혼돈해서는 안 된다. 무신론적 종교인 불교 전통에서는 지식이 먼저 오고 지혜가 나중에 온다. 지혜는 응시와 관련이 있고 지식은 봄과 관련이 있다. 지식은 보는 것, 즉 지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보는 법을 다 배운 후에는 지혜의 차원, 즉 궁극적 차원에 있는 응시를 하기 시작한다.

프라즈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먼저 보는 훈련을 하지 않은 채 응시를 한다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응시할 수 없다. 당신이 그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자각과 훈련의 문제이다.



분노 · 우울감이 머릿속에 감돌면
내 안에 알음알이 있다는 뜻
분석적 마음은 자기 믿음 방어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대응

프라즈나에게 있어 지성이란 논리적으로 열려있는 상태이다. 어떤 정보에도 열려있으며 그 정보를 기꺼이 수집하고 씹어보고, 그것을 삼키고 소화시키고, 그것과 씨름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식인들에게 있는 그런 평범한 지성이 아니다. 지식인들의 지성에서는 당신에게 모종의 기준점이 주어진다.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알기 전에 이미 당신은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특정의 원자재가 주어지고 당신은 그 원자재를 이미 당신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특정의 수납장 칸에 맞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라즈나의 경우 당신은 원자재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정리할 수납장이 주어지지 않았다. 원한다면 손수 수납장을 만들 수는 있다. 그런 면에서 프라즈나의 경우 모든 것이 홈메이드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즈나가 더 큰 지성인인 것이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것은 논리라는 상대적 기준의 틀 안에서 지성을 연마하는 시스템이다.

“나는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내가 아픈 이유는 나에게 ‘나는 이전에 건강했는데, 기분이 괜찮았었는데’ 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억과 비교할 때 지금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일상의 논리이다.

프라즈나는 또 분별하는 자각의 씨앗이다. 분별하는 자각 하에서 당신은 사물을 열린 마음으로 보고 모든 것을 수용한다.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여기서 비판적이라는 것은 편협한 방식으로 사물을 수용 내지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물의 가치를 그것이 당신의 에고에 유익한가 위협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가치를 사물의 자리에서 보는 것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냉정한 판단력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더 큰 지식, 초월적 지식, 즉 프라즈나의 성품이다. 사물을 감정의 개입 없이 바라보지만 여전히 분별하는.

프라즈나 차원의 고통은 너무나 즉각적이고 너무나 강렬하다. 이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고통의 수위는 비교적 약한 것이다. 실은 여러모로 사치스럽기까지 하다. 프라즈나 차원에 있는 고통은 이전에 만났던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이전에는 거기에 우리의 지성을 적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고통스러웠고 고통에 갇혀 있었다. 물론 모종의 지성이 작용하고는 있었지만 프라즈나 차원에서처럼 백 퍼센트 가동은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원적 사고라는 쿠션이 없이 전라의 현실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원성의 개념은 두 개의 개별적인 것들이 각각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원성을 말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원성의 개념은 그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 한 가운데 그것을 갈라 놓는 커다란 벽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저쪽 칸에 있는 하나됨은 ‘저것’이라 불리고, 이쪽 칸에 있는 하나됨은 ‘이것’이라 불린다. 우리가 만든 수에즈 운하 때문에, 우리가 쌓은 담장 때문에 하나는 둘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비이원성은 두 가지가 녹아들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고 있는 벽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하나의 두 가지 양상이 서로를 만날 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두 가지 개체를 가지는 것에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다. 우리에게 비이원성이 강요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너무나 좁은 곳에 갇힌 기분, 쓰라린 기분이 든다. 이런 하나됨을 만나는 것은 훨씬 더 쓰라리고 훨씬 더 강렬하다. ‘그것’이 ‘이것’에 적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그것’에 적응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 벽이 무너지면 그것들은 더 이상의 적응의 여지없이 하나가 된다. 그것이 바로 프라즈나의 경험이 그렇게 쓰라리고 그렇게 즉각적이고 강렬한 이유이다. 극히 강렬하고 엄청나게 강렬하다.

이런 프라즈나의 차원에서 고통은 우리가 처음 보았던 것보다 100배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방금 고성능 신품 현미경을 입수했다. 그리고 당신의 작은 고통을 현미경 렌즈 아래 놓고 들여다본다. 그런데 거대한 괴물이 보인다. 아직 탄트라의 문턱에도 못 갔는데 말이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확대해서 고통을 보는 것이 과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올바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작은 물체를 현미경 아래 놓고 명료하게 보는 것이다.

나로파는 승원 안의 비좁은 방에 있는 것, 늘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호된 훈련을 받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는 언어를 사용하는 법, 의사소통을 하는 법,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토론을 했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경전을 외웠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매우 편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대승적 관점에서 재발견한 현실 때문에 고통 받고 있었다. 우리는 나로파의 실제 삶의 모습에서 배울 것이 많다. 자신의 지성을 믿는 것을 배울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분석적 마음과 지성적 마음을 구별해야 한다. 분석적 마음에서는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공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나타나는 현상들에 그 공식을 사용하려 한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그것을 해석한다. 하지만 분석적 마음이 없는 지성적 마음에서는 당신에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공식은 기본적 논리뿐이다. 즉 당신에게는 정해진 생각이나 패턴이 없다. 당신은 사회적 철학적 종교적 기준에 묶여 있지 않다. 당신에게는 그런 주입된 사상이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현미경 아래 놓고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성적 마음과 분석적 마음의 주된 차이이다. 지성적 마음은 프라즈나와 유사하다.

분석적 마음에 대한 또 하나의 특징은 거기에 약간의 공격심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방어하고 있다. 당신은 무언가를 분석하기 위해 그것을 이미 만들어진 기준점에 맞추려고 한다. 그런데 부품 하나가 사라졌다. 이제 당신은 그 부품에 관한 것들을 공부한다. 그런 다음 그 부품을 찾으면 당신은 그것을 원래의 본체에 맞추어 끼워야 한다. 그것은 매우 공격적이고 힘든 일이며, 당신을 완전히 눈멀게 한다. 당신은 전체를 볼 수가 없다.

반면 프라즈나적 의미의 지성은 매우 열려 있는 것이다. 프라즈나에겐 특별한 프로젝트가 주어진 적이 없다. 프라즈나에게 있어 유일한 프로젝트는 전체성과 명료성을 보는 일이다. 부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품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의 몸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프라즈나의 방식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행복해지는 연습〉(솔바람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 수십년된 명당터 사찰
• 대지 420평, 법당 1동, 요사채 1동
• 공찰소임 관계로 조건 맞는 스님께 협의 양도코저 함
• 가액 : 협의 조정
010-4263-08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및 비품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아득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4천만원
054)931-4449 / 011-543-2161
010-3123-3113

절 터 안 내
• 최고의 명당 절터
• 대지 3000천평 내 가옥 60평 한채
•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이 살아있는곳
• 대형차 진입가능 • 가액 : 4억
011-9583-310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 평수 : 374평(종교부지), 강변 야산에 50년된 암자
• 테크노폴리스, 고급기술 산업단지와 연구시설이 집중된 작은도시
• 재래시장, 정류장은 도보로 10분거리
• 가액 : 2억(절충가능)
010-3536-6333

좋은인연 대출안내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구 독 문 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관응 스님

“수초거사, 그대 스스로 뚫고 나오시게”



관응스님상(유지초본), 100x62cm, 종이에 수묵 채색, 1995, 직지사 중암소장.

스님은 내 가족에게 무척이나 살뜰하셨다. 거침없는 성격의 아버지와도 제법 말이 통하셨던 모양이다. 연락할 때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셨고 여러 번 동행을 청하셨다. 스님과 아버지와의 재미있는 일화가 생각난다.

한번은 스님과 아버지가 여느 때처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다. 식탁 위에는 정성을 다해 차린 귀한 반찬이 여럿 올라왔다. 송이버섯과 송이버섯 장아찌, 야생 더덕구이, 양해, 송이버섯 미역국, 산초간장 등이 상을 채웠다. 아버지 역시 특별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조용하던 식사가 끝나갈 때 아버지는 한 마디 던졌다.

“중이 음식을 이렇게 잘 먹어서 어디공부가 되겠어요? 잡념만 생기지...”

아뿔사! 큰 스님 앞에서 중이라니, 나는 순간 무척이나 놀랐다. 아버지께서 왜 그러실까. 그것도 귀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평소에도 엉뚱한 말로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곤 하셨는데 여기서도 거침이 없으셔서 더욱 난처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저도 손님 덕에 모처럼 포식하고 있네요” 라며 웃어넘기시는 게 아닌가. 이윽고 어쩔 줄 몰라하는 내게 중이란 말은 하대의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스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간 일화지만 당시 내게는 무척 아찔한 경험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산길을 거니는데 시자스님인 진관 스님은 “큰스님께서 8년 동안 천축산 무문관에서 지내셨다”고 했다. 산책을 마치고 큰스님 말씀을 따라 정자에 올랐다. 햇빛을 역광으로 받은 단풍이 맑고 투명했다. 나는 꼭 초등학교시절 단풍잎을 따서 책갈피에 넣어 놓았던 생각이 나 기분이 상기됐다. 단풍의 맑은 빛에 푹 젖어 있다가 나는 뒤늦게 무문관에 대한 의문을 쏟아냈다.

“스님 무문관에서 8년을 지내셨다 들었습니다. 문을 잠그면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기지 않나요? 죽음을 체험하는 순간처럼 어렵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공명, 명예, 탐욕, 지식욕 등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못할 텐데.., 무문관에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그 깨달음이란 것은 무엇인지요. 선은 왜 하며 해탈은 무엇이고 고는 무엇입니까?”

이 말이 끝나자 스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몸을 돌려 내게 등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순간 나는 당황했지만, 스님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참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돼갔다.

‘스님의 뒤태는 옷 주름으로 어지러운 선들이 난무하지만 스님의 정수리에서는 청수한 빛이 감돌고 있으니 온갖 현실의 벽들을 뒤로 한 채 맑음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현실을 버릴 수도 없고 이상만 추구하기도 어렵고 현실의 지난함을 안고 가되 이상을 꿈꾸는 삶이 아름답지 않은가?’

꽤 오랜 시간 온갖 이성과 논리를 동원해 스님과 나눴던 말을 생각했다.

선은 왜 하나? 해탈하려고? 왜? 인생이 고니까? 고가 무엇인데? 힘든 것, 얼굴 맞대기 싫은 대상, 그것이 고다. 그럼 인간이 죽으면 고에서 해방되니 죽으면 모든 게 해결 되지 않을까? 아니다. 죽음 뒤에도 또 다른 고가 있다고, 죽은 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증언하잖아... 이건 죽은 뒤의 고가 있다는 증거 아닌가? 뭐 그것은 소수의 특별한 증언 일 뿐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선정에 든 스님은 모든 것을 보셨겠지...고통은 깨달음의 기회를 주는 스승 아닌가? 그렇다면 스님은 그 고통을 통해 자기를 향상 시키고 해탈의 기회를 진정 얻으셨을까? 등 뒤를 보이는 건 그 진리를 설하시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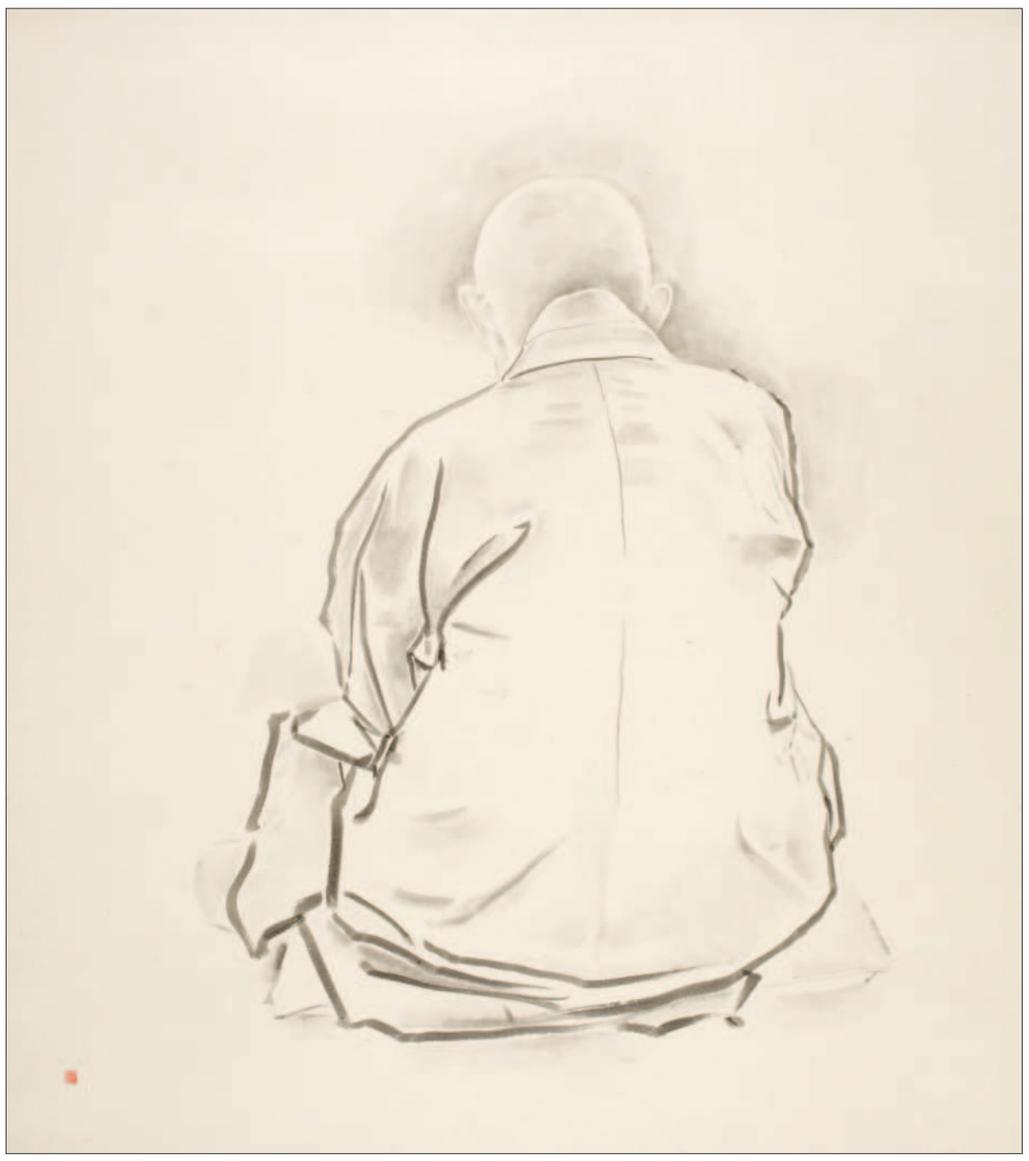
그리고 한참 후 스님께서는 다시 내 쪽으로 몸을 돌려 앉으셨다. 나는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어 스님이 다시 몸을 틀어 나를 보는 순간 홱 돌아앉아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의 방식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답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스님께 무례함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다. 그만큼 스님의 답변을 기다렸고, 때문에 야속함이 컸다.

스님과의 이 무례하고 끝없는 논쟁에는 의문의 과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스님께서는 지혜가 담긴 말과 자상한 설명으로 적극적으로 나를 이해시키셨다. 보잘 것 없이 부족한 화가에게 보여 주신 애정은 상상 이상이었다. 나는 지금도 스님의 그런 말씀을 고맙게 기억한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스님의 안목을 빌려 길을 더듬어 가기도 한다.

지금 생각해 보니 스님께서 나의 영적 의식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해 여러 방편을 설하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 방편들은 내가 현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소중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반성한다. 지금 나는 방편에 잡혀 방편을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방편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예술이라는 형식은 방편을 통해 인간의 정신을 그리는 것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도달 할 수 있는 방편인지를 말이다.

나는 스님의 뒷모습에서 깨달음의 빛을 보지 못했다. 아니 전달 받지 못했다. 이는 전적으로 나의 문제다. 스님의 말과 행동을 논리와 이성으로만 해석하려 했다. 그래서 나는 못 보았고 못 알아들었다.

“수초거사, 그대 스스로 뚫고 나와”



답변, 125X111cm, 종이에 수묵, 2015, 작가소장. 깨달음과 해탈은 무엇인지, 선은 왜 하는지 끝없이 질문하는 내게 스님은 아무 말씀 없이 몸을 돌려 앉으셨다.

거침없는 우리 아버지 “중이 이렇게 잘 먹어서야”
관응 스님 “손님 덕”이라며 유쾌히 포용

“무문관 8년에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스님은 말없이 등을 보이셨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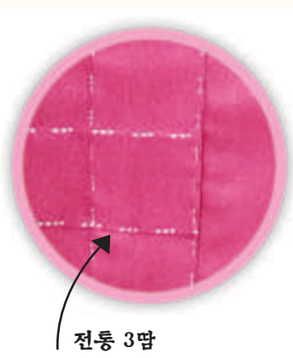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보조파이프 옵션
KW-BRD300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KW-BS200
“전동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서스펜션 (강력한 추진력)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양 제수 운반
고소 연등 설치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장!”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 급 과 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명품승복(가사전문)
※ 광고 홍보기간 동안 할인해드립니다.



전통 3땀
명품 승복을 경영하고 있는 저는 깊은 사찰 기도터에서 4박 5일 기도중 큰스님께서 홍가사를 수하시고 제게 상을주는 현상을 선몽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땀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박만복(활안수지상) 합장
반 수가사 (3땀 가사) 특징
❶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 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콩(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❷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땀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❸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 하며, 고르게 삼땀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 납니다.



특허증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 (제일시장 내)

스스로서 네 마음에 봄이 온다면 꽃이 필 수 있지!

영원한 마음의 봄이 되려면

질문 바쁘게 살다 보니 이제는 자식들도 다 커서 둥지를 떠나가고,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이룬 것도 하나 없는데 저승길이 목전이라 막막한 생각만 자꾸 일어납니다. 이 몸을 벗기 전에 내 본래 소식을 터득해서 영원한 마음의 봄이 되어야 할 텐데, 앉아서 좌선이라도 하려 들면 망상만 많아지고 잠만 쏟아집니다.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업장을 소멸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생각에 걸리질 마세요. 수면이 오더라도 그놈이 하는 거지 딴 것이 아니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그놈이 하는 거고, 서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앉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만남도 그놈이 하는 거고…. 그런데 왜 걸립니까? 자기가 나침반을 놓고 '이것이 누(累)가 되게 하지 않는 건가? 집안에 언짢은 일은 아닌가? 자식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질 않나?' 요것만 자꾸, 이 운전대만 잘 돌리면 그 차는 올바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모두 조용하게 삼십 분 동안이라도, 단 이십 분 동안이라도 모든 것을 주인공에 한데 모아서 딱 놓고선 한번 둥글려 보세요. 잡념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죠. 한번 둥글려서 내면에 딱 놓으면 잡념이고 뭐고 다 없어요. 자식이고 조상이고 부처고, 중생이고 벌레고 지수화풍이고 뭐고 다, 지수화풍 속에 다 홈빡 들어가 둥글려졌으니까 잡념 부릴 게 없죠.

그걸 무겁게 놓고 '너밖에는 모르는데, 수없이 진화돼서 온 과정도, 앞으로 갈 것도 너밖에는 모르는데 내가 너를 보지 않고 어떡하겠느냐.' 하고선 그냥 사무치게 관(觀)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수차에 그런 사무침이 없이 백지장 하나를 넘어서겠습니까? 여러분은 백지장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백지장 넘기가 어렵지, 다른 거 넘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무겁게 발을 떼어 놓고, 믿음을 무겁게 두면은 항상 묵직하게, 발을 떼어 놔도 묵직하게 떼어집니다. 말을 해도 묵직하게 떼어 놔지고.

옛날에 어느 도승이 계셨는데, 마적 떼들이 "야! 도승이라는데 내가 볼 때는, 껍데기로 봐서는 도대체 도승 같지 않아. 그래 네가 도승이라면 어디 내 칼이 안 들어가겠느냐? 네 가슴에는 철판을 대서 안 들어가겠느냐?" 하고선 오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꾸 앞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딱 다가오니까 '저 죽을 줄 모르고 오는구나.' 하면서, "도인은 무슨 놈의 도인이냐!" 하면서 칼을 들고 "네 가슴에 이 칼이 안 들어가겠느냐? 진짜로 도인이라면 내놔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칼로 찔러 버리겠다고.

"네 가슴을 찔러서 네 가슴속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보겠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껄껄 웃으시면서 하는 소리가 "아주 추운 동절에 고목을 잘라 봤던들 거기서 꽃이 나오더냐?" 그러곤 물었습니다, 꽃이 나오더냐고.



그림 · 최주현

"고목만 잘라질 뿐 꽃은 나오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만 "스스로서 네 마음에 봄이 온다면 꽃이 필 수도 있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던지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봄이 와서 마음에서 향기가 나고, 따르던 모든 사람도 전부 그 스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내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렇고 도둑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도둑이야!" 하고 "강도야!"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침착하게 거기 맡겨 놓으면 스스로서 몸뚱이의 모든 게 보살로 화하여 오고 감이 없이 그쪽에 가서 그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 마음이 봄이 돼서 그 칼로 사람을 찌르지 못한다는 이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이 있는데도 안 준다 이겁니다. "모든 걸 놓고 살아, 착하게. 악담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돼야,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야 당신 돈 줄 거 아니야? 그러니 항상 착한 마음으로써 다 놓게 되면 스스로 돈을 갖다 주게 돼 있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놓으니까 스스로서 그 사람이 돈을 갖다 주더랍니다, 정말. 그랬다는 셈으로 무술에서 고수가 되려도 그렇고, 태권도도 마음을 놓지 않고 모든 잡념을 버리지 않고는 못해요. 그러니 한 찰나에 그 사람 마음에 봄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에다 놓아야 하는지

질문 스님께서 설법하시는 내용을 조건별로 세세하게 나누어도 보고 비교 분석도 해 봤는데 뭐든지, 어떤 어려운 일에 부닥쳐도 마음에 놓으라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궁리를 해 봐도 그게 어떤 마음에다 놓으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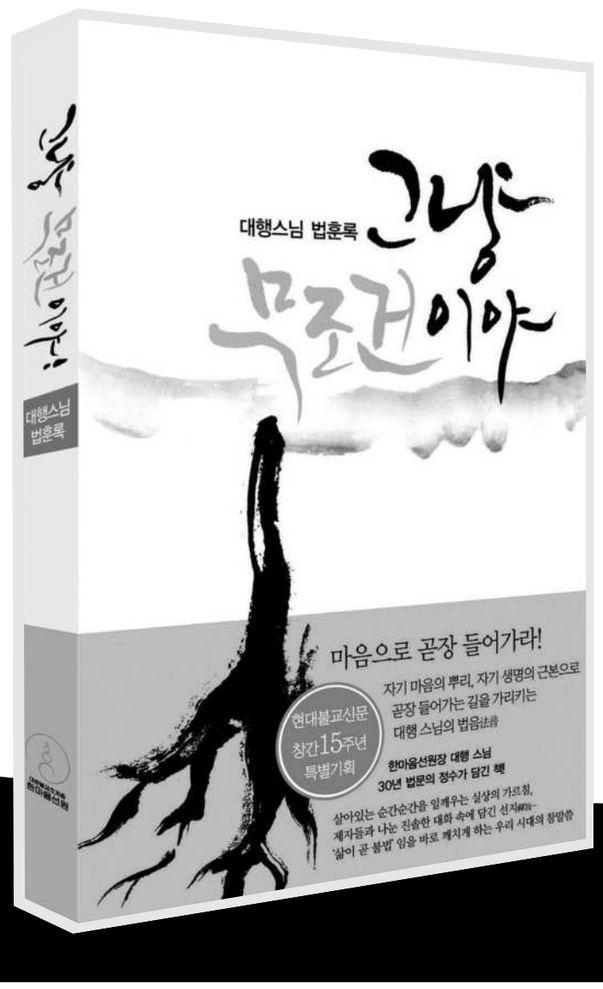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답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탄생을 했으면 그게 사대가 공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 모든 오온이 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국의 본점에서 모든 일체 만법이 나오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본점에다 모든 걸 맡겨 놔야 합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고 생활이 있죠?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공했으면서도 화두라 이겁니다, 이게 그대로.

그럼으로써 일심에서 만법이 나오고 만법은 일심으로 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고 가는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느냐 말입니다. 믿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다가 맡겨 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대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티끌 하나 남김없이 다 공해서 나투면서 옮겨갈 뿐입니다. 염주가 돌아가죠? 앞뒤가 없는 염주가 항상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지구 자체도 그렇고 우주 자체도 그렇고 인간 살아나가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항상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 놔야지 어디다 놓습니까. 누가 했기에 믿질 않는 거냔 말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했지마는 처음에는 역시 운전수가 있으면 차가 있고 기름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이름은 다를지언정 한 몸에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턱 밑에다가 한데 붙여 놓고도 과거심이니 현재심이니 미래심이니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더딥니까. 그리고 내가 공해서, 내가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또 주인공의 그 문제를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또 자꾸…. 이게 문을 오히려 막는 법이라. 예전에는 순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지금 시대에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서 문을 닫아 버려, 모두가. 그러니 이런 방식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내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내 주인공밖엔 고칠 수 없다!

☞ 29면에서 계속

으로 하지 않는다면 공부할 사람 없다 이 소립니다. 양면을 다 들고 다 놔라. 선과 악을 다 맡겨 놔라 이겁니다. 겁을 통해서 그 종 문서는 불살라야 하니까.

내가 항상 그런 말 하는데 작년 콩씨를 올봄에 심었는데 콩나무로 화했으니까 콩씨는 없어졌죠? 콩나무가 돼 버렸으니까. 내가 콩나무란 말입니다, 각자. 그럼 콩나무의 콩씨는 열렸겠죠, 또. 그런데 작년 콩씨를 찾고 있다 이 소립니다. 얼마나 더디냐 이 소리예요. 과거의 겁을 통해서 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몽땅 짊어지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겁니다. 그건 물질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체가 있는 게 아니어서 내 마음에, 컴퓨터에 들어가 있듯이 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겹겹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모든 거를 나오는 대로 거기다 놓지 않으면 그 습을 뗄 수가 없고 그 습을 녹일 수가 없어요. 홀연히 자기 참자기의 그 생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그것을 발견하려면, 그것을 개발하려면 놔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놔야 돼요. 자기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네 앉은 자리가 전체, 우주 전체 그 자리가 도량이니라. 저기 가 앉으면 저기에 부처가 있는 거고….' 아, 여북하면 변소에 가면 변소에 계시다니까요. 그렇게 놓지 않으면 어떻게 그 미지수의 세계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느냔 말입니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하려면…

질문 요즘 아이들이 잦은 병치레를 하는 바람에 생활에 여유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아이 하나만 아파도 가족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근심이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스님, 아이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 속에서, 이 지금 오장 육부 속에 생명들이 수십억 마리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그 의식 자체를 지배하는 거는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의식만 빠지면 송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생명들이 운행하는 데에 간이 아프다 위장이 아프다 그럴 때 위장 공장에다가 직속 '야, 너희들이 아프게 한 거니까 너희가 낫게 해야지.' 한다면, 그대로만 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로 인해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들의 주인공도 둘이 아닌 까닭에 내 주인공만이 내 아이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믿고 거기다가 맡겨 보세요. 바깥으로 반드시 나옵니다.

아픈 거나 가난한 거나 가정의 우환이나 또는 인과응보로 인해서 오는 거나 유전성으로 오는 거나 영계성으로 오는 거나, 용광로에 헌쇠들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쇠가 생산이 돼서 나가듯이, 모든 일체를 다 그렇게 해서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한다면 새로 생산돼서, 이름을 가지고 다시 나가는 것은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위대하든지 위대 안 하든지, 생활 속에서 어려운 사람이든 거지든 부자든 그거 아랑곳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것도 아랑곳없어요. 내가 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똥 누면서도 자면서도 항상 내가 내 앞에 닥친 거를 내가 생각날 때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엎드러지면 누가 일어납니까? 엎드러진 놈은 누구고 일어나는 놈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엎드러졌으면 자기가 일어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어요. 이열치열! 병이라는 건 몸만 아파서 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병입니다.

> 모든 거를 나오는 대로 거기다 놓지 않으면
> 그 습을 뗄 수가 없고 그 습을 녹일 수가 없어요.
> 홀연히 참자기의 그 생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정신박약아가 되는 것도 여기에서, 자기한테서 나온 거지, 인과응보로 나왔든 유전성으로 나온 거든 세균성으로 나온 거든, 또는 척추에서 나온 거든 두뇌에서 나온 거든 그건 아랑곳없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서 나온 거죠. 그런 거니까,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자기한테다 맡기세요. 기계도 조립한 사람이 잘 고치듯.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자기한테다가 맡겨라 이겁니다. 맡겨 놓고 '어, 거기서 나온 거니까, 내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내 주인공밖엔 고칠 수 없구나. 주인공, 너 알아서 해.' 하고선 맡겨 놓고 관해 본다. 이거 관한다 하는 건 지켜본다 이겁니다. 지켜보면 그때에, 바깥으로 어떠한 문제가 나올 때에 자기가 실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주인공에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전깃불과 같다. 스위치를 올리면 이 방에도 들어오고 저 방에 들어오고, 전력이 가설이 다 돼 있으니까 내가 다니면서 스위치를 올리면 방에 불이 들어오죠? 전력이 들어오는 그 과정은 모르지만 불 들어오는 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전력이 들어오는 과정은 보이지 않지만 불이 들어오는 과정은 봤다 이겁니다. 불 들어왔잖습니까? 그러니까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는 건 믿으시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자기한테도 영원한 자기의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행하는 그 마음도 선행하는 마음도 다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써 '거기에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하고 믿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전력이 보이지 않게 들어오듯이, 내 마음의 법성신의 그 뜻이 돌아서 바로 나한테 턱 나타날 때 그 기쁨이란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조그마한 걸로부터 나를 실험해 보고, 내 몸으로 실험하고 내 가정으로 실험하고 내 사회로 실험하고 또 어떠한 나라로 실험하고, 이렇게 자기가 한번 던져 보고 자기가 실험하고 이렇게 해 보면 그게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밝아집니다. 자기 본래면목을 밝게 볼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전각마다 부처님이 계시는데

질문 저는 산을 좋아해서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산엘 갑니다. 그런데 산에 가면 절이 있어서 참배를 드리게 되는데, 대웅전에도 여러 부처님이 모셔져 있지만 전각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스님, 모든 부처님과 전각에 다 참배를 해야 하는지요? 왠지 빠트리게 되면 께름칙한 기분이 들어서 여쭤 봅니다.

답변 각 사찰에 이 모든 부처님을 모셔 놨든 신중당을 모셔 놨든, 하다못해 돌을 모셔 놨든 상관할 것 없어요.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건 부처다 부처가 아니다 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요.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만물만생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고 감사하지 않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이렇게 각자 찾으렵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배를 타려고 뱃사공한테 가면 뱃사공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물건을 하나 사려고 공장에 갔다 한다면 공장 주인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치과에 갔더니 정말 그 치과의 박사가 으뜸입디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다 으뜸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지!'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모른다면 백문선이 헛문선이죠. 그러니 내가 부탁할 것은 어느 법당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모두 일불(一佛)의 한생각으로써, 한마음으로써 부처님한테 지극하게, 내 한마음과 일체제불의 한마음을 다 한꺼번에 해서 일배를 올린다면 천배 올린 것보다 수확이 좋다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처님한테 갔을 때에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부처에도 놔야 하고 저 부처에도 놔야 하고, 요 부처에 놓지 않으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 요 부처에 놓지 않으면 영감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또 재수가 좋지 않으면 어쩌나? 또 삼재가 들었으니 언짢으면 어쩌나? 이러한 까닭에 없는 살림에 몇 푼 가지고 가서 요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놓으려니 어떤 땐 모자라서 그냥 나오면 마음이 께름칙하다 이겁니다.

모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한 부처님 앞에 그냥 고스란히 놓고 지극하고 정성스럽게 모두 거기 계신 분들을 한마음으로 모시면서 지극하게 하시고요, 없으면 지극하게 나오시고요. 또 있으면은 있는 대로 그 절에 다 놓더라도 한마음으로써 놓으시고, 또 웬만하면 그 절의 주지스님을 찾아서 주지스님한테 "모두를 다 써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거기 갖다 놓는 거나 산부처님한테 갖다 놓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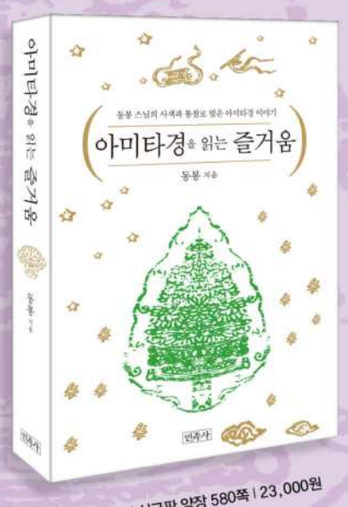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백만 원짜리를 사러 갔다면 백만 원을 꼭 줘야 삽니다. 오십 원짜리 사러 갔으면 오십 원짜리는 꼭 오십 원짜리를 줘야 합니다. 오십 원을 주면은 오십 원짜리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 그것은 돈을 스님한테 준 사이도 없고 부처님한테 갖다 놓은 사이도 없는 겁니다. 또 가져간 사이도 없죠. 부처님이 준 사이도 없고 스님네들이 준 사이도 없죠. 그래서 준 사이도 없고 가져간 사이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합니다. 이 뜻을 잘 알아서 행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멸심과 적멸심의 관계

질문 우리의 마음은 일순간도 쉬지 않고 찰나에 일어났다가 찰나에 없어졌다 또 찰나에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작용이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는 한생각 일어났다가 한생각 없어지는 그 생멸심이 곧 멸하면은, 그것이 쉽게 말해 본래 마음이다. 즉 불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고요한 적멸심의 자리와 끊임없이 일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 생멸심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요.

답변 우리가 여기 걸어올 때에 한 발 떼었다 한 발 놓고, 한 발 떼었다 한 발 놓고, 이게 생멸입니다. 이게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알려고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안 그렇습니까? 일어났다 또는 가라앉았다 이게, 마음이 이렇다는 것과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놓고 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이게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놓고 하는 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안 그런가요? 일어났다 가라앉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성불이라는 말도 없을 거고 중생이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한번 방편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 노릇 하다가 남편 노릇 하다가 또는 형님 노릇 하다가 자식 노릇 하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방 일어났는데 금방 딴 걸로 돌아갔어요. 금방 딴 걸로 돌아가고 딴 걸로 돌아가고, 이렇게 일어났다 놓았다가 일어났다 놓았다 해도 그냥 여여하게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닌 것입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냥 "여보!" 하면은 "왜 그래?" 하고 일어나는 마음, 그 일어나는 마음은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악으로나 선으로나, 일어나는 마음을 잘 응용을 하면은 선이 되고 잘 응용하지 못하면 악이 됩니다. 싸움을 할래도 "여보!" 할 테고, 좋은 말을 할래도 "여보!" 할 겁니다. 그런 걸 대치를 해서 잘 응용한다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법인 것입니다.

과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아미타경 해설,
동봉 스님의 삶과 수행 이야기가 담긴
수필처럼 아름다운 경전 해설
부록 독송하기 쉬운 아미타경
동봉 스님의 사색과 통찰로 빚은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지구환경이 병들면 생명도 아픕니다. 지구환경이 쾌적할 때 다른 생명은 우선 접어두고라도 인간의 삶도 건강합니다. 환경을 다루고 있는 아미타경은 그래서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염려하시는 경전입니다. 네가 아프기에 나도 아프다. 곧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본문 중에서
MBC 스페셜 '동봉, 킬리만자로에 가다'를 통해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을 구호하는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친근한 동봉 스님의 57번째 저서.


동봉 지음 | 신국판 양장 580쪽 | 23,000원
민족사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월호 스님과 배종훈 작가의 환상적인 만남이 빚어낸
월호 스님의 참선 이야기와 낭의 수행일기
참선과 카툰의 만남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힐링을 넘어 근원적인 행복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명상이라 한다면, 그 관찰자를 관찰하는 것이 참선이다. (중략) 플라톤의 고양이는 천국에 원본이 있다. 현실의 고양이는 사본에 불과하다. 하지만 참선의 고양이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항상 귀중한 원본이다. 고양이를 살려낼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대에게 달려 있다."
-월호 스님
"'냥'은 고양이를 넘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생명으로 늘 그 경계에서 갈등해야 하는 모습이 고양이 '냥'에게 들어 있다. 냥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웃고, 부끄러워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다."
-배종훈 작가


월호 · 배종훈 지음 | 변형신국판 280쪽 | 16,500원
민족사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불자 세상보기

영국의 간디 동상, 日 반면교사 삼아야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맞은 편 의회광장에 인도의 민족영웅 간디 동상이 세워졌다고 한다. 잘 알려진 대로 간디는 영국의 식민지배정책에 비폭력과 무저항으로 맞서 마침내 독립을 쟁취한 위대한 정치지도자였다. 그 과정에서 간디는 인류에게 소중한 평화의 메시지를 선물했다. 간디의 비폭력과 무저항정신은 인도를 대영제국의 엄혹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준 원동력이었다.

그런 간디를 가리켜 영국 수상 처칠은 '벌거벗은 비렁뱅이' 에 불과한 간디가 수행자인척 행세하지만 사실은 선동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처칠은 그런 간디가 차라리 '굶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는 저주를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영원히 사이좋게 지내야 할 모양이다. 두 사람의 동상이 불과 몇 십 미터를 사이에 두고 같은 광장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 나름의 과거사 반성을 상징하는 커다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독일도 2차 대전과 유대인 학살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끊임없는 반성과 꾸준한 보상을 통해 자신들의 죄 값을 묵묵히 치러왔다. 1970년 독일총리 빌리 브란트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게토 추모비 앞에서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은 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독일국민들은 말이나 퍼포먼스로만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을 세워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전쟁피해자 166만 6천명에게 5조 3660억 원을 배상했다. 우리는 이 재단의 명칭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이를 미래에까지 계승함으로써 두 번 다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독일과 함께 전범국가인 일본의 역사인식은 이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다. 행동은커녕 말로도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온갖 해괴한 논리와 억지를 부려왔다. 참으로 볼썽사나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이와 같은 태도에 전쟁의 피해자인 주변국들의 분노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일본의 아베정부는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는 세계평화가 위협받지나 않을까 우려스럽다. 지금 일본은 경제력을 앞세워 군사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안달이 나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국익과도 맞아 떨어져 한 층 더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아베 총리의 속마음은 당장이라도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일본을 방문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과거와 제대로 마주했다' 는 말과 함께 '일본은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본의 식민지국가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우리로서는 메르켈총리의 적절한 훈수가 속 시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노련한 정치가인 메르켈은 덧붙여서 '주변국은 인내하고 관용해야 한다' 는 말을 잊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메르켈의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듣기에 따라 메르켈의 지적은 일본에게는 잘못의 인정을 그리고 한국과 중국 등의 주변국들에겐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함께 나갈 것을 주문하는 듯한 말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사회의 반일정서상 후자에 방점을 찍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질서는 냉엄한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우리가 일본을 향해 언제까지나 도덕적인 반성만 촉구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일본을 국력으로 압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들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할 힘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불 속에서의 만세 부르기는 잠시 후련할 뿐이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사과와 참회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대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의 빈 의자에 장미꽃을 들고 찾아와 헌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면 한다.

아직은 도쿄 한복판에 우리의 영웅인 안중근 의사와 그들의 자랑인 이토 히로부미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는 광경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성 싶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교계 갈등을 바라보며

아집의 가시 언제 제거될까?



법진 스님
태고종 보타낙가사 회주

하루는 스승이 제자를 만나 물었다.

"가시나무를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그럼, 가시나무는 어떤 종류들이 있던가?" "탱자나무, 찔레나무, 장미꽃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가시 달린 나무로 넓이가 한 아름되는 나무를 보았는가?" "못 보았습니다."

"그럴 것이다. 가시가 달린 나무는 한 아름 되게 크지는 않는다. 가시가 없어야 한 아름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시가 없는 나무라야 큰 나무가 되어 집도 짓고 상량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가시 없는 큰 나무는 다용도로 쓸 수 있지만 가시 있는 나무는 쓸모가 별로 없느니라" "....."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훌륭한 지도자이며,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릇이다. 가시는 남을 찔러서 아프게 한다. 그리고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한다. 입을 통해 나온 말의 가시, 손발을 통해서 나온 육신의 가시, 욕심을 통해서 나온 마음의 가시 등은 피해를 입힌다. 나무도 가시가 없어야 다용도로 널리 쓰이듯 사람도 가시가 없어야 우주를 살려내고 인류를 살려내는 동양이 될 수 있다.

요즈음 그 어느때보다도 시방세계가 시끄럽다. 우선 내가 몸담고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이 그렇고, 종립학교인 동국대 총장과 이사장 선거도 잡음이 강하다. 이외에도 우리 불교계엔 갈등이 늘고 있다. 이럴 때일 수록 우리 수행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원융무애(圓融無碍)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이는 막힘과 분별과 대립이 없이 두루두루 통하는 상태로 흔히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여긴다. 원융무애의 본래 취지는 초기불교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불교의 핵심사상이라 할 수 있다. 즉 깨달음 이후의 부처님의 전 생애는 원융무애의 삶이었으며, 이러한 붓다의 원융무애의 정신은 대승불교에 계승발전됐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전 역사는 원융무애에 입각해 전개 발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싯다르타가 행한 수행은 극단과 편견, 차별과 대립을 넘어선 중도(中道)이며, 그러한 중도 수행을 통해 획득한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설(緣起說)로써, 모든 존재는 막힘없이 상호 의존적으로 관계하는 것이다. 이처럼 연기와 중도는 '서로 차별됨이 없이 원만하게 융합 의존한다' 는 원융무애 정신의 근간이 된다, 불교의 세계관과 실천관은 연기와 중도, 다시 말해 원융과 무애 이 두 축에 토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융은 원만하게 두루 융섭하여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연기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무애는 치우침이나 편견 없이 서로 통하여 완전한 일치 내지 조화를 뜻하는 중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원융과 무애는 연기와 중도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말만 들어도 금방 마음이 둥글게 되어지는 것 같다. 앞으로 서로 갈등하지 말고 원융무애하게 살았으면 한다. 원만하고 융통하여 걸림이 없게 말이다. 서로 좀 다르면 어떤가. 다름을 인정하는 하모니와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각각의 것들이 그 입장을 유지하면서 완전히 일체가 되어 서로 융합하고 방해하지 않게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우리는 많은 불자들에게 탐진치삼독심(貪嗔癡三毒心)을 멀리하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들이 삼독심에 빠진다면 금계를 지켜 득과(得果)하여 환도중생(還度衆生)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수렁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 넣는 꼴이 된다.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 정쟁에서 벗어나 상춘을 맞자. 마음 속에 깊이 박힌 상처들을 서로 훌훌 털어내고 서로를 보듬어 주자. 서로 조화를 이뤄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지금의 자연처럼 말이다. 과연 언제일까? 기다려 진다. 우리 속에 박힌 아집의 가시를 제거 하는 날이.

社說

문화재 도난 범죄 공소시효 연장돼야

도난문화재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월 9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절취 또는 은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25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에는 도굴에 대해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정했다. 이는 문화재 절도 행위를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로 본 것으로 우리나라 형법상 최장의 공소시효 기간이다.

사실 도난문화재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주장은 오래 전부터 논의된 사안이다. 실제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인사동의 한 옥션에서 회수한 도난 성보문화재의 경우 도난품을 경매에 출품한 사립박물관장 권모 씨는 처벌을 받았지만, 권 씨에게 이를 판매한 12명 중 10명이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받지 않았다.

조계종이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도 문화재를 도난해 은닉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문화부장 혜일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공소시효 폐지가 최선이지만 25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난 것은 환영한다" 고 밝히기도 했다.

혜일 스님의 말대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궁극에는 문화재 매매 허가제를 도입해 관할 지자체 도난 여부 심사 등을 거쳐 매매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매매된 문화재가 도난품으로 확인되면 매매를 무효로 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및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공소시효 연장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초석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증도가' 학계 진위연구 필요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 1377년 간행)보다 앞선 금속활자본이 발견됐다는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의 주장과 관련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직지의 고장' 인 청주시 고인쇄박물관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박 원장은 3월 17일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 약칭 증도가)는 목판본이 아니라 직지보다 138년 앞선 1239년에 간행된 최고 금속활자본" 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문제의 판본(보물 제758-2호)과 목판본 증도가(보물 제758호)를 놓고 농담(濃淡), 활자 움직임, 쇠똥자국 등을 비교해 전자를 금속활자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청주 고인쇄박물관에 따르면 보물 제758-2호 증도가는 고종26년(1239년) 무신정권 수장인 최이가 쓴 발문을 토대로 목판본으로 여겼다.

'어시모공 중조주자본 이수기전언' (於是募工 重彫鑄字本 以壽其傳焉)이라는 발문은 "기술자를 모집해 주자본을 놓고 다시 목판본으로 새겼다" 는 뜻으로 해석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금속활자본을 목판본으로 다시 새겼다는 것이다. 고인쇄박물관측은 " '새겼다' 는 것은 목판을 의미한다" 라며 "활자는 주조했다는 표현을 쓴다" 고 그동안의 정설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박 원장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밀한 검토를 거친 끝에 금속활자라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목판본일 수가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250여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 증도가자 자체가 세계 최고 금속활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증도가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으로 학계가 관심을 갖고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인쇄사의 역사 지도가 바뀔지도 모르는 중대사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인간의 길흉화복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혼들의 영향력 확인 천도법

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내가영혼을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법. 환자와 가족이 확인

1 영가장애를 상담자리에서 영가가 누구인지 확인체험
2 영가를 환자의 몸에서 확인가능 (6하원칙에 의한 빙의 경로 확인)
3 인체오라장 (생명전기장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빙의 확인 치유과정 확인)
4 일반병, 정신병, 영가질환의 구분 (질병의 원인 영가장애 확인)
5 보라색과 파란빛, 황금빛으로 영가들이 천도되는 것을 확인
6 암, 당뇨, 고혈압,중풍,치매,우울증, 불면증,공황장애, 트라우마, 빙의, 무속병, 환청, 환시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질환의 원인규법 (유전병 치유, 특이성 질환)
7 영가들의 수준확인
⇨ 저급영가 – 한과 집착 질병 호소
⇨ 중급영가 – 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돈
⇨ 고급영가 – 내면의 깨달음에 대한 갈망
8 신앙생활과 기도를 해도 진도가 없는분 스님, 불자분, 포교원
9 기도명상,만트라진언,영언수련을 통한 자신의 영혼과 교감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삶의 가치확립, 영혼의 윤회 과정을 확실히 앎

검색 유튜브강의 자각선원 | 네이버카페 자각선원

자각선원 (인체전기파동의학) ☎ 043)296-5258. 010-9242-525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원봉로 93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연속과 불연속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상용의례를 중심으로
정각/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3 **밀교학 개론**
밀교란 무엇인가
증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인도문화와 대승불교
塚本啓祥/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돈오돈수와 중도·영원에서 영원으로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그 사상사적 이해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융합
청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역사와 종교의 변증법적 이해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도겐의 『정법안장』을 중심으로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의학의 만남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선사상과 서양철학의 회통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불교철학과 미술사의 통합적 인식
자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현행 『천수경』의 성립 및 구조에 대한 분석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불전佛典의 성립과 전승
최종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화엄교학의 대성자
계환/신국판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유식불교란 무엇인가
후카우라 세이분 저/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불교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실천체계 및 현황
조보각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현송/신국판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생애 및 사상, 수행과 결과를 중심으로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입법계품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여행을 중심으로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영명 연수의 사상과 수행을 중심으로
법상/신국판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정토불교의 기원과 전개, 교리와 인물을 중심으로
현송/신국판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한국불교 정통성 회복을 중심으로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시식, 공양, 송주 의례를 중심으로
이성운/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에 가교를 놓다
소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기록으로 만나는 불교 세시풍속과 문화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신행의 사상과 실천, 신라불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천태지자·운서주굉·영봉우익의 주석서들을 종합한 주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신국판양장/556쪽/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이것이 수행의 길이다" 중국 동화선사 만행스님 수행서

6조 혜능, 랍몽대사와의 기연!!
이론은 실천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단지 돌아갈 길을 단축시켜 걷게 할 뿐이다.
속세의 일에 성심성의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무문관 안에서도 성심성의로 임할 수 있다.
22살에 시작한 7년간의 무문관 장좌불와!! 생과 사를 넘나든 혹독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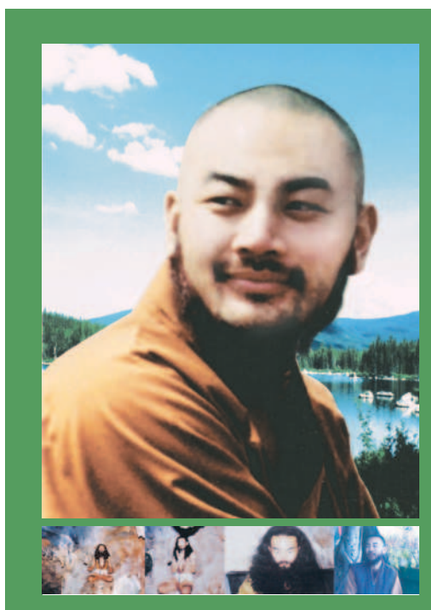






동화선사는 중국 광동성 소관시 옹원현 동화산에 있다. 6세기 인도의 고승 지약삼장선사께서 오셔서 영취사를 창건하셨고, 7세기에 육조혜능대사께서 수행 득도하시고 영취사를 동화선사로 바꾸고 흥성시켰지만 15세기 이후로 쇠퇴하였다. 1997년에 만행스님이 지약선사와 혜능대사께서 수련하셨던 동굴에서 3년동안 폐관수련을 하였고, 드디어 불성의 근원을 증득하고 출관하여 동화선사를 복원 중창하였다. 만행스님은 동화선사를 선종의 도량으로 삼고, 대중들을 이끌어 해탈의 길을 전수하고자 서원하면서 "불교를 믿으려면 우선 나라를 사랑하고, 부처님공부를 하려면 먼저 사람노릇부터 잘하며, 도를 닦으려면 발심을 해야 한다."는 동화사 가풍을 세웠다. 현재는 500명이 상주할 수 있는 거대 사찰이 되었고, 이들 모두가 참선수행 정진하고 있다.

■ 구입처 : 02)2249-5630 대유학당 / 전국 유명서점 및 온라인 서점



7년을 동굴 속에서 장좌불와한 경험을 기록한 것이 마음의 달이고 출관한 뒤에 동화사를 복원 중창하면서, 주간에는 신도들과 함께 동화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신도들에게 설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항복기심, 선용기심, 기심무주 세권의 책으로 출간.



마음의 달 Ⅰ·Ⅱ ▶ 가격 : 각권 1만원
7년간의 무문관 수행끝에 성품을 본 만행스님의 수련과 깨침의 과정 그리고 1천명이 항시 수도할 수 있는 수행도량 동화선사를 창건하게 된 보살행 이야기.

항복기심 ▶ 가격 : 18,000원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탐 · 진 · 치 · 만 · 의에 물들기 쉬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마음은 금방 광명해지고 환희로 가득 찰 것이다.

선용기심 ▶ 가격 : 30,000원
자신의 마음을 착하고 좋게 쓰는 것이다. 마음을 선용하게 되면, 어려움과 고통과 액운을 이겨나가고 슬퍼서 마음 상하고 병드는 일이 없어진다.

기심무주 ▶ 2016년 출간예정!!
자신의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집착이 없어지면 뒤집혀 넘어지는 일이 없어지고 몽상에 빠지지 않으며 항상 각조를 지닐 수 있다.

항복기심, 선용기심, 기심무주 이 셋은 수행해서 득도하고 보살행을 하는 세 단계의 과정을 뜻하면서, 수행할 때 가져야 할 마음자세이기도 합니다. 참선수행을 할 때 항상 이 세 마음을 받들면, 마음과 몸에서 곧바로 명월(明月)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苦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